머리말

이 책은 논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교사가 직접 고교 논술 교육을 운용할 수 있고 학생 스스로가 논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된 것이다.

교과부의 갑작스런 논술 과목 채택으로 말미암아 일선 학교에서는 논술 전문 교원이 태부족이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또 방학 기간 동안의 한시적 교사 연수로는 논술 교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논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느 교사라도 논술 교육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논술 교육 지침서와 그에 따른 학교 수업용 교재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이다. 항간의 학습용 교재로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점가의 수많은 논술 책들을 보면 글쓴이 나름대로의 고뇌가 서려 있고 애타는 심정이 역력하다. 그런데 왜 아직 논술의 본질을 파고든 책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이 본질을 교육함으로써 논술 공교육은 제자리를 잡고 대입 논술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는 없는가?

논술의 본질은 주지하다시피 논술문의 내용면과 구성면과 표현면 이 세 가지에, 제시문 독해와 쓰기, 요약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창의적 내용이냐를 묻는 **창의력**, 논증적 해결, 논리적 구성이냐를 묻는 **논증·논리력**, 어법이나 맞춤법·띄어쓰기에 맞느냐를 묻는 **표현력,** 제시문 독해와 쓰기, 요약을 요구하는 **이해·분석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다. 논술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본질을 다루지 못했던 까닭은, 창의력 분야는 아예 손댈 수가 없었고 이해·분석력 분야의 제시문 독해와 쓰기, 요약에 대해서는 모범답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논증·논리력 분야는 논리학에 치우쳐 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나마 맞춤법, 띄어쓰기, 어법 등의 표현력은 지식과 경험으로 가능한 것이어서 첨삭지도를 통해 활성화되어 있다. 그 결과, 첨삭지도가 논술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제시문 독해와 쓰기, 요약에 대해 언어과학적 원리로 명확히 해결하였으며, 가장 중요하지만 손대지 못했던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고 훈련하고 있다. 또 이 창의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도 명시하였다. 무엇보다 이 능력들이 서로 얽혀 고급 논술문이 생산되는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며 훈련하고 있다. 마음껏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여 지혜를 계발하는 논술 책, 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정확히 밝힌 책, 이제 그 책을 세상에 처음 내놓는다.

필자는 대입 수험생의 국어·논술과 대학 교양논술을 겸하여 20년간 가르치고 연구해왔다. 교과부의 갑작스런 논술 정규과목 발표가 없었던들 나는 이 연구들을 학술지에 실어 개인 연구업적에 보태려 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연구들을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풀어 써 이 나라 논술 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이 책으로 교사 누구나 논술 수업을 운용할 수 있음은 물론, 학생들은 어떤 입시문제도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으로 대한민국의 고교 논술교육이 더 이상의 사교육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2014. 5. 저자 최 춘 태

이 책의 특징

1. 이 책은 최초의 논술 교육 지침서이자 학생 훈련서로서 교사 누구나 고교 논술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고, 학생 스스로 논술을 터득할 수 있게 하였다.

2. 이 책은 기존의 일방향성 논술교육을 지양하고 양방향성 논술교육을 채택하여 논술의 본질적 목적에 부응하였다.

3. 이 책은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논술 학습서가 아니라 종합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최초의 논술 훈련서로 개발되었다.

4. 이 책은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창의력 개발을 위한 훈련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5. 이 책은 논술의 각 능력들이 결합되는 과정과 양상을 보여주어 교사와 학생이 서로 공감하며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제시문을 언어과학으로 해결하여 정밀하게 독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장 간, 단락 간의 관계를 언어 원리로 훈련하여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하고 고급문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7. 책의 중간 중간에 토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수업 분위기 전환으로 수업의 활기를 도모하고 토론의 과정을 통해 논술 능력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였다.

8. 이 책은 고교 교과서 내의 제시문을 발췌하여 출제하였으며 교과부와 각 대학들이 지향하는 출제 유형과 방침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 책의 구성

1. 이 책은 지도자 지침서와 학생 훈련서 두 권으로 구성되었다.

2. 이 책의 전반부는 원리편으로 논술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3. 이 책의 중반부는 원리 적용편으로 실전 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4. 이 책의 후반부는 실전편으로 고교 교과서 지문을 채택하여 유형별 문제를 출제, 풀이하였다.

원 리 편(1권)

논술의 본질

1. 논술의 개념
2. 논술의 요소

(1) 이해와 분석력-

1)독해와 글쓰기에 대한 이해와 분석

a.원리1/b.원리2/c.원리3/d.원리4/e.원리5/f.원리6/g.원리7/h.원리8/i.원리9/j.원리10/k.원리11/l.원리12/m.원리13/n.원리14/o.원리15

2)요약에 대한 이해와 분석

a. 요약의 원칙
b. 요약의 방법
c. 요약의 원리

3)자료읽기에 대한 이해와 분석

a. 서술자료 분석 -- 현재 미비
b. 도표 자료 분석-- 현재 미비
c. 혼합자료 분석-- 현재 미비

(2) 창의력

1) 첫째 이야기- 경로석은 나쁜 것인가?
2) 둘째 이야기- 심청은 천하 불효녀다
3) 셋째 이야기- 개미는 배장이에게 양식을 꿔줘야 한다.
4) 넷째 이야기- 홍부가 나쁜 놈이다

(3) 논증·논리력

1) 논증·논리력은 내재된 지식이다.
2)창의적 근거(결론)를 위한 논리적 근거 만들기
3) 단락 만들기
a. 서론부 단락 쓰기

b. 본론부 단락 쓰기
c. 결론부 단락 쓰기
d. 사실과 주장 단락 쓰기

(4) 표현력

1) 결속성 저해요인 퇴치하기
a. 띄어쓰기
b. 맞춤법
c. 문장부호
d. 표준어 규정
e. 지시어, 문접속어, 필수성분 생략
f. 호응관계
h. 문장 분리, 문장 뒤섞기
i. 단락 나누기, 단락 배열하기
j. 종합평가

훈 련 편(2권)

논술 요소들의 통합

1) 첫째 마당(논술과정)
   a. 이해와 분석 단계
   b. 창의 단계
   c. 논증·논리 단계
   e. 표현 단계

2) 둘째 마당(통합훈련)
   a. 이해와 분석 단계
   b. 창의 단계
   c. 논증·논리 단계
   e. 표현 단계

3) 셋째 마당

4) 넷째 마당

실 전 편(3권)

1) 문제 출제의 원리

비교형 서로의 비교 관계를 통해 상대지문을 파악하는 형

대조형 서로의 대조 관계를 통해 상대지문을 파악하는 형

분산형 서로의 관계를 통해 각각의 주지를 파악하는 형

혼합형 비교와 대조를 혼합

2) 실전 문제

a.

b.

c.

.....

.....

논술의 본질

논술의 본질은 논술의 내용면과 구성면과 표현면 이 세 가지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창의적 내용이냐를 묻는 **창의력**, 논리적 구성이냐를 묻는 **논증·논리력**, 어법이나 맞춤법·띄어쓰기에 맞느냐를 묻는 **표현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제시문 독해와 요약을 요구하는 **이해·분석력**이다. 논술 한 편에 녹아 있는 이 사고력들을 우리는 종합적 사고력이라 불러 왔다. 이제 각 사고력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사고력들이 언어를 재료로 하여 어떤 양상으로 융합되어 있는지 알아야 논술의 본질은 규명되는 것이다. 이 본질이 규명되었을 때, 비로소 수박의 속살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1. 논술의 개념

논술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아래 내용을 보고, 이를 보완하여 논술의 정확한 개념을 세워 보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술을 정의해 보라.

논술(論述)의 논(論)은 '논의하다, 따지다'는 뜻이다. '논의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자기 주장을 편다는 것이고, '따진다'는 것은 막무가내식이 아니라 논리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곧 논(論)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다'는 뜻이 된다. 또 술(述)은 '글을 짓다, 서술하다'는 뜻이다. '글을 짓다'는 것은 없던 글을 새로 만드는 것이며 '서술하다'는 것은 글을 전개하여 써내려간다는 뜻이다. 결국 논(論)과 술(述)을 합치면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써내려 간 것'이 된다. 그러나 이들만으로 논술의 개념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원진숙(1995)에서 논술을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방안' 구도로 본 것은 논술의 핵심을 간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논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평이한 해결방안이라면 이것은 논술이라 할 수 없다. 문제의 해결은 매우 합당하고 기발한 창의적 해결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티칭가이드
1. 위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1단:논술~된다 2단:그러나~것이다 3단:그러나~끝)
2. 1단, 2단, 3단의 핵심을 도출하여 연결한다.

1단의 핵심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서술한 것'
2단의 핵심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3단의 핵심은 '창의적 해결'

정답: 1+ 2+ 3=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서술한 글

논술이란?[1]

2. 논술의 요소

한 편의 논술에는 여러 요소들이 동시적으로 융합되어 있다. 이 요소들은 논술 채점자의 채점 기준이 되므로 각각의 정확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각 요소들에는 **이해와 분석력, 창의력, 논증·논리력, 표현력** 등이 있다. 여기서 각 요소들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자.

(1) 이해·분석력

이해·분석력에 대한 아래 글에서 그 정확한 개념을 생각해 보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술의 이해·분석력을 정의해 보라.

이해·분석력이 담당하는 첫 임무는 제시문을 독해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다. 제시문 독해에 대한 배점은 없지만 논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 제시문을 정밀하게 독해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올바로 분석하지 못한다면 출제자의 의도와는 영 딴판으로 글의 방향을 잡게 되어 글이 실패로 끝나기 때문이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정답에 접근하는 논술을 쓴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해·분석력이 담당하는 또 다른 임무는 제시문을 요약하는 일이다. 요약은 내용을 단순히 줄여 쓴 줄거리가 아니라, 논자가 제시문을 읽고 자신의 글로 줄여 쓰는 또 하나의 소 논술문이다. 뽕잎을 먹고 실을 내라는 얘기다.

#티칭가이드
1. 위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1단:이해·분석력이~것이다. 2단:이해·분석력이~함이다)
2. 1단, 2단의 핵심을 도출하여 연결한다.

1단의 핵심은 이해·분석력의 임무1(제시문을 독해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일)
2단의 핵심은 이해·분석력의 임무2(제시문을 요약하는 일)

논술의 이해·분석력이란?[2]

1) 정답: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서술한 글.
2) 자료를 분석하고 제시문을 독해하고 요약하는 능력

독해·글쓰기 원리는 내재된 언어능력이다.

글은 의식, 무의식에 의해 언어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저것이 있어야만 하고,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저렇게 말해야만 하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문장 간, 단락간의 언어과학적 연결 원리**이다.

우리가 문법을 생각지 않아도 모국어 문장들이 무의식적으로 배열되어 나오듯이, 글 또한 문법 의식 없이 글쓴이의 무의식에 의해 문장들이 배열되어 나온다. 이것은 문장들과 단락들의 연결관계에 대해 잠재된 문법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잠재된 원리는 문장과 단락이 이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잠재된 원리에 따라 글쓴이는 글을 쓰고 독해자는 글을 읽는 것이다. **이 잠재된 원리(언어능력competence)를 일깨우고 개발하면 글을 정확히 독해하고 요약할 수 있으며 글을 자연스럽게 이어 써내려갈 수 있다.**

독해 원리는 글쓰기 원리와 동일하다. 글쓴이가 잠재된 원리에 의해 글을 쓰면, 독해자는 그 원리에 따라 글을 추적하여 글쓴이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다. 만국어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이 원리는 독해와 글쓰기에 절대적이다. **여기서는 이 원리들을 훈련하여 제시문 독해와 글쓰기, 요약하기를 말끔히 해결하려는 것이다.**

1) 독해·글쓰기에 대한 이해·분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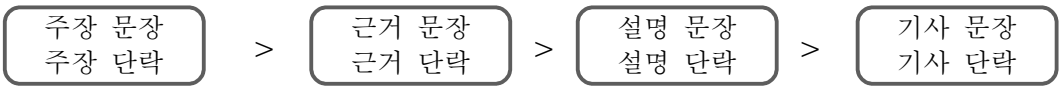
a. 독해·글쓰기 원리1

지문의 모든 문장들은 주장문, 근거문, 설명문, 기사문이며, 힘의 세기는 주장문>근거문>설명문>기사문 순이다.

문장의 종류에는 주장을 하는 주장문이 있고, 그 주장문에 대해 근거를 대는 근거문,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문, 그 설명에 대해 사실을 말하는 기사문이 있다. 이 순서대로 힘의 세기가 결정된다. 이 문장들에서 주장문이 가장 힘이 세니까 그게 바로 밑줄 그이는 중심 문장이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중심문장에 대해 근거를 대거나 무슨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주장문 :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문장
- 근거문 : 자신이 한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는 문장
- 설명문 :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 풀어서 쉽게 혹은 강조하여 진술하는 문장
- 기사문 : 주장을 하고, 근거를 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문장

지구촌 언어의 모든 문장들은 이 네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 힘의 우열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으로 이 관계를 확인해 보자.

제시문1

1'인간의 역사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많은 역사학자,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대답을 **내놓았다.** 2a 종말론적인 해답도 있었고, 발전론적인 해답도 있어 왔지만, 2b지금까지의 인류 사회가 지향해 온 역사의 길은 인간들이 살기에 한층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었으**며**, 그것은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문장 간의 관계]

1은 서술어가 '~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말한 기사문이라 힘이 없다.
2는 서술어가 '~고 생각된다'는 주장을 했으니 1보다 힘이 센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문장2가 밑줄이 그여야만 하는 것이다.

상세히 말하면, 2a의 '~지만'은 부사절로 힘이 없다. '~해서, ~면, ~과 더불어, ~뿐만 아니라, ~니까…… 등은 부사절이다. **모든 부사절이나 종속절은 주절한테 이길 수 없다(소원리).**

2b는 '~ 며'로 정보가 열거되면서 '생각된다'로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2b가 2a보다 힘이 센 정보다. 그래서 다음 단락에선 반드시 2b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글은 이미 글이 아니거나 질이 떨어지는 글이다. 그러니 이 원리를 깨우치면 예측하며 읽을 수 있다. 이는 주장하는 모든 글에 적용되는 큰 원리다.

지금까지 중심문장은 독서량이 많은 경험자의 감(感)으로 선택되었다. 이 감(感)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문장 간, 단락 간의 언어원리에 따라 중심문장을 언어과학적으로 정확히 선택할 수 있다.

b. 독해·글쓰기 원리 2

단락의 주장 문장들, 또는 지문의 주장 단락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 추상적, 일반적인 주장

문장과 주장 단락이 각각 중심 문장, 주제 단락이 된다.

원리1에서 주장문장, 주장단락이 가장 힘이 세다고 했다. 그렇다면 주장문장이나 주장단락이 단락, 지문 내에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때는 가장 포괄적, 추상적, 일반적인 주장문, 주장단락, 즉 가장 범위가 넓은 주장문, 주장단락이 힘이 세다. 사실, 단락 내에는 주장문 주장 단락이 둘 이상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전체가 다 주장 문장인 경우도 허다하다. 제시문을 보자.

제시문2

1문학 작품은 실로 일국(一國)의 언어 운명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2왜냐하면, 문학 작품은 그 예술적 매력으로 하여 대중과 친근하며, 지상에 고착됨으로써 큰 전파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3물론, 문학 작품만이 국어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4a그러나 문화의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국어의 순수한 혈통을 면연히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국어의 지주(支柱)로서의 커다란 임무를 다하리라고 생각할 때, 4b국어의 운명과 관련된 문학 작품의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민수, '언어의 창조와 정리'>

1, 2, 3, 4와 같이 모두 주장문이다. 원리2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문장 간의 관계]

1은 주장문이다.
2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1에 대해 '~ 때문이다' 하고 근거를 대고 있으니까 1보다 힘이 약한 근거문이다.
3은 2를 보충 설명했으니 더욱 힘이 없다. '물론, 다만, 사실, 가령, 예컨대' 이런 것들은 모두 힘센 문장을 보조해 주는 것들이다.
4a는 부사어라서 힘이 없고, 4b는 지금까지 가장 힘센 1과 동일한 내용이다. 1과 4b 둘 가운데 어느 것을 중심문으로 선택해도 독해에는 차이가 없지만 1이 4b를 일반화하고 있기 때문에 4b는 1을 상술하는 내용이 된다. 그래서 1이 가장 힘이 센 주장 문장이다. 밑줄쫙! 이런 단락을 여태 '양괄식'이라 했다.

주장이라 해서 다 같은 주장이 아니다.

이처럼, 다 주장 문장이지만 저희들끼리 맡은 바 임무는 다 다르다. 주장들끼리 반드시 힘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락간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가령, 위 제시문4의 문장들이 각 단락의 중심내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4개 단락의 지문이 되는 것이다. 1단락이 주지 단락이 되면서 주제는 **'문학 작품이 언어에 끼치는 영향'**이 될 것이다.

c. 독해·글쓰기 원리 3

발화의 초점이 이동하면 그것이 힘 센 문장, 또는 힘 센 단락이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글쓴이가 글을 써내려가다가 특정한 것에 관심을 두거나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제시문을 보자.

제시문3

1동서양의 예술은 그 가치 척도의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2동양예술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 반면에 서양예술은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각자의 삶의 방식, 민족성, 생활 환경, 고유문화 등의 차이에서 오는 편이 보통이다. 3그렇다면 미술에 있어도 이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문장 간의 관계]

1은 주장 문장이고,
2는 1에서 말한 '둘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니 힘없는 문장이다.
3은 새로운 주장 문장이다. 1은 '예술'이고 3은 예술의 부분에 해당되는 '미술'이다. 비록 더 포괄적인 정보가 있더라도 글쓴이의 초점을 이길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글쓴이는 예술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 가운데 하나인 미술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정보의 초점**이 옮아갔다. 그래서 3이 가장 힘이 센 문장이 된 것이다. 밑줄 쫙!
말할 것도 없이 다음 문장이나 단락에서는 반드시 '미술' 얘기가 나와야만 한다.

언어의 법칙은 정확하다.

그래도 딴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초점이동은 글쓴이가 그것을 말하겠다는 무의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다. 언어에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약속을 어기면 이미 옳은 글이 될 수 없다. 글쓴이가 무의식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숙련된 독자는 신기하게도 이를 알아차리고는 어색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리들이 언어과학적 원리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 숙련된 독자가 어색하다고 하는가 하면 문장 간, 단락 간에는 글쓴이의 묵시적 질문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자.

1동서양의 예술은 그 가치 척도의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뭡니까?)** 2동양예술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 반면에 서양예술은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3그렇다면 미술에 있어도 이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문장 간, 단락 간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 질문들, 이것들은 언어와 인종을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다. 앞선 문장 다음에 오는 문장은 앞 문장에 대한 묵시적 질문에 대한 대답인 셈이다.

d. 독해·글쓰기 원리4

주지 문장이나 주지 단락이 있으면 보조 문장이나 보조 단락이 있어야만 한다. 이때 주지 문장이나 주지 단락이 힘이 세다.

이것은 포괄적 개념인데, 모든 문장이나 단락들은 주지와 보조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 필자는 이 덩어리 문장들을 **가족문(family sentence)**이라 한다. 한 단락 내에는 이런 가족문이 하나 이상 있고 한 지문 내에서는 가족단락이 하나 이상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큰 의미단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이나 긴 단락, 긴 지문일 때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원리다.

제시문4-1

문장 간의 주지-상술-예시

1 세시 풍속이라고 하는 이 연중 행사는 1a농업 생산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동시에 1b주술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다. 2이는 아마 2a농업 기술이 유치하여 소기(所期)의 풍작을 2b어떤 절대자에게 의존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인 듯하다. 3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삼한의 농경의례 등이 다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문장 간의 관계]

1은 주장 문장.
2도 주장 문장이지만 2a가 1a를 구체화했고, 2b가 1b를 구체화했다. 즉, 2는 1을 구체화한 문장이니 힘이 없다.
3은 주장문이지만 2에 대한 예시가 되니 더욱 힘없다.
그래서 1이 밑줄 쫙!

제시문4-2

문장 간의 주지-구체화

1어떤 문명의 이기(利器)도 우리에게 혜택만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정보 테크놀로지도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2정보 테크놀로지 중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텔레비전이 끼치는 영향에서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3텔레비전에서 접하는 폭력이 실생활에서 폭력 사건을 부채질한다는 걱정은 여러 연구에서 꽤 근거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4또, '가벼운' 시청에서 '중독적인' 시청으로 이어지는 텔레비전 시청은 아이들의 학교 성적, 독서력, 문장력을 떨어뜨리고, 덜 성숙된 시청자로 하여금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광고에 쉽게 영향을 받게 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정범모, '정보 사회와 인간 생활'>

[문장 간의 관계]

1의 '정보 테크놀로지는 장미 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왜 그렇습니까?>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인데,
2에서, '텔레비전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로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1의 근거를 대고 있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은 독자가 아직 모른다. 그러면 2를 또 구체화 해줘야만 한다. 독자가 분명히 알 때까지. 그걸 안 해주고 어물쩍 넘어가면 그건 이미 제대로 된 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요?>하면서 또 묻게 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3이 왔는데 이는 2를 또 구체화 할 수밖에 없다.
4는 열거의 접속어니까 구체화2가 나온다는 말이다.
그래서 1이 가장 힘세다. 밑줄 쫙!

장황하면 큰코다친다.

만약 독자가 궁금해 하는 것을 풀어 설명해 주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버리면 독자를 기만하는 처사다. 그래서 문장 간의 관계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글쓴이는 이런 관계를 대부분 의식하지 않고 쓴다. 숙련된 글쓴이에겐 이 관계가 잠재된 지식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한 구체화 문장3이 나오지 않고, 또 '아이들의 행위에서 이를 알 수 있다'든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구성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분명한 '그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역시 독자를 지치게 한다. 그러면 '그 행위가 이러저러 하더라', '그 구성이 이러저러 하더라'에 대한 글이 또 나와야만 한다. 글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독자는 문맥, 즉 문장 간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계속해서 질질 끌며 '그 무엇'을 얘기하지 않으면 궁금증 유발이 아니라 짜증을 유발할 뿐이다.

논술 채점 교수가 이를 발견했다고 하자. 점잖은 말로 '장황하다'면서 감점을 하겠지만, 이 감점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예민한 분의 심기를 건드려 놓았으니 글 전체에서 흑돼지 털을 뒤져 흰 털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빈대가 발견되면 얼마나 좋아할까? 장황한 글이 되지 않고 간결, 명료한 글을 쓰려면 뒤에 나오는 **요약하기 부분**을 보라.

e. 독해·글쓰기 원리5

문제의 제기 문장이나 단락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방안의 문장이나 단락이 나와야만 하고 해결방안 문장, 단락이 힘이 세다.

제시문5

1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어떠한가? 2어떤 사람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원자와 물질의 역학적 관계와 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 3원자가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물질이 없다면 원자의 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4그 존재성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5다른 어떤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세포와 유기체의 관계와 같이 생각한다. 6생명적 존재를 위한 생성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7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존재나 생성의 과정에 그치지 않는 보다 높은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8그것은 존재하면서 생성하며, 생성하면서 문화 역사를 창조해 가는 관계인 것이다. 9그러므로 그 관계는 발전과 비약을 가능하게 하는 변증법적 관계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문장 간의 관계]

1은 물음, 즉 '문제를 제기'하는 문장이다. '해결 방안'이 없는 한, 이 문장을 이길 자는 없다.
2는 1에 대한 답, 즉 해결방안이다. 필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한 해결이지만 해결은 해결이니까 힘이 1보다 세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묻는다고 다 물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몰라서 묻는 것, 의심, 의혹이 있을 때 묻는 것이 진정한 물음이다. 그래서 수사의문문은 문제의 제기가 아니다. 이를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해야만 한단 말인가?'는 문맥상 '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간접주장일 수 있다. 모국어 화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3은 2에 대해 '어떤 관계이지요'에 대한 대답이니까 2를 구체화한 것이다.
4는 3의 부연, 보충이라 힘이 없다. 그런데,
5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견해를 말하면서 정보는 2와 열거되고 있다.
6은 5의 근거를 대고 있으므로 5를 보조하고 있다.
7에서 비로소 글쓴이의 견해가 나온다. 7에 대해 '그게 뭡니까?'하니까,
8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힘이 다. 여기에 대해 '결국 무엇입니까?'에 대한 물음에
9로 대답을 했다. 마지막 해결방안이다. 8보다 더 힘 센 결론의 주장 문장이다. 밑줄 쫙!

정리하자면, 1의 물음에 대해 어디선가 반드시 답이 나와야 하는데 2~4, 5~6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그 설명이라 힘이 없다. 글쓴이는 자기 견해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글쓴이는 7~8의 견해를 전제로 9의 결론을 낸 것이다. 결국, 1의 문제 제기에 대해 9로 해결한 것이다. 그래서 9가 밑줄 그인다. 그러니까 중심내용은 9에서 나와야만 하므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f. 독해·글쓰기 원리6

전제 문장이나 전제 단락이 있으면 반드시 결론 문장이나 결론 단락이 있어야만 한다. 이때 결론 문장이나 결론 단락이 힘이 세다.

결론문, 결론 단락임을 알 수 있는 연결어는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하여, 이런 면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이로써 볼 때, 이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

제시문6

(가)1사람들은 좋은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쉽게 감동을 느끼지만 과학 이론을 대하면 복잡한 논리와 딱딱한 언어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느낀다. 2그래서 흔히 과학자는 논리적 분석과 실험을 토해서 객관적 진리를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예술가는 직관적 연감에 의존해서 주관적인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3이러한 통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많은 과학상의 발견들은 직관적 영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1아인슈타인은 누구에게나 절대적 진리로 간주되었던 시간과 공간의 불변성을 뒤엎고,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깨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직관적 영감에서 나온 것으로, 과학의 발견에서 직관적 영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 준다. 3그 밖에도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하였고, 갈릴레이는 피사의 대사원에서 기도하던 중 천장에서 흔들리는 램프를 보고 진자(振子)의 원리를 발견하였다. 4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 안에서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 유레카!"를 외치며 집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5이렇게 볼 때 과학의 발견이 '1퍼센트의 영감과 99퍼센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과학의 발견에서 직관적 영감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문장 간의 관계]

(가)
1은 사실을 말한 기사문이라 힘이 없다.
2는 연결어 '그래서'가 결과를 말하면서 1보다 힘이 세지만 생략된 주어인 일반인이 말하는 사실이니까 기사문이다. 힘이 없다.
3은 단락 최초의 주장 문장이라 힘이 세다. 밑줄 쫙!

앞으로 글은 주제문인 '많은 과학상의 발견들은 직관적 영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에 대해 전개해야만 한다.

(나)
1은 (가)3, 즉 (가)의 중심문장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다.
2는 1의 부연보충이라 1보다 힘없는 들러리고,
3의 '그 밖에'는 열거의 연결어인데. 만약 3이 1과 열거되면 (가)3의 예시2가 되어야만 하고, 2와 열거되면 1의 부연보충2가 되어야만 한다. 여기서는 1과 열거되어 예시2가 되었다.
4도 3에 열거되었으니 힘이 같다. 결국, (가)3에 대해 (나)1, 3, 4는 열거하여 예를 들었다.
5는 결론의 연결어 '이렇게 볼 때'가 와서 (나)1, 3, 4 예시를 전제로 결론을 맺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밑줄이 그일 수밖에 없다.

연결선상에서 읽을 때 굵이 보인다.

(나)1이 예시문이 되는 것은 (가)3이 있기 때문이다. (나)3, 4가 열거가 되는 것은 (나)1이 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이 왜 전제인지, 결론인지, 원인인지, 결과인지, 주지인지, 보조인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투덜댈 필요 없다. 이것들은 문장 의미의 연결선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읽으면서 앞선 정보를 잊어버리는 게 큰 문제다. 그러니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연결이 되게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원리15를 내재화시켜야 한다. 내재화가 되면 독해와 글쓰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아니면 엄청난 세월 동안의 독서로 터득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소원리 하나.
'~지만, ~과 더불어, ~해서, ~면, ~니까, ~므로, ~어도 등'의 부사절은 들러리이고 그 뒤는 힘 있는 핵심이다. 단, 대조, 비교의 '~지만' 일 경우에는 힘세기가 같다.

g. 독해·글쓰기 원리7

원인 문장이나 원인 단락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 문장이나 결과 단락이 있다. 이때 결과 문장이나 결과 단락이 힘세다.

결과 문장, 결과 단락임을 알 수 있는 접속어는 **'이로 인해, 인하여, 그 결과, 결과적으로, 그래서'** 등이다. 접속어의 앞은 원인이 되고, 그 뒤는 결과가 되므로 뒤가 힘이 세다.

제시문7

1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개발은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였다. 2CO^2의 급증으로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a농작물 한계선은 계속 북상하고 b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3또,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c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4**이로 인해** 인간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5풍작을 이루던 a'과실수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고 b'냉대 어종은 북상하여 자취를 감추었다. 6

또, 많은 해변 마을들이 c'내륙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문장 간의 관계]

1은 사실을 말한 주장문이고,
2는 1을 구체화하고 있다.
3은 '또'로 2와 열거되어 구체화2가 된다. 현재까지는 1이 가장 힘세다.
4는 1에 대한 결과로 가장 힘세다. 1에 대해 2, 3이 구체화한 것과 같이 4에 대해 5, 6이 2, 3과 짝을 이루어 구체화하고 있다.
5는 4를 구체화하면서 2와 짝을 이루고
6은 5와 열거되어 4을 구체화하면서 3과 짝을 이루고 있다.
세부 정보 a, b, c는 a', b', c'와 짝을 이루고 있다.
4가 밑줄 쫙!

h. 독해·글쓰기 원리8

설명보다 설득이 힘이 세다.

설명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만, 설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변화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 따라서 설명보다 설득이 더 큰 힘을 갖는다. 논설문에서 가장호소력이 강한 부분이 핵심 문장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제시문8

①우리가 약초를 약으로 쓸 때 그 쓰는 부분이 인삼이나 갈근처럼 뿌리인 경우가 있고, 복분자나 결명자처럼 열매인 경우가 있고, 두 충이나 계피처럼 껍질인 경우가 있다. ②이들은 관리에 따라 약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체 의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도록 힘써야 한다.

[문장 간의 관계]
①은 한 대상에 대해 있는 사실로써 설명하고 있다.
②는 '~힘써야 한다'는 주장 문장으로 설득하고 있다. 설명은 정보를 전달하면 임무가 끝나지만 설득은 정보전달 외에도 '행동촉구'라는 임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득하는 문장이나 단락은 주장 문장이나 주장 단락이라야 한다. ②는 ①에 대한 설득, 주장이 된다. 아래를 보자.

[문장 간의 관계]
(가)
[1], [2]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설명하고 있다. 즉 정보 전달에 그쳤다는 것이다. 순수한 설명문에선 원칙적으로 주장 문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1], [2]는 있는 사실을 말한 기사문이다.

(나)
[1]은 주장 문장이다.
[2]도 주장 문장이지만, [2]가 [1]의 반론이니까 힘이 더 세다.
[3]은 [2]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힘이 없다.
[4]는 [3]을 부연한 문장이다. 즉,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5]는 [4]의 보충 설명이다.

현재까지는 [2]가 가장 힘이 센데, [5]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2]와 [5]가운데 어느 문장이 중심 문장인지 자신 있게 그 이유를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5]의 '이것은'이 지시하는 것은 [4]문장이니까 '융화의 질서가 이용의 질서로 타락한다는 것 = 인간의 비극'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면 [5]는 [4]를 설명하는 들러리가 될 뿐이다. 그러나 [5]가 더 힘이 셀 경우는 이러한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요구한다'와 같이 새 정보를 주장할 경우를 보면 안다.

다시 말하면, [5]는 '융화의 질서가 이용의 질서로 타락하는 것 = 인간의 커다란 비극'이 의미로 보아 그 등식이 성립하지만, 앞의 예시문은 '융화의 질서가 이용의 질서로 타락하는 것 = 인간의 새 관계를 요구'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자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5]가 새 정보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5]는 [4]의 설명 문장이 되어 [2]가 가장 힘이 세다.

말하자면, (가)를 설명해 놓고 (나)[2]를 주장하면서 '인간을 수단으로 다루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득하는 둘째 단락이 힘이 세다.

i.독해·글쓰기 원리9

상식·통념보다 비판이 힘세고, 비판보다 결론이 힘세다.

상식은 일반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해력을 말하며, 통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널리 통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상식과 통념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관점에서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비판의 문장은 힘이 세다. 그 비판에 대한 결론은 글쓴이의 선택이다.

재시문9

[1]한국 문학을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현상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2]이러한 구분은 얼른 보아 한국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편의적인 것으로, 어떠한 가치 판단

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③그러나 한국 문학을 고전과 현대로 나누어 인식하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이 구분에 익숙해져 잇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④여기에는 한국 문학이 고전 문학에서 현대 문학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데 연속성을 띠지 않고 단절되었다는 논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윤식, <한국 문학의 연속성> 중에서-

[문장 간의 관계]

①은 통념의 기사문이라서 힘이 없다.
②는 ①을 근거로 주장했으니까 ①보다 힘이 세다.
③은 또 ②를 근거로 주장한 문장이고 ①, ②에 대한 비판이니까 정보의 무게가 뒤로 이동했다.
④는 주장 ③에 대한 근거 문장이라서 들러리이다. 따라서 ③이 가장 힘세다. 밑줄 그인다. 그런데, ④의 뒤에 만약 결론 문장이 나와 버리면 그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된다. 비판보다 결론이 힘이 세기 때문이다.

언어는 종합적 사고 훈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로 단락의 중심 문장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을 보았다. 단락 속의 각 문장들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가장 힘이 센 문장에 밑줄이 그인다는 이치이다. 각 단락 간의 관계도 이와 같다. 정확한 독해를 위하여 우리는 그 문장이나 단락 가운데 어느 것이 힘이 센지, 들러리인지를 이 원리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동시에 각 문장, 각 단락들의 관계를 터득할 수 있다. 이는 곧 문장을 보는 안목과 단락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 안목을 기르는 훈련을 여기서 한다. 문자 언어는 지식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 습득되는 것이다.

이 훈련이 끝나면 사실적 독해니, 추리적 독해니, 비판적 독해니, 창의적 독해니 하는 말들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독자가 이미 글쓴이의 마음까지 훔쳐볼 수 있는 경지까지 가게 되기 때문이다. 종합적 이해라는 게 실감이 날 것이다. 음성 언어든지 문자 언어든지 간에 사실적, 추리적, 비판적, 논리적, 창의적 사고가 따로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 긴밀하게 엮여서 표현되므로 애초부터 종합적 훈련을 해야 한다. 인간의 언어 능력은 신비하기 짝이 없어서 분석해서 습득하려면 도리어 안 되는 게 언어이다. 한국 독자가 영어에 쩔쩔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문법 따로, 단어 따로, 작문 따로, 독해 따로, 듣기 따로 공부를 하려 하니 영어가 제대로 습득될 리 없다. 우리가 말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따로 분리하지 않듯이, 문자 언어를 독해할 때도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훈련해야 한다.

j. 독해·글쓰기 원리10

일화, 사실보다 평설, 개념이 힘세다.

한 무리의 개별적인 것들, 즉 일화[3], 예시, 사실로부터 평설[4], 개념이 나온다. 일화나 예시, 사실

3) 일화(逸話)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흥미 있는 이야기를 말한다.

이 아무리 길어도 한마디의 평설이나 개념이 힘세다.

제시문10

(가) ①"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오. ②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젖 한 깡통, 허름한 요포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오."

(나) ①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서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②K. 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 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③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문장 간의 관계]
(가)
①, ②는 간디의 일화이다. (나)①은 (가)에 대한 평설, 즉 개념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①이 (가) 단락보다 힘이 센 것이다. 단락 무게가 뒤로 이동했다. 그렇다면 (나)단락의 문장들 가운데
어느 문장이 주제문일까?

(나)
①은 (가)에 대해 있는 사실을 말했으니까 힘이 없는 기사문이다.
②는 도입 ①에 대한 주장 문장이니까 힘이 세다. 그러니까 정보 무게는 뒤로 이동했다.
③은 ②에 대해 근거를 대고 있다. 따라서 (나)②에 밑줄이 그어져야 한다. 이 두 단락은 '나는 부끄럽다'는 이 한 마디를 위한 것이다.

k. 독해·글쓰기 원리11

열거는 서로 힘이 같다.

열거된 문장이나 단락은 동일한 속성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이나 단락은 형식적인 힘세기가 같다. 열거를 나타내는 연결어[5]는 알아 두어야 한다.

제시문11

①아무도 쥐를 보고 후덕(厚德)스럽다고 생각은 아니할 것이고, ②할미새를 보고 진중하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③돼지를 소담한 친구라고는 아니할 것이다. ④토끼를 보면 방정맞아 보이

4) 평설(評說)은 평가하거나 판단해서 하는 말을 뜻한다.
5) 열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로는 '그리고, 또(또한), 게다가, 아울러, 뿐만 아니라, 덧붙여 말해서, 이와 함께, 그밖에, 심지어, 더욱이, 나아가' 등이 있다.

지마는, 고양이처럼 표독스럽게는 아무리 해도 아니 보이고, ⑤수탉을 보면 걸걸은 하지마는, 지혜롭지는 아니하여 보이며, ⑥뱀은 그림만 보아도 간특하고 독살스러워 구약(舊約) 작자의 저주를 받는 것이 과연이다 해 보이고, ⑦개는 얼른 보기에 험상스럽지마는, 간교한 모양은 조금도 없다. ⑧그는 충직하게 생기었다.

- 이광수, <우덕송(牛德頌> 중에서-

[문장 간의 관계]

①~⑦은 한 문장 안에서 정보가 열거되어 있다.

⑧은 ⑦의 보충 설명이다. 그래서 들러리 문장인 ⑧을 제외하면 ①~⑦의 힘세기가 같다. 열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열거되면 반드시 공통된 속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두를 밑줄 그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락에는 중심 문장이 반드시 있다고 알아왔다. 그것이 없는 것도 이처럼 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①~⑦의 힘이 같으니까 그들을 모두 만족시켜 주는 문장을 종합해 하나로 만들어 내면 된다. 그렇다면, 생각해보라. '겉을 보면 속을 알 수 있다'가 되지 않을까?

이처럼 힘이 같은 열거된 문장들에서 중심 내용을 찾아내려면 이 문장 내용들의 **공통된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열거된 단락들도 마찬가지이다. 각 단락의 공통된 내용이 바로 주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재구성·종합 능력인데, 이는 상당히 중요하고 수준 높은 과정이다. 이렇게 열거된 문장이나 단락이 나타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들의 공통된 '속성'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I. 독해·글쓰기 원리12

비교는 서로 힘이 같다.

비교는 두 가지 이상의 유사점이나 공통점을 들어 설명하는 방법으로 비교되는 문장이나 단락은 그들끼리 힘세기가 같다. 그러나 비교된 것 가운데 글쓴이의 초점이 가 있는 것도 있다. 비교를 나타내는 연결어로는 '비교하면, 이에 비해' 등이 있다.

제시문12-1

열거의 짝이 되어 힘이 센 경우

①예술가들에게는 대상을 창조하는 고뇌와 번민이 있고 ②또 그들에게는 정열적인 제작 과정이 있다. ③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기인들이 많다. ④또 그들의 인간관계는 매우 한정적이다. ⑤장인정신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문장 간의 관계]

①~④는 열거되어 힘세기가 같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된 특성, 즉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예술가의 특성'이 될 것이다.
⑤는 ①~④의 들러리를 서는 문장이다. 즉, '예술가의 특성'의 도움말을 해주기 위해 ⑤를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 단락의 중심 내용은 '예술가의 특성'이 되고, ⑤는 보충일 따름이다.

그러나 다음 단락에서 ⑤에 대한 글이 ①~④와 함께 나온다면 이는 힘이 같아 비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①~④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 결론에 이른다면 초점 이동으로 가장 힘센 문장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글이란 그 **관계에서 우열이 정해지는 것**이다. 아래 경우를 보자.

제시문12-2

비교가 되어 힘이 동등한 경우

①예술가들에게는 대상을 창조하는 고뇌와 번민이 있고 ②또 그들에게는 정열적인 제작 과정이 있다. ③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기인들이 많다. ④또 그들의 인간관계는 매우 한정적이다. ⑤이에 비하면, 장인 정신도 이와 다를 바 없다. ⑥그들에게도 고뇌와 번민과 정열이 있다. ⑦그들의 행동은 상식을 넘는 탓에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두지 못한다.

[문장 간의 관계]

⑤~⑦은 ①~④와 비교되어 힘세기가 같다. 그래서 이들의 중심 내용은 '예술가와 장인의 유사성'이 되는 것이다.

언어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나, 12-1과 같이 (가)⑤를 (가)①~④와 비교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교할 마음으로 (가)⑤를 말했다면 글의 원리상, 반드시 그 근거나 다른 보조 문장이 따라 나와야만 한다. 다시 말해, '장인 정신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했으면 어떻게 '다를 바 없'는 건지,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 등의 이야기가 있어야만 한다. 이처럼 '글의 원리'를 알면 잘못된 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필자가 별것 아닌 곳에 신경을 다 쓴다고 할지 모르지만, 말과 글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짚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버리니까 항상 감(感)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언어에서는 쉼표 하나 잘못 찍어도 의미가 바뀌는데 하물며 단어나 문장에서는 어떻겠는가? 우리가 텍스트 독해를 잘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이러한 작은 부분을 명확히 다루지 않은 채 얼버무리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인간의 언어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 틈이 없이 매우 정밀하다.

m. 독해·글쓰기 원리13

대조는 서로 힘이 같다.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 서로의 차이점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대조되는 문장이나 단락은 그들끼리 힘세기가 같다.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어로는 **'이에 반해, 그 반면, 이에 비해, 반면에, 그러나, 하지만'** 등이 있다.

제시문13

①중국의 담벽은 집보다 높다. ②아무리 발돋움해도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 ③완전히 폐쇄적이어서 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완전한 성벽인 셈이다. ④그러나 일본의 초가집에는 숫제 담이란 것이 없고, 설령 담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가 환히 보이는 아주 낮은 담이다. ⑤그것은 개방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문장 간의 관계]

①~③은 한 가족을 이루는 문장들이다. 즉, '중국의 담 높이'를 말한다.

④, ⑤는 또 다른 한 가족 문장들이다. 이 두 가족의 가장은 각각 ①과 ④이다. '그러나'는 당연히 대조의 연결어이다. '그러나'의 앞뒤는 힘이 서로 같으니까, 중심 내용은 ①과 ④를 합쳐 '중국과 일본의 담 높이 차이'가 된다.

n. 독해·글쓰기 원리14

열거, 비교, 대조의 짝은 힘세다.

열거, 비교, 대조되는 주장들과 대상들이 서로 짝을 이루는 문장이면 그 문장들이 핵심 문장이다.

제시문14-1

열거의 경우

(가) 첫째, 우리는 독창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보편성이 있는 한국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국제화나 세계화의 조류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다음의 예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청자는 한국인의 독창성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세계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의 문학은 영국 문화를 표현하지만, 세계인의 가슴에 와 닿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문화가 한국인에게만 가치가 있고 외국인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그런 경우는 인류의 문화 발전에 공헌하지 못할 것이다. 또 보편성만 있고 한국 문화의 독창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것은 한국 문화라고 할 수 없고, 세계문화에도 공헌하지 못할 것이다.

(나) 둘째, 우리는 외래문화를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모든 문화가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외래문화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면과 감각적인 면만을 보기가 쉽다. 정의와 평화, 근면과 절제, 인간 존중 등, 가치 지향적인 측면에서 외래문화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점은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 발전과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외래문화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어떤 문화의 기원만을 가지고 가치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장면을 먹는다고 김치찌개를 먹는 것보다 덜 애국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한복을 입는 것이 양복을 입는 것보다 더 애국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들은 기원을 따지기 전에 이미 우리의 문화의 일부분이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급속한 근대화와 발전을 개화기 이후 서양의 과학 기술과 의학 기술, 합리적인 사고방식 등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잘 수용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산업화의 과정에서 오는 비인간화와 퇴폐 문화 등은 경계해야 한다.

(다) 셋째, 개방화 시대에는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우리가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외국 상품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공급할 때 우리는 경쟁에서도 이기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입 상품은 무조건 배척하고 덮어놓고 국산품만 써야 한다는 단세포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우리가 하는 의사 결정과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행동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지적 사고력과 행동 능력을 길러야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 넷째, 외국어 학습과 외국 문화에 대한 바르고 깊은 이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은 상대하고, 국제기구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외국의 문화를 우리의 기준에서 좋다거나 나쁘다고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문화적 상대주의 태도가 바람직하다. 외국 문화를 덮어놓고 선호하는 문화적 사대주의와 자기 것만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에스노센트리즘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외국인을 맞이할 때 우리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이 한국 문화를 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 다섯째, 환경오염, 전염병, 국제적인 폭력과 마약 조직 등 세계적인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우리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같은 개방화 시대에는 어느 한 나라가 아무리 잘 해도 다른 나라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기가 어렵다. 지구촌 시대에는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성격을 갖게 된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세계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세계의 여러 나라와 협동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가)~(마) 단락은 주제 단락을 제외한 나머지 단락들이다. 우리가 열거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위 글의 주제를 20초 이내에 말할 수 있다. 그 원리는 열거되면서 주장하거나 열거의 짝이 되는 문장은 단락 내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것이다. (가)~(마) 단락은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열거되고 있다. 그러면서 모두가 주장 문장이고 열거의 짝들이다. 뒤를 볼 것도 없이 밑줄 그으면 된다. 이

원리를 안다면 이 텍스트의 주제를 찾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초면 충분하다. 각 단락의 힘이 같기 때문에 열거된 각 단락 첫 주장 문장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한 문장을 만들면 끝난다. 나머지 쓸데없는 정보들은 오히려 주제를 만들어내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 그래서 주제는 '개방화 시대를 위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가 될 것이다.

제시문14-2

대조의 경우

(가) ①넓은 의미에서 풍속화는 인간의 여러 가지 행사, 습관이나 인습, 그 밖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체의 현상과 실태를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②즉 왕실이나 조정의 각종 행사, 사대부들의 여러 가지 문인 취미의 행위나 사습(士習), 일반 백성들의 다양한 생활상이나 전승 놀이, 민간 신앙, 관혼상제와 세시 풍속 같은 것들을 묘사한 그림들이 모두 이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나) ①반면에, 좁은 의미의 풍속화는 소위 '속화(俗畵)'라고 하는 개념이 상통한다고 하겠다. ②이때의 '속(俗)'이라는 것은 단순히 풍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급한 세속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풍속화는 지체 높은 사대부들의 품위 있는 생활과는 다른, 이른 바 '속된 것'을 묘사한 그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장 간의 관계]
(가)①의 주장 문장에 대해 (가)②는 상술하고 있고,
(나)①의 주장 문장에 대해 (나)②도 상술하고 있다.
(가)①과 (나)①은 대조의 짝이 되면서 주장 문장이다.
바로 밑줄을 그어야 한다.

o. 독해·글쓰기 원리15

단락 간의 관계는 중심 문장 간의 관계이다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단락 내에서 중심 문장이 아닐 경우, 접속사는 단락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중심 문장들 간의 관계가 단락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제시문15

(가) ①언어와 민족은 운명을 같이 한다. ②즉 언어가 흥하면 민족도 흥하고 언어가 망하면 민족도 망하는 것이다. ③한문화에 도취되어 자기네의 언어를 잊었던 만주족이 오늘날 어찌 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나) [1]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국어 생활을 보면, 외국어가 남용되고 거친 말이 횡행하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2]그렇다면 이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3]이것은 민족의 장래와 관련되는 일이므로 방치할 수 없다. [4]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국어 순화의 길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장 간의 관계]

(가)

[1]은 주장 문장이다.

[2]는 [1]을 부연 상술한 설명문이라 들러리이다.

[3]은 [2]의 예를 든 문장이라 더욱 들러리이다. 그래서 [1]에 밑줄 그인다.

(나)

[1]의 '그런데'는 여기서 전환의 연결어이다. 그렇다고 (가)와 (나)의 단락 간의 관계가 반드시 '전환'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려면 연결어가 있는 문장, 즉 (나)[1]이 가장 힘이 센 문장이 되어야만 한다. 여기선 그게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국어 생활에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2]는 [1]을 전제로 문제를 제기했으니 힘이 오히려 [1]보다 더 세다.

[3]은 [2]에 대한 대답이니 더욱 세다. 그런데

[4]는 [3]을 전제로 하여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문제 제기 [2]에 대한 최종 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밑줄 그인다.

단락 첫머리 접속어에 속지 마라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런데'는 전환의 역할을 하지만 (나)단락 전체는 '전환 단락'이 아니다. (나)[1]이 이 단락의 중심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는 연결어 본래의 기능만 보유 할 뿐 단락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데는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결어가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야 제 값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1]은 (나)[1]의 연결어 '그러므로'와 관계되어 이 두 단락의 관계는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나)는 결론 단락이 되어 (가)보다 힘이 센 단락이 된다.

그래서 이 두 단락의 내용은 '언어와 민족은 운명을 같이 하므로(그러므로) 국어순화의 길을 모색, 실천해야 한다'가 된다. '전제-결론'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심 문장끼리의 관계가 연결어의 기능을 앞선다. 힘의 논리가 문장과 단락에까지 통하는 것이 재미있지 않은가?

독해·글쓰기 원리15는 이미 잠재되어 있는 문장 간, 단락 간의 연결 원리를 일깨우고 잠재되지 않은 빈란을 메워 정확한 독해와 자연스런 글쓰기가 되도록 한다. 문장과 단락을 분석하며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읽는 시간이 평소 읽기 속도보다 1.5배 정도가 걸리지만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익숙한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0.5배 내외로 속독이 되면서 매우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다.

아래는 <비쫑> 제자 flowers님이 필자의 경지까지 오르면서 후배들에게 남겨놓은 글이다. 이것은 <독해·글쓰기 원리>의 핵심이며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해·글쓰기의 원리15

1. 지금 읽는 문장과 그보다 앞선 문장의 의미를 연결해가며 읽는다. 그리고 가장 힘센 문장과 힘의 크기를 비교해서 읽는다. 그렇게 단락의 모든 문장을 쭉 읽고 나서 가장 힘센 문장에 밑줄을 긋는다.

2. 첫째 단락의 가장 힘센 문장 또는 앞선 단락들의 가장 힘센 문장들 또는 앞서서 "앞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는다. 특히, 첫 단락의 가장 힘센 문장을 잡으면 '무엇'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흐를지 예측하며 읽기가 가능하다.

3. 글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정밀하게 짜여진 것이어서,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저것이 있어야만 하고,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저렇게 말해야만 하는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중심 문장이나 주제 단락이 줄기라면 그 외의 것들은 글쓴이가 붙여놓은 가지요, 잎이다. 가지나 잎은 글쓴이가 선택할 문제지만 줄기는 반드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들도 줄기와, 또 다른 선택된 것들끼리와 관계를 갖는다.

4. 앞선 단락의 핵심내용이 다음 단락의 화제가 된다. 따라서 다음 단락이 받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역으로 이번 단락의 중심내용을 알 수 있다.

5. 비문학 지문의 모든 문장들은 주장문 혹은 근거문 혹은 설명문 혹은 기사문이며, 힘의 세기는 주장문>근거문>설명문>기사문 순이다.

독해·글쓰기 원리대로 읽어야 하는 이유

1)세세한 정보들을 관계들로 엮으면 어떤 정보를 까먹으면 다른 정보에서, 다른 정보를 까먹으면 또 다른 정보에서 생각나게 된다. 즉, 세세한 정보 하나하나까지 전부 기억나게 된다.

2)어떤 정보가 다른 어떤 정보와 같은지, 다른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또 얼마나 힘센지 파악해야 글 읽기가 수월하다. 컴퓨터를 예로 들자면, 파일들을 한 폴더에 쑤셔 박지 않고 여러 폴더를 만들어서 분류해놓는 것도 다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정보와 정보가 만나 관계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기도 하지만 역으로 구조 자체가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글쓴이가 A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퍼붓다가 갑자기 'A는 아름답다'라고 하면 그 진짜 의미는 'A의 아름다움은 거짓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읽고 있는 문장이 A내용인지, B내용인지에 따라 주지와 보조가 나뉘기도 하고(글쓴이가 궁

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이 A내용이라면 A는 주지, B는 보조), 같은 내용을 다루어도 단계에 따라(원인-결과, 전제-결론의 단계 등) 주지와 보조가 갈리기도 한다.
나는 이것을 내용상 '주지-보조', '단계상 주지-보조'라 한다.

5) 똑같은 글이라도 '내용상 주지-보조'와 '단계상 주지-보조'는 모두 앞뒤 문맥 에 따라 바뀐다.

독해·글쓰기 원리15와 소원리들

원리1 : 주장이 힘세다
*힘세기는 주장문>근거문>설명문>기사문 순이다.

*주장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서술어를 보라.

*주장은 1.정책명제(~해야 한다) 2.가치명제(~한 의미를 갖는다) 3.사실명제(~이다) 이 셋으로 나타낸다. 사실명제의 경우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을 주장하는 건지, 사실 자체를 말하는 건지 잘 생각하라. 또 내가 쓰는 방법으로, 주장인지 아닌지 알려면 연설하듯이 소리를 크게 질러보라. 괜찮으면 주장인 것이고 괜찮지 않고 웃기게 들리면 주장이 아닌 것이다.

*모든 종속절은 주절한테 이길 수 없다.
S+V+[~지만, ~해서, ~면, ~과 더불어, ~뿐만 아니라, ~니까 ...] 등은 종속절이다. 단, 대조나 비교의 '~지만'은 대등절이다.

원리2 : 가장 포괄적, 추상적, 일반적인 주장이 힘세다(주장이 여럿일 때)
*포괄적, 추상적, 일반적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을 말한다.

*주장문뿐만 아니라 근거문, 설명문, 기사문도 그들끼리는 범위가 가장 넓은 문장이 힘세다.

*어떤 문장이 표현상으로는 가장 범위가 넓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여럿을 함축하지 않는다면, 더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구체적인 문장을 선택해도 무방하다.(인강에서 선생님이 p.35의 지문을 해설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일반화시킨 표현이다.)

*부사어, 관형어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문장 힘겨루기에 관여하지 못한다. 문장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가운데는 언제나 서술어가 가장 힘이 세다. 주어부보다 서술부가 힘이 세다.

원리3 : 초점이 이동된 것이 힘세다.(초점이동 : 이야기하는 소재가 변한 것. 화제의 이동.)
*보통 초점이동은 A->B(완전히 다른 내용)로 가거나 A->a(A의 부분집합)로 간다.(초점이 A->a로 이동할 경우에는 A가 a보다 더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a가 더 중요하게 된다.)

*한 문장만 봐서 초점이동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경우 바로 처리하지 말고 몇 문장을 더 읽

고 나서 확정적일 때 그 때 올라와서 처리하면 된다. 다른 관계들이 확실치 않을 때도 이와 같이 후속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이다.

*전환, 반전이나 반론도 정보의 초점이 옮아간 것이다.

*'그런데'는 주로 전환의 접속어로 쓰이는데 부연으로도 쓰인다.

*연쇄된 새 정보는 힘이 세다. 선-후 관계도 연쇄의 하나다. 연쇄는 한마디로 A->B->C->..., 이며 원인-결과나 전제-결론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각 문장이 연쇄될 경우에는 뒤로 무게 이동을 하지만, 글쓴이가 연쇄되는 그 과정 자체를 말하려는 의도라면 각 문장의 힘이 동등하다.

*'이것은', '이러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등으로 앞의 문장을 받으면 '수용했다'라고 한다. 앞의 내용을 수용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같은 맥락에서 보충하면 앞의 내용의 들러리가 되고, 수용해서 새 정보를 말하면 뒷내용이 더 힘세다.

*'그러나'는 대조나 열거, 부연이나 보충이 아닌 한 정보 무게가 뒤로 넘어간다.

*1문장:A내용, 2문장:A내용~B내용, 3문장:B내용 일 경우, 2문장을 연결 문장이라고 하며, 정보 무게는 B로 넘어간다. 단락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원리4 : 주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조가 있어야 하며, 주지가 보조보다 힘세다.
*주지와 보조는 넓은 개념이다. 주지는 대개 포괄적, 추상적, 일반적 진술에 단정, 요약, 강조의 방법을 쓴다. 반면 보조는 구체화, 상술, 보충, 예시 등에 해당한다.

*구체화 : 추상적으로 진술된 것을 알기 쉽게 풀어 이해를 도모한 것.

*상술 : 앞선 내용을 풀어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강조한 것.

*보충 : 같은 맥락에서 다른 내용을 덧붙여 말하는 것. 주로 내용상 보조가 이에 해당한다.

*보충의 접속어 : 게다가, 아울러, 덧붙여 말해서, 더욱이, 물론, 사실 등

*가령, 이를테면, 다만, 사실, 물론, 특히 등은 앞 문장의 들러리를 서는 부사어인데, 이 접속어 이후의 문장으로 초점이 이동할 때는 원리3에 따라 그 문장이 핵심이 되니까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첫 단락에서 있는 일이다)

*어떤 내용이 이 글의 예상되는 독자의 수준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바로 그 독자의 수준까지 끌어내려주어야(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주지는 대개 포괄적, 추상적, 일반적 진술이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보조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문장을 읽고 드는 궁금한 점이 단 하나로 정해진다면, 그 다음에 올 문장과의(바로 다음은 아닐 수도 있다) 관계를 자동으로 그렇게 알 수 있다.

원리5 : 문제 제기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이 때 해결 방안이 문제 제기보다 힘세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묻는다고 해서 다 물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몰라서 묻는 것, 의심과 의혹이 담겨 있는 것이 진정한 물음이다. 수사의문문은 문제의 제기가 아니다.

*단락 내에서 해결 방안 문장이 없는 한, 문제 제기 문장을 이길 수 있는 문장은 없다.

*해결 과정이 있는 경우, 힘세기는 문제 제기<해결 과정<해결 방안 순이다.

원리6 : 전제보다 결론이 힘세다.
*결론은 전제로부터 나온 새로운 진술이거나, 전제를 일반화된 진술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어 : 그러므로, 따라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하여, 이런 면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이로써 볼 때, 이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

*결론의 접속어는 드물게 부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가장 앞서는 것은' 등과 같이 'first of all' 어구들은 두 가지로 한정되어 쓰이는데, 하나는 뒤로 무게 이동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앞 문장에 열거되는 경우이다.
*A 중요한 것은 B : B로 무게 이동
*A, B, ... 중요한 것은 Z : 열거. 대신 글쓴이의 마음은 Z에 가 있음. Z에 보조가 붙음.

원리7 : 원인보다 결과가 힘세다.
*결과임을 나타내는 접속어 : 이로 인해, ~로 인하여, 그 결과, 결과적으로, 그래서 등

*대상보다 대상에 대한 이유가 더 힘이 세다.
원인-결과와 대상-이유를 혼동하면 안 된다. 원인은 현상적, 물질적, 객관적인 것이다. 이유는 이성적, 감성적, 주관적인 것이다.
ex>화재가 일어난 원인은 방화범의 방화 때문이었고, 방화범이 방화한 이유는 실직의 불만 때문이었다.
또 주장-근거와도 혼동하면 안 된다.(근거와 이유를 혼동할 수 있음) 대상을 주장을 하느냐, 제시만 하느냐를 잘 봐두어라.

원리8 : 설명보다 설득이 힘세다.

원리9 : 상식, 통념이 있으면 반드시 비판이 있어야 한다. 그 비판에 대한 결론은 글쓴이의 선택이다. 이 때 힘세기는 상식, 통념<비판(<결론)이다.

원리10 : 일화나 예시, 사실이 아무리 길어도 한 마디 평설, 개념에 지고 만다.
*일화나 예시, 사실을 이루는 문장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 간의 관계는 따지지 않고 통으로 묶어 처리한다.

*의의, 개념은 주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약방의 감초이다. 하지만 그 단락의 주제를 구성하면서 다음 단락에서까지 다루어지는 경우는 이 글이 그 의의, 개념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이상 없다.

*글은 화제가 곧 주제인 경우와 화제를 통해 주제를 말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원리11 : 열거는 서로 형식적인 힘세기가 같다.
*열거의 접속어 : 그리고, 또(또한), 게다가, 아울러, 덧붙여 말해서,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와 함께, 심지어, 더욱이, 나아가 등

*중심 문장이 단락 내에서 여럿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들을 재구성, 종합해서(공통된 속성을 찾아서) 이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문장 군(群)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면 한 가족 문장들로 취급한다. 「 」로 나누고 핵심 단어를 __ 친다. 특히 글이 온통 열거로만 이루어질 때 같은 내용을 다루는 문장들끼리를 이렇게 묶는 게 보기 편하다.

원리12 : 비교는 서로 힘세기가 같다. 그러나 비교된 것 가운데 글쓴이의 초점이 가 있는 것도 있다.
*비교되는 것들은 대개 그 보조가 붙은 분량이 대등하다. 이는 열거, 대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내용상 열거, 비교, 대조라는 게 너무도 분명할 경우 보조가 대등하게 붙지 않아도 열거, 비교, 대조된다고 본다.

*비교의 접속어 : 비교하면, 이에 비해

원리13 : 대조는 서로 힘세기가 같다.
*대조의 접속어 : 이에 반해, 그 반면, 이에 비해, 반면에, 그러나, 하지만 등

원리14 : 열거, 비교, 대조의 짝은 힘세다.
*열거, 비교, 대조되는 것들은 '서로'는 힘세기가 같지만 '다른 정보들보다'는 힘이 세다는 것이다. 단, 이들 짝 모두를 포괄하는 상위 문장과 이들 짝이 함께 한 단락 안에 있다면 그 상위 문장에게 힘을 내준다. 즉, 한 단락 안에 상위 문장, 열거1, 열거2, 열거3(열거된 것 전부)이 들어있으면 그 상위 문장이 힘센 것이고, (1단락:상위 문장, 열거1); (2단락:열거2); (3단락:열거3) 이렇게 들어있으면 열거1, 열거2, 열거3이 힘센 것이다.

*열거1(이하 ①), 열거1에 대한 결론(이하 ②), 열거2(이하 ③)만 있다면 ①, ③에 밑줄그이고

②는 보조로 전락한다.(원래는 ①에 대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열거1(이하 ①), 열거1에 대한 결론(이하 ②), 열거2(이하 ③), 열거2에 대한 결론(이하 ④) 이 네 문장이 있을 때 열거짝이 힘세므로 일단 ①, ③문장에 밑줄 그이고 ②, ④문장은 보조로 전락한다. 하지만 ②, ④ 역시 서로 열거되어 있다면 이들도 열거짝이고 또한 ①, ③의 결론이므로 ②, ④에 밑줄 그인다.

원리15 : 단락과 단락의 관계는 그 단락들의 중심 문장들 간의 관계이다. 중심 문장끼리의 관계가 단락 맨 첫머리에 놓이는 접속어의 기능보다 우선시된다.

*단락의 맨 첫머리에 놓이는 접속어는 단락의 첫 문장과 앞 단락의 밑줄 그인 문장과의 관계를 나타냄이 원칙이다. **<비쫑> 제자 flowers님의 얘기였습니다.**

2) 요약에 대한 이해·분석력

다음 제시문을 읽고 요약을 정의해 보라.

일반적으로 요약을 어떤 긴 글에 대한 단순한 압축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 밖에도 많은 원칙들로 제약된다. 따라서 요약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요약의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요약은 한 편의 완결된 글로 쓰되, 요약 원문 전체의 전개와 일치하도록 써야 한다. 완결된 글은 요약식 노트필기처럼 단어나 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요약 원문의 구조를 드러내야 하며 문장이나 단락이 논리적 연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요약은 압축된 글로 쓰되, 출제자의 자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일체의 개인적인 요소를 글에서 배제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요약 원문의 표현들을 그대로 베껴써서는 안 된다. 뽕잎을 먹고 실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티칭가이드
1. 위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1단:일반적으로~있는가? 2단:첫째~것이다 3단:둘째~것이다)
2. 1단, 2단, 3단의 핵심을 도출하여 연결한다.

1단의 핵심은 요약의 원칙
2단의 핵심은 한 편의 완결된 글, 요약 원문 전체의 전개와 일치
3단의 핵심은 압축된 글, 자수 요구에 부응, 개인적인 요소 배제, 베껴서는 안 됨.
1+2+3 = 요약은 출제자의 자수 요구에 부응하여 원문을 압축하고 일체의 개인적 요소를 배제한 자신만의 글로서 원문의 전개와 일치시킨 한편의 완결된 글.

요약이란?6)_____

a. 요약의 원칙

1. 문장과 단락은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수를 줄이기 위해 명사구 표현을 쓰지 말고 주어 서술어의 문장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예) 아버지 위독, 급래 요망.(x)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니 급히 오시기 바랍니다.(o)

*단락은 하나의 논리적인 의미단위가 성립되어야 한다.

2. 요약 원문의 표현을 베껴 쓰면 안 된다.

*원문의 단어나 구를 적당히 짜깁기한 것, 저자가 사용한 문장이나 표현방식은 심각한 감점 요인이 된다. 원문을 완전히 이해·분석하고 자신의 글로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 그렇다고

6) 요약이란 출제자의 요구대로 글을 압축하되, 개인적인 요소를 일절 추가하지 않고 원문의 표현대로 베껴 쓰지 않으며, 글의 마디가 원문 전체의 전개와 일치하도록 작성한 하나의 완결된 글이다.

개인적 요소나 자신의 의견, 혹은 예시, 비유 등을 써서는 안 된다.

3. 개인적인 요소나 원문에 없는 것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 요소라 함은 요약문 내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저자와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판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글의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다'와 같은 표현이나 '저자는 ~~을 보여주고 있다'는 식의 표현이나 '논자가 생각하기에 ~~하다'는 식의 표현은 안 된다. 원문의 글을 요약만 하면 되는 것이다.

*원문에 없는 비유나 예시 등으로 요약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원문에 예시나, 비유 등이 있다면 내용을 줄이면서 원문을 옮겨 올 수 있다.

4. 원문의 전개대로 요약해야 한다.

*수험생이 원문을 완전히 이해한 후, 재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문의 저자가 의도하는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원문 전체의 전개에 충실하여 요약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원칙만으로 요약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기서 요약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b. 요약의 방법

요약에는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다. 하나는 원문의 각 문장과 단락을 최대한 압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원문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문장과 단락을 삭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중요한 문장이나 단락을 삭제, 압축해 원문의 흐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래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자.

*삭제의 방법: a. 논점 일탈이나 통일성, 일관성에 위배되는 것들은 잘라내라.
b. 중언부언된 것은 잘라내라.
c. 문장 주성분 외 부속 성분 중 내용을 해치지 않는 부분은 잘라내라.
d. 중의문은 삭제하여 교체하라.

*압축의 방법: a. 문맥에 적절한 어휘나 짧은 문장으로 압축하라.
b. 긴 문장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간결한 새 문장으로 압축하라.
c. 둘 이상의 문장들이 하나의 의미단위로 뭉쳐 있거든 새 문장 하나로 압축하라.

*전개의 방법: a.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마라(단, 원문의 인용문은 제외).
b. 원문의 구조를 함부로 바꾸지 마라.

c. 요약한 원문의 단락들을 본래의 구조로 합치되 단락 수를 줄여라.

요약은 내재된 언어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만약,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 대로 실행할 수만 있다면, 요약은 쉽게 끝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림없다. 요약 능력은 이론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론에 대한 깨달음으로 생길 수 있다. 이 깨달음은 자신의 잠재된 언어능력(competence)과 이론이 만날 때, 튀기는 불꽃이다. 삭제는 요약에서 함부로 쓰지 않는다 치더라도 문제는,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수행은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잠재된 언어능력을 통해 영위된다. 사람들은 이론으로 언어수행이 가능할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인지언어학에서 밝혀졌다. 이로써 보면, 요약 이론은 원문을 바탕으로 생산된, 요약문을 분석하여 만들어진 것일 뿐, 잠재적 언어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요약 이론은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전약방문, 즉 요약문이 생산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두뇌활동을 하여 고급 요약문을 생산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논술 쓰기나 요약도 문자를 매개로 한 언어수행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론적인 방법으로는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본질, 즉 잠재된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요약을 해결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원문과 요약문 사이에서 얻어낸 분석적 이론으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내재해 있는 언어능력으로 요약을 하자는 것이다.

모국어에 대한 문장과 단락의 잠재적 연결 관계는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7,8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큰 차이가 없이 거의 완성된다. 다만, 이 연결 관계를 일깨우지 못했을 때 보통의 경우와 큰 차이를 유발한다. 그런데 언어수행은 이론적 학습이 아니라 잠재적 언어능력(competence)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필자가 그 어떤 요약 원칙이나 요약 방법이 없이 독해·글쓰기 원리15, 즉 잠재적 연결 관계로 요약해 보자.**

c. 요약의 원리

(가)

1우리는 앞에서 독해·글쓰기 원리15를 보았다. 2이 원리들은 인간에게 잠재된, 문장들과 단락들이 지닌 힘의 연결 관계들이다. 3힘이 같거나 다른 문장과 단락들이 잠재적으로 힘의 관계를 이루어 서로 정확히 맞잡고 있다. 4그렇다면, 전체 원문을 요약할 때도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힘의 우열이 원문과 변함없도록 해주면 될 것이다. 5이렇게 할 때, 앞에서 말한 요약의 원칙과 방법은 별 의미가 없게 되고 우리는 내재된 언어능력으로 올바른 요약문을 생산할 수 있다. 6이렇게 요약된 글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약의 원칙·방법이 이미 내재되기 때문이다.

==========

(가)는 요약을 설명하기 위해 필자로부터 저절로 나온 글이다. 무의식적 언어능력에 의해 나온

이 글(1차적 언어수행)을 의식적으로 요약(2차적 언어수행)해 보자.

==========

■요약원리1 : 독해·글쓰기 원리로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하라.

(가)1은 도입의 기사문으로 힘없고, 2는 주장문으로 힘세다. 3은 주장문이지만 2를 부연설명한 문장이라 힘없다. 4는 2, 3을 전제로 내린 결론이므로 현재까지 가장 힘세다. 5는 4를 전제로 내린 결론이니 무게 이동. 6은 5의 근거문이니 5보다 힘이 약하다. 따라서 5가 중심문장이 된다. 위 글은 이러한 관계들로 정보들이 엮이면서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진다.

■요약원리2 : 독해된 원문을 의미단위로 묶어 압축하되, 문장을 잇는 데 내용적 비약이 있으면 원문의 보조문을 자신의 글로 만들어 보충하라.

1, 2, 3은 도입-주장-부연설명의 한 의미단위로 묶을 수 있는 가족문(family sentences)이므로 힘이 센 2를 내세우고 1, 3은 부수적으로 처리한다.

4, 5, 6은 '전제-결론-근거'의 한 의미단위로 묶을 수 있는 가족문이므로 힘이 센 5를 내세우고 4, 6은 부수적으로 처리하되, 5의 **'이렇게 할 때'**는 4를 받았으므로 4를 삭제하는 대신 지시내용을 살린다. 문장들 사이에 내용적 비약이 없으므로 보충이 필요 없다.

■요약원리3 : 이를 나의 글로 정리하라.

두개 이상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이미 '나의 글'로 바뀌었지만, 끝으로 이 글이 원문의 단어와 문장구조가 많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한다.

<요약원리>

1은 가장 힘없는 문장이라 1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서술어를 관형어로 만들어 **'앞에서 본'**으로, 즉 부수성분으로 줄였다. 1보다 2가 힘이 세기 때문에 2의 중요한 성분이 남고, 3은 2에 대한 동일 내용을 부연했으므로 핵심어 '힘세기 관계'만 남기고 삭제한다. 5의'이렇게 할 때'가 4를 수용하였으므로 4를 삭제하는 대신 지시내용을 살리고 가장 힘센 5는 중심문장이 되고 6은 5의 근거문으로 살린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요약문이 생산된다.

<요약문>

1앞서 본 2독해·글쓰기 원리15의 문장 간, 단락 간의 3힘세기 관계로 5전체 원문을 요약할 때, 6요약문에는 이미 요약의 원칙과 방법이 내재되기 때문에 5올바른 요약문을 생산할 수 있다.

내재된 언어능력으로 간단하게 요약한다

보다시피 이론에서 말하는 요약의 원칙과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요약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앞서 말한 요약의 원칙, 방법은 저절로 지켜질 수밖에 없다.** 그 언어능력이 이미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능력을 일깨우는 작업, 즉 지금처럼 훈련을 해야 한다. 언어는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독해·글쓰기 원리와 요약 능력은 이미 인간의 두뇌에 언어능력(competence)으로 내재해 있다. 이들을 일깨워 주기만 하면 독해·글쓰기와 요약은 쉽게 할 수 있다. 다만, 요약은 의식적으로 문장과 단락을 압축하는 2차적 언어수행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독해·글쓰기 원리15와 같은 1차적 언어수행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뿐이다.

위에서 하나의 단락을 요약하는 과정을 보고 혹자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명을 위해 풀어 쓴 것일 뿐이지 실상은 매우 간단하다.

(2)창의력

창의력에 대한 아래 글을 읽고 그 정확한 개념을 생각해 보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술의 창의력을 정의해 보라.

논술의 꽃은 창의력이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 분야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창의력은 대상을 이해·분석한 후에 떠올리는 착상에 관여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그 착상이 현실성이 없고, 그 해결이 평이하다면 상대(채점자)가 잘 했다고 동의하겠는가? 그 해결이 기발해야 "옳거니!" 하고 무릎을 치는 것이다. 또, 기발하기만 하고 합당하지 못하다면 이 또한 주목을 끌 수 없다. 이 창의력으로 인간 삶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중심문장 2를 토대로 3, 4를 보충한다.
핵심어: 문제 해결 능력, 기발, 합당

창의력이란?[7]

그 외의 나머지 능력들은 이 창의적 해결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논증하는 것이다. 창의력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인간의 두뇌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창의력은 외부 자극에 의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훈련에 의해 일깨워지고 계발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술 교육에서는 이 창의력을 훈련하지 않아 알맹이가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창의력이 논술과정의 어디에 쓰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 명시적으로 보여주지도 못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창의력을 지니고도 이를 활용할 줄 몰랐던 것이다.

문제로 이해하자.

7) 제기된 문제에 대해 기발하고 합당한 해결을 하는 능력

문제: 부부간의 불화
해결방안: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야 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은 **해결방안**을 낸다면 창의적이라 할 수 있을까? 이는 참 덤덤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해결책, 이것은 창의적 해결책이 아니다. 만약 이 해결책을 쓰고 싶다면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다. 해결책이 일반적이면 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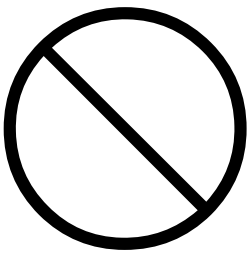
다음 해결책은 어떨까?

1. 불화가 생긴 원인을 알아보고 그 원인을 해결할까?
2. 부부 상담소에 보내볼까?
3. 상황극으로 연극치료를 해볼까?
4. 하루 10번 서로 '사랑합니다'고 고백하게 할까?
.....
.....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발상들이다. 그러나 창의적 발상은 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술 과정 내내 창의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가령, 불화가 생긴 원인을 알아내기로 했다면 그 원인을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자면 그 원인을 처리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창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하루 10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지? 이런 질문과 이에 대한 해결이 모두 창의적 능력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현재 창의력을 시험해보자.

※ 다음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보라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생각나는가? 별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정도로 창의력이 굳어 있다. 창의력은 두뇌가 유연한 초등학생에게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 보통의 경우 학년이 높아지거나 나이가 듦에 따라 창의력은 급격히 떨어져 위 그림에 대해 10개 정도를 지어내는 데 1분 이상이 걸린다. 그러나 창의력이 잠자고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를 깨워야 한다.

1류[8]:_____

2류:_____

3류:_____

어떤가? 아마도 한국 고교생들에게 쉽지 않을 것이다. 1류는 있는 그대로를 가져왔을 뿐이지만, 2류는 만들어낸 것, 즉 창의적인 것이다. 3류는 추상화시킨 것으로 고도의 창의성을 지닌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것들이다. 고교생의 경우라면 1류가 대부분일 것이다.

1)첫째 이야기

경로석은 나쁜 의미인가?

다음 두 대화를 보자.

로버트: 경로석? 이게 뭡니까?
춘　풍: 아~ 예, 노인을 공경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로버트: 오~ 알아요. 경애의 정신! 한국에 오기 전에 배웠어요.
춘　풍: 맞아요. 상부상조의 정신과 더불어 뿌리 깊은 한국의 전통사상이지요.
로버트: 이렇게 예절이 바르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군요.
춘　풍: 한국을 많이 아시는군요. 그러나 경로석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로버트: 아니, 왜요? 자랑스럽고 좋은 전통사상인데??

---

8)1류 : TV 채널, 정제 알약, 나사못머리, 도로표지판, 맨홀 뚜껑, 농구경기장, 호두, 공, 지구, 운전대, 좌우뇌
2류 : 세숫대야에 비친 빨래줄, 백미러에 비친 전깃줄, 위에서 본 두레박, 한쪽 감은 개구리눈, 깨진 안경알, 선창에서 본 수평선, 반 연 캔 뚜껑, 고봉밥, 10시 20분, 맨홀 아래 수도관, 자른 고구마를 또 자르는 순간, 반 접은 지갑, 포켓 주머니, 통나무 조갠 자국, 반 접기 전의 원, 세포분열
3류 : 1/2, 짝, 지름, 균등, 이별, 나눔, 대립, 갈등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춘풍의 마지막 발화에서 경로석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은 **경로석의 기존 틀을 깬 창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성립되려면 그 **근거가 정확**해야 한다. 즉, 경로석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정확히 무엇인가? 왜 그런가?

앞에서 우리는 기호(⦸)로 다양한 창의적 사고를 했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호가 문장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창의적 사고를 통해 다면적 발상을 해보자. 이것을 하다보면 두뇌가 매우 유연하게 된다.

경로석를 부정적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1. 임산부나 병자가 않을 수 없으니까.
2. 노인의 기준이 모호해 젊은 노인(?)이 앉을 수 있으니까.
3. 자리를 양보 받는 사람은 자신이 노인이라 인정되어 우울해 할 테니까.
4. '이 자리만은 비워주자'는 뜻이니까.
5. 먼저 앉으면 주인이니까.
6. 은근히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7.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앉을 권리가 있으니까.

.....

.....

1~7은 제시문에 근거하여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것들이다. 이 근거들은 모두 창의적 사고를 통해 다면적 발상을 한 것들이다. 즉, 창의적 근거들이다. 이런 다면적 발상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창의력은 영원히 굳어 버린다. 명심하라. 끙끙대는 소리는 창의적 뇌가 풀리고 있는 소리라는 것을. 그리고 재미있는 소리라는 것을.

정답이 있는 논술

여러분들은 '정답이 있는 논술'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어디를 두고 하는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정확한 근거**를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기존의 틀을 깬 창의적 발상을 했다면 **창의적 근거가 정확하고 합당한 것**이라야 한다. 위에서 다면적으로 발상한 여러 근거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가? 이것이 바로 정답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러하다.

창의적 발상 :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로 해석된다.

창의적 근거 : 이 자리만은 비워주자는 뜻이니까.

여기까지가 창의적 사고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창의적 근거에는 반드시 논리적 근거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창의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펼쳐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논리적 사고로 넘어가게 된다. 다음 장, 논리적 사고로 가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

2)둘째 이야기

심청은 천하의 불효녀다

다음은 우리 고전 심청가의 일부이다.

<아니리>
빌기를 다한 후, 더운 국밥 다시 떠다, 산모(産母)를 먹인 후에, 여보 마누라, 이 아이 젖 좀 먹여주오. 그때 곽씨부인(郭氏婦人)은, 산후(産後)에 손대 없어, 찬물에 빨래를 하였든가, 뜻밖에 산후별증(産後別症)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사대삭신 육천마디가 아니아픈데 가 전혀 없네. 곽씨부인(郭氏婦人), 아무리 생각하여도, 더 살 길이 전혀 없는지라. 유언(遺言)을 하는데...

<중중머리, 계면>
우물가 두레박소리, 얼른 듣고 나갈적에, 한품에 아이를 안고, 한손에 지팽이, 흩어 짚고, 더듬더듬 더듬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초칠(初七)안에 어미 잃고, 기허(飢虛)하며 죽게 되니, 이에 젖좀 먹여주오,

<진양조, 계면>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방은 추워 한기(寒氣) 들제, 먼데 절 쇠북소리, 날저문줄 짐작하고, 딸오기만 기다릴제, 어찌하야 못 오느냐. 부인이 잡고 말리는가. 길에 오다 욕(辱)을 보느냐. 백설(白雪)은 펄펄 흩날린데, 후후 불고 앉았느냐. 새만, 푸르르 날아 들어도, 내딸 청이 네 오느냐. 낙엽(落葉)만 버석 떨어져도, 내딸 청이 네 오느냐. 아무리 불러도, 적막공산(寂寞空山)에 인적(人跡)이, 끊쳤으니, 내가 분명(分明) 속았구나. 이놈의 노릇을, 어찌를 할거나. 신세(身世) 자탄(自嘆)으로 울음을 운다.

<잦은 머리>
이래서 못쓰것다. 닫은 방문 펄쩍 열고, 지팽이 흩어 짚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나오면서, 청아 오느냐. 어찌하여 못 오느냐,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정신없이 나가는데, 그때의 심봉사는, 딸의 덕에 몇해를, 가만히 앉아 먹어노니, 도랑출입(出入)이 서툴구나. 지팽이 흩어짚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 더듬 더듬이 나가다가, 길넘은 개천물에, 한발자칫 미

끄러져, 꺼꾸로 물에가, 풍 빠져노니, 아이고 도화동(桃花洞) 심학규(沈學奎) 죽네.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그저 점점 들어가니, 아이고, 정신도 말끔하고, 슴도 잘 쉬고 아픈데 없이 잘 죽는다. 한참 이리할제.

<아니리>
심청이 이말을 듣더니, 천재일시(千載一時)의 좋은 기회(機會)로구나. 이웃사람 알지 않게, 몸을 은신(隱身)하고, 선인(船人) 한사람을, 청(請)하여 엿자오되, 소녀는 당년 십오세(十五歲)온데, 부친(父親)을 위하여, 몸을 팔랴 하오니, 저를 사가심이 어떠하오.

<중중머리, 계면>
어허 이것 웬 말이냐. 에 잉, 여봐라 청아, 무엇이 어째. 어이. 애비보고 묻도 않고, 네 이거 웬 일. 못 하지야 못하여. 눈을 팔아 너를 살디, 너 팔아 눈을 뜨면, 무엇 보자고, 눈을 뜨고. 철모르는 이 자식아, 애비 설음을 너들어라, 너 낳은 칠일(七日)만에, 너를 안고 다니며, 동냥젖 얻어 먹여, 이 만큼이나 장성.묵은 근심 햇근심을, 너로하여 잊었더니, 이것이 웬 일이냐. 나, 눈안 뜰란다. <중략> 내몸으로 대신(代身) 가리라. 돈도 싫고 쌀도 싫고, 눈뜨기도 내사 싫다. 가슴 쾅쾅 두드려, 목제비질을 덜컥. 내리둥굴 치둥글며. 죽기로만 작정을 하는구나.

우리 고전 <심청전>에서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기 몸을 공양미 삼백석에 판 천하의 효녀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가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시대였기에 가능한 얘기였다. 그러나 심청은 천하의 불효녀가 될 수 있다는 발상, 이것이 기존의 틀을 깬 창의적 발상이다. 이것이 성립되려면 정확한 근거를 대야 한다. 심청을 천하의 불효녀로 볼 근거는 무엇인가? 왜 그런가? 제시문을 근거로 창의적 사고를 동원해 다면적 발상을 해보자.

심청을 천하의 불효녀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1.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산후별증에 걸려 죽었으니까.
2. 앞 못 보는 아비로 하여금 동냥젖을 얻으러 다니게 했으니까.
3. 자신을 기다리다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을 뻔 했으니까
4. 자신의 몸을 팔아 아비 가슴에 못을 박았으니까.
5. 자신만 없었더라면 아비는 평탄한 삶을 살았을 테니까.
6. 늘 늦게 와 아버지를 배곯게 했으니까.

1~6은 제시문에 근거하여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것들이다. 정답이 있는 논술이란 것은 여러 다면적 발상 가운데 가장 합당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심청이 천하의 불효녀라는 창의적 발상에 대한 정확한 창의적 근거는 무엇인가? 왜 심청은 천하의 불효녀인가? 여기에 대해 가장 합당한 창의적 근거를 1~6 가운데 선택해 보라. 정곡을 찌르는 것이라야 한다.

정리하자면 이러하다.

창의적 발상 : 심청은 천하의 불효녀다.
창의적 근거 : 자신의 몸을 팔아 아비 가슴에 못을 박았으니까.

여기까지가 창의적 사고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창의적 근거에는 반드시 논리적 근거가 따라야 한다. 여기서 논리적 사고로 넘어가게 된다. 다음 장, 논리적 사고로 가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

3)셋째 이야기

개미는 배짱이에게 양식을 꿔줘야 한다.

다음은 개미와 배짱이의 일부이다.

봄이 되자 개미들은 싱그러운 꽃잎과 나뭇잎을 모으고
베짱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어요.

여름이 오자 개미들은 집을 지을 모래알을 옮기고 베짱이는 시원한 그늘아래서 더듬이를 매만지며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지요. 베짱이는 더운데 일하는 개미들이 어리석어 보였고 개미는 하루종일 연주하고 노래부르는 베짱이가 어리석어 보였어요.

가을이 되자 개미들은 서로 도우며 나무열매를 옮기고 베짱이는 딩가딩가 악기 연주를 해요. 개미는 놀기만 하며 노래부르는 베짱이가 한심해 보였고 베짱이는 그런 개미를 비웃었죠.

겨울이 왔어요. 눈이 펑펑 오는 겨울날,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따뜻하게 보내는데 베짱이는 갈 곳이 없어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집으로 걸어갔죠.
개미야!! 나, 춥고 배고파. 양식 좀 꿔줘!
이 어리석은 배짱아! 내가 땀 흘려 일할 때 너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어. 게으른 너에게 양식을 꿔줄 수 없어!
불쌍한 배짱이는 그만 얼어 죽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게으른 자는 먹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세상의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들려주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존의 틀을 깨고 창의적 발상을 해보자.
양식을 꿔달라는 배짱이에게 개미는 꿔줘야만 한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창의적 근거는 무엇인가?

1. 생명은 존엄하니까.

2. 게으른 자도 최소한의 먹을 권리는 있으니까.
3. 베짱이는 자기가 먹을 식량을 저장하지 않고 바로 먹는 곤충이니까.
4. 먹이를 준비하는 문제로 게으름의 지표로 삼을 수 없으니까.
5. 개미가 일할 때 배짱이가 노래를 불러 주었으니까.
6. 절박한 상황에서는 도와주는 자비가 있어야 하니까.
7. 배짱이는 개미에게 악의 없이 모르고 한 행동이니까.
8. 배짱이가 하는 짓으로 보아 절대 갚지 못할 것이니까.
.....
.....

1~8은 제시문에 근거하여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것들이다. 이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창의적 근거인가?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 여러 근거들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답이 있는 논술이란 것은 정곡을 찌르는 창의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 창의적 근거는 다시 논리적 근거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논리적 근거들이 창의적 근거를 제대로 뒷받침 해 주어야 창의적 근거는 살아나는 것이다. 우선, 개미가 배짱이에게 양식을 주어야 하는 창의적 발상에 대한 정확한 창의적 근거는 무엇인가?

정리하자면 이러하다.

창의적 발상 : 개미는 배짱이에게 양식을 꿔주어야 한다.
창의적 근거 : 개미가 일할 때 배짱이가 노래를 불러 주었으니까.

여기까지가 창의적 사고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창의적 근거에는 반드시 논리적 근거가 따라야 한다. 여기서 논리적 사고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논리적 근거가 얼마나 창의적 근거와 잘 부합하느냐에 따라 논술의 승패는 좌우된다. 만약, 정답인 창의적 근거를 선택했다면 이에 따르는 논리적 근거는 저절로 가장 합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 장, 논리적 사고로 가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

4)넷째 이야기

흥부가 나쁜 놈이다

다음은 흥부가의 일부이다.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어름에 흥보와 놀보 형제가 살았다. 형 놀부는 심술보가 하나 더 있는 심술쟁이여서 갖은 못된 짓을 하는데, 갖은 못된 짓을 하는데, 어느 하루 갑자기 아우 흥부를 불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여 흥보네 식구는 쫓겨나게 된다. 흥보 내외는 쫓겨 나와 호구지

책을 마련해 보지만 살아가기가 어렵기만 하다. 이런 형편인데도 아홉이나 되는 아들들은 철없이 맛있는 음식 타령이나 하여 부모를 괴롭힌다. 하다못해 흥보는 관가에 가 좌수 대신에 매를 맞는 매품을 팔기로 하고 돈을 빌어 하루쯤 잘 먹어 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이일도 가로채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한다. 흥보는 다시 형님의 집으로 건너가 쌀이나 밥을 사정하지만 쌀은 고사하고 형수에게 밥주걱으로 뺨을 맞고 쫓겨 나온다. 이처럼 절망적일 때 도승(道僧) 한 사람이 찾아와 집터를 일러주고 사라지니 흥보 내외는 움막을 그 곳으로 옮겨 짓는다. 봄이 되어 움막집 처마 밑에 집을 지은 제비 새끼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 준다. 다리를 고친 제비는 강남에 가서 제비 장수로부터 은혜 갚을 박씨를 얻어 이듬해 봄에 흥부의 집으로 날아 와 흥보 내외 앞에 떨어뜨린다.

이때에 흥보 아내는, 여러 날 굶은 가장을 형의 집에 보내고서 전곡간에 얻어 오면 굶은 자식 먹일 걸로 여(閭)에 나서 기다린다. 스물 다섯 되는 자식 다른 사람 자식 낳듯 한 배에 하나 낳아 삼사 세 된 연후에 낳고 낳고 했어야 사십이 못다 되어 그리 많이 낳겠느냐. 한 해에 한 배씩 한 배에 두셋씩 대고 낳아 놓았구나.

<진양조>
처: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년의 가난이야 어이허면 잘 사는고 잘살고 못 사는게 묘 쓰기에가 매였는가 삼신재왕님이 짚자리에다 떨어칠 제 각각 복을 마련 허는가 북두 칠성님이 점지를 허시는가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와 고대광실 좋은 집에 용지불갈 취지무궁허여 부귀영화로 잘 사는듸 이년의 팔자는 어이 허여 가장은 부황나고 자식들은 아사지경이 되니 몹쓸 년의 팔자로구나
효: 자식들이 달려들어 우는 모친을 부여안고
자: 아이고 어무니 왠일이요 우리도 수십형제나 되오니 복 있는 놈이 하나나 있제 없으리까 우지마오 우지마오
효: 말리고 울고 울고 말리고 앉어 서로 붙들고 울음을 운다

<흥부가>는 우리 전통의 미덕인 형제우애를 다룬 우리 고전이다. 관습적인 착한 흥부와 악한 놀부를 여기서는 착한 놀부, 악한 흥부로 창의적 발상을 해보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창의적 근거는 무엇인가? 왜 착한 놀부인가? 왜 악한 흥부인가? 제시문에 근거하여 다면적으로 발상해 보라.

1.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을 스물다섯이나 낳았으니까.
2. 노동력이 있는 자식과 일할 수 있는데 늘 형에게 기대니까.
3. 일하지 않고 매품 팔아 양식을 구하니까.
4. 만약, 놀부가 받아주면 늘 얻어먹으며 살 사람이니까.
5. 놀부의 행위가 흥부를 자립하게 만드니까.
6. 놀부는 적극적이고 부자인 데 비해, 흥부는 대책 없이 착하기만 한 가난뱅이니까.
7. 놀부가 흥부의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아내와 짜고 일부러 악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
.....

1~7은 제시문에 근거하여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것들이다. 이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창의적 근거라고 생각하는가? 정답이 있는 논술은 정곡을 찌른다. 여기에는 반드시 정곡을 찌르는 창의적 근거가 있고 이 창의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가 있다. 창의적 발상에 대한 정확한 창의적 근거는 무엇인가?

정리하자면 이러하다.

창의적 발상 : 홍부는 악하고 놀부는 선하다.
창의적 근거 : 놀부는 적극적이고 부자인 데 비해, 홍부는 대책 없이 착하기만 한 가난뱅이니까.

여기까지가 창의적 사고의 영역이다. 그러나 창의적 근거에는 반드시 논리적 근거가 따라야 논증될 수 있다. 여기서 논리적 사고로 넘어가게 되는데, 창의적 근거가 합당하다면 논리적 근거는 거기에 따라 저절로 가장 합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창의력은 내재된 지식이다.

이러한 창의적 발상과 창의적 근거를 유발하는 창의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우리 두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잠자고 있느냐 아니면 깨어나 있느냐, 많이 깨어 있느냐 적게 깨어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내재된 이 창의력을 일깨워 창의력을 신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음 장, 논리적 사고로 가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

(3) 논증·논리력

1) 논증·논리력은 내재된 지식이다.

논증·논리력을 정확히 알기 위해 먼저 얘기 한 토막을 하자. 다음은 실제 있었던 아빠와 다섯 살 난 아들의 대화이다.

아빠 : 동글아, 오늘 누구랑 놀고 싶어? 또 형아 한테 갈 거야?
아들 : 오늘은 수빈이한테 갈 거야.
아빠 : 왜? 늘 형아한테 갔잖아. 형아랑 싸웠어?
아들 : 아니.. 수빈이 한테... 내 아이스크림...

아이는 옆 집 수빈이와 놀곤 했지만, 다섯 살 동갑내기인 수빈이와 열 살 난 자기 사촌을 두고 선택해서 놀아라 하면 아이는 늘 옆 동에 사는 제 사촌을 선택했었다.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리고 선택하라 했더니, 어쩐지 수빈에게 가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저녁에 아이에게 물었더니 “수빈이한테 아이스크림 조금 주고 내가 많이 먹었어, 아이스크림이 있을 때는 수빈이한테 갈 거야”라고 만족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

는 아이스크림 때문이었다.

형아한테 가면 내 아이스크림을 많이 빼앗긴다.(전제1)
수빈이한테 가면 내 아이스크림을 조금 빼앗긴다.(전제2)
내가 더 많이 먹으려면 오늘은 수빈이한테 가야 한다.(결론)

다섯 살 난 아이가 이 같은 논리의 과정을 인식하면서 내린 결론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형에게 가지 않고 수빈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재구성하면 위와 같은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아이는 논리의 과정을 인식할 수는 없으나 무의식중, 순식간에 이와 같은 논리를 떠올린 것으로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이 아이는 논리학도 배우지 않았다.

어쩌면 다음과 같은 다른 모델의 논리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형아는 나보다 힘이 세다.(전제1)
수빈이는 나보다 힘이 약하다.(전제2)
힘이 세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전제3)
나는 수빈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전제4)
내가 많이 먹으려면 수빈이한테 가야한다.(결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내가 아이스크림을 주도할 수 있다, 없다'에** 초점이 있고 여기에 따라 다양한 논거의 가지들을 무의식중, 순식간에 뻗힌 것이다. 이 논거의 가지들은 내재된 논리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과정을 인식할 수 없지만, 아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내재된 논리력을 지닌 사람들은 이 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논리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두뇌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래 나이마다 그 수준의 논술을 쓸 만큼 두뇌에 기본적인 논리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을 쓸 목적으로 논리학을 심도 있게 파고드는 일은 매우 소모적이다. 언어논리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어학의 통사론(syntax)에서는 한 문장 안에서 정보들이 어순과 문법에 의해 논리적으로 내재화되어 있고, 담화화용론에서는 문장과 단락들의 논리적 연결관계가 이미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 독해·글쓰기 원리15에서 확인하였다. 단언컨대, 논술 쓰기에서 논리학 학습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미 내재된 언어논리로 충분하다. 국어학자들이 논술교육론에서 논리학을 따로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령, a→q인 결론을 위해 a→p이고 p→q라는 형식적 논리로 뼈대를 세웠다고 한다면, 이 철학적 논리의 뼈대 위에 언어의 살을 붙여야 논술 글이 된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이 논리에 언어의 살을 붙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철학적 논리와 언어적 살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적 살', 즉 문장들에는 이미 언어적 논리가 내재되어 있는데 철학적 논리가 또 있으니 이 둘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이 중복된 논리의 충돌을 피하려면 여간 애를 먹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언어논리에 내재해 있는 논리로 충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해·글쓰기 원리, 창의력, 논증·논리력은 모두 우리 두뇌에 이미 내재해 있는 것이며 언어논리에 의해 표현된다는 것이다. 아래를 다시 보자.

지금까지의 진술에서 논술의 논증·논리력을 정의해 보라.

논증·논리력이란?[9]

Beaugrande(1984)가 제안한 평행적 상호작용 모델은 언어 표현의 각 요소들은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표현에서는 언어와 논리가 융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령, 이 둘을 분리하면 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음운, 형태, 어순, 문법 등이 모두 논리적으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기둥을 이루어 위를 떠받치고 있는데 철근만 따로 빼낼 수가 없다. 만약, 콘크리트를 떼어내어 철근을 빼낸다면 이미 기둥의 기능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력을 말하면서 앞(48쪽)에서 미루었던 논리력 이야기를 여기서 이어 보자.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대해 우리는 앞에서 다음과 같은 다면적 발상, 즉 창의적 근거를 보였다. 여기서 정답이 있는 논술을 쓰자면 이 가운데 가장 정확한 근거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내재해 있는 종합적 사고력으로 아래 4를 가장 합당한 창의적 근거로 선택했다.

1. 임산부나 병자가 않을 수 없으니까.
2. 노인의 기준이 모호해 젊은 노인(?)이 앉을 수 있으니까.
3. 자리를 양보 받는 사람은 자신이 노인이라 인정하며 우울해 할 테니까.
4. 이 자리만은 비워주자는 뜻이니까.
5. 먼저 앉으면 주인이니까.
6. 은근히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7.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앉을 권리가 있으니까.

창의적 발상 :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로 해석된다.
창의적 근거 : 경로석이 갖는 의미는 '이 자리만은 비워주자'는 뜻이다.

여기까지가 창의적 사고의 영역이라 했다.
여기서 **창의적 발상**(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은 논제가 되고 **창의적 근거**(이 자리만

9)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거들의 규칙과 추론 과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내재적 지식.

은 비워주자는 뜻이다)는 논제를 위한 결론이 된다. 이 '결론'이 나오게 된 논리만 끌어내면 논제인 창의적 발상은 논증되는 것이다.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

형아한테 가면 내 아이스크림을 많이 빼앗긴다.(전제1)
수빈이한테 가면 내 아이스크림을 조금 빼앗긴다.(전제2)
내가 더 많이 먹으려면 오늘은 수빈이한테 가야 한다.(결론)

앞에서 아이는 결론을 위해 전제1,2를 무의식 중, 순식간에 떠올렸다. 이 아이는 전제들을 구성해낼 수가 없지만 수험생들은 이미 내재된 사고력으로 결론에 대한 전제1,2를 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로석' 이야기의 결론-이 자리만은 비워 드리자는 뜻이다-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창의적 근거(결론)를 위한 논리적 근거 만들기

창의적 근거(결론)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보자. 앞에서,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로 해석된다'는 논제에 대해, 여기서는 창의적 근거(결론)를 내기 위해 어떤 논리적 근거가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 '어떤 과정으로 이 창의적 근거가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시문을 근거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시문을 정밀 독해하기 위해 앞 장에서 독해·글쓰기 원리15를 제시했던 것이다.

근거1 : _____
근거2 : _____
근거3 : _____
창의적 근거(결론) : 이 자리만은 비워주자는 뜻이다.
총결론(논제) : 따라서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총결론을 위해 합당한 창의적 근거를 선택했다면, 이 창의적 근거를 위한 논리적 근거들을 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래를 보자.

창의적 근거(결론) : 이 자리만은 비워주자는 뜻이다.
(왜 그런지 제시문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시오)

(설명)
1.우리에게는 전통사상인 경애의 정신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2.만약, 우리에게 경애의 정신이 지금도 있다면 경로석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 3.뒷 좌석까지 모두 경로석이 될

게 아니냐. 4.그럼에도 경로석을 따로 지정했다는 것은, 어른들에게 자리 양보를 하지 않으니 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것 아니냐. 5결국 경로석은 아름다운 딱지가 아니라 슬픈 딱지가 아니냐.

위 설명을 정리하면 우리는 아래의 전제1,2,3을 얻을 수 있다.

전제1 : 우리에게는 전통사상인 경애의 정신이 있었다.
전제2 : 지금도 그게 있다면 경로석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뒷 좌석까지 경로석이니까)
전제3 : 그럼에도 경로석을 지정했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의적 근거(결론) : 따라서 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뜻이다.
총결론(논제) : 따라서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만약,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위의 전제들은 언어논리에 의해 이미 논리로 최적화된 것이다. 애써 철학적 논리의 틀을 가져와 끼워 맞추지 않아도 언어논리로 저절로 해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장 간, 단락 간의 언어논리인 것이다.

이것을 철학적 형식논리로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다.

전제1 : 경애의 정신은 어른을 섬기는 우리의 전통사상이다.
전제2 : 이 전통사상이 현재 우리에게는 없다.
전제3 : 그래서 경애의 정신이 우리에게 없다.
창의적 근거(결론) : 따라서 경로석의 의미는 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뜻이다.
총결론(논제) : 그러니까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자는 연역추론을 모른 채 잠재된 논리력에 의해 나온 **언어논리**이고, 후자는 연역추론을 알고 그 틀에 맞추어 격식을 차린 **형식적 논리**이다. 전자는 유연한 가운데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후자는 딱딱한 가운데 형식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를 살펴보면 실상은 응용된 연역추론이다. 잠재된 논리력으로 더 유연하게 응용된 연역추론을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독해·글쓰기원리15에서 지적한 문장 간, 단락 간의 연결관계이며 잠재적 언어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제들(논리적 근거)에 살을 붙여 결론(창의적 근거)을 도출해 내어 논제(총결론)를 해결한 하나의 단락을 만들어 보자.

총결론(논제) : 따라서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에게는 면면히 전해오는 전통사상인 경애의 정신이 있었다.**(그게 뭡니까?)**경애의 정신은 어른을 공경하는 고등한 정신문명이다.**(그게 어쨌다는 말입니까?)** 만약, 지금도 이 정신이 있다면 버스 안의 경로석은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왜 그렇습니까?)** 뒷 좌석까지 다

경로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 뭐가 문제적 상황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 안에 경로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경로석은 '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뜻을 함유하고 있다. **(최종 결론은요?)** 따라서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언어논리는 이와 같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질문이 들어 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문장이라는 것이다. 그 질문들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Hoey(1983)의 질문법(question test)
배경적 상황은 어떠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해결 방안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어떠한가?

Fahmestock & Secor(1983)의 질문법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원진숙(1995)
문제적 상황은 뭡니까?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오.
이런 관점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어쨌다는 말입니까?
해결방안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
.....
.....

이런 질문들은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 사이에 잠재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선 문장이 어떠냐에 따라 이 질문들은 변화무쌍하며 어떤 질문들이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글쓴이가 잠재에서 무슨 질문을 선택하여 어떤 방향으로 글이 흐르는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글을 읽는다면 잠재된 질문들에 의해 잠재적으로 글의 흐름은 알 수 있지만, 글의 논리와 조직은 의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인지하여 드러낼 수 없다.

잠재된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잠재를 확인하여 일깨우기 위해서, 필자는 모든

문장을 넷으로 분류하고 독해·글쓰기 원리15를 연구해낸 것이다. 모든 언어는 이 독해·글쓰기 원리15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 원리로 정확히 글을 읽고 치밀하고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언어논리가 철학적(형식적) 논리보다 월등히 정교하다.

자, 우리는 철학적 논리를 힘들여 운용하지 않고 언어논리에 의해 하나의 단락을 매우 쉽게 만들었다. 사실은 이 두 논리가 상이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언어논리로 생산된 단락은 철학적 논리에 맞춘 것보다 더 유연하면서도 응용된 논리가 갖추어져 매우 자연스러웠다.

그렇다면, 생산할 수 있는 단락은 이 유형뿐인가? 아니다. 철학적 논리로 쓰면 형식적 유형은 매우 한정된다. 그에 해당되는 형식적 논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논리로 쓰면 응용된 논리가 다양하게 표출됨으로써 다른 유형의 좋은 단락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주어진 창의적 근거(결론)에 대해 설명을 달리하면 전제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변화된 전제에 대한 질문으로 문장을 이어나가면 매우 논리적이고 유연한 단락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그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 1모델

근거1 : 우리에게는 전통사상인 경애의 정신이 있다.
근거2 : 그렇다면 경로석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근거3 : 맨 뒷자리까지 경로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4 : 그럼에도 특정한 자리를 경로석으로 표시했다.
근거5 : 이것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결론 : 따라서 경로석이 지니는 의미는 '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뜻이다.
총결론: 따라서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살붙여 단락 만들기

1. 모든 나라에는 정신적으로 유전되는 전통사상이 있다.
2. 우리에게도 어른을 섬기는 경애의 정신이 전통사상으로 면연히 이어지고 있다.(근거1)
3. 그렇다면 버스 안의 경로석은 표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근거2)
4. 맨 뒷자리까지 경로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근거3)
5. 그럼에도 특정한 자리에 경로석 딱지를 붙여놓은 것은(근거4)
6. 사람들이 자리를 어른들에게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근거5)
7. 만약 그렇다면 이 경로석이 갖는 의미는 "젊은이들아, 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의미와 다름없다.(주장)
8. 그러므로 경로석의 본질은 어른을 섬기기 위한 표지가 아니라 그 반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슬픈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총결론)

1은 도입문이다. 근거1을 끌어오면서 도입해도 좋으나 운을 띄우면서 도입문을 슬쩍 끌어오는

편이 부드럽다. 2~6은 논리적 뼈대에 살을 붙인 것이다.

어떤가? 창의적 근거 7에서 만든 2~6이 순차적인 논리적 근거들이니 이들을 연결하고 살을 붙인 단락은 또 얼마나 논리적이겠는가? 글은 이와 같이 논리적 근거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최상의 논리적인 글이 된다. 억지로 논리적으로 짜맞추는 것은 원통 막대기에 사각 막대기를 넣을 때 모서리가 깎이는 아픔을 견디는 것과 같다.

※도입문

도입문은 시작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화제를 슬쩍 끌어오는 수법이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치장에 불과하다. 그 여러 많은 방법을 익혔다 하더라도 써먹기 어렵다. 도입문은 실재하는 얘기로 족하다. 그래서 미래 얘기는 도입문에 부적합하다.

제 2모델

근거1 : 우리에게는 전통사상인 경애의 정신이 있었다.
근거2 : 아직도 우리에게 경애의 정신이 남아 있다면 버스의 모든 자리가 다 경로석이 될 수 있다.
근거3 : 그렇다면 경로석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근거4 : 그럼에도 특정한 자리를 경로석으로 표시했다.
근거5 : 이것은 사회규범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
중간결론(결론) : 결국, 경로석의 의미는 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뜻이다.
총결론(논제) : 따라서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살붙여 단락 만들기

1.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는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사상이 있다.(도입문)
2. 우리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는 경애의 정신이 있다.(근거1)
3. 만약, 우리에게 아직도 이 경애의 정신이 남아 있다면 버스의 모든 자리가 다 경로석이 될 수 있다.(근거2)
4. 그렇다면 따로 경로석을 표시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근거3)
5. 그런데 우리 버스 안에는 경로석 딱지가 따로 붙어 있다.(근거4)
6. 이것은 사회규범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근거5)
7. 결국, 경로석의 의미는 이 자리만은 어른들께 비워 드리자는 뜻이다.(근거6)
8. 따라서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근거7)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경로석이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는 **창의적 결론**을 주장하기 위해 다면적 발상을 한 것들 가운

데 **정확한 창의적 근거**를 세웠고, 이 창의적 근거를 설명하면서 언어논리적 근거로 뼈대를 만들었다. 이 뼈대 위에 살을 붙여 논리적이면서도 깔끔한 단락을 언어논리에 의해 만들었다.

경로석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문제의 제기)
(창의적 발상을 하시오)

⇩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 (창의적 결론-논제)
(왜 그런지 다면적 발상을 해보고 가장 합당한 것을 선택하시오)

⇩

이 자리만은 비워주자는 뜻이다 (창의적 근거)
(왜 그런지 설명해서 논리적 근거를 만드시오)

⇩

근거1 : 우리에게는 전통사상인 경애의 정신이 있다.
근거2 : 그렇다면 경로석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근거3 : 맨 뒷자리까지 경로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4 : 그럼에도 특정한 자리를 경로석으로 표시했다.
근거5 : 이것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결론 : 따라서 경로석이 지니는 의미는 '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뜻이다.
총결론: 따라서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

언어논리로 살을 붙여 단락을 만들어 보시오.

==========

1우리에게는 면면히 전해오는 전통사상인 경애의 정신이 있었다. 2경애의 정신은 어른을 공경하는 고등한 정신문명이다(삽입). 3만약, 지금도 이 정신이 있다면 버스 안의 경로석은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4뒷좌석까지 다 경로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그러나 지금 버스 안에 경로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6따라서 경로석은 '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뜻을 함유하고 있다. 7이로써 볼 때, 경로석은 우리에게 슬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

1은 도입문
2는 1의 구체화
3은 1의 결론으로 힘세다.
4는 3의 근거로 들러리이다.

5는 3의 반론으로 현재 가장 힘세다. 무게가 이동되었다.
6은 5의 결론으로 현재까지 가장 힘세다.
7은 6을 전제로 한 총 결론으로 가장 힘세다. 중심문장이다.

이처럼 단락 쓰기는 인간의 내재된 능력이 갖고 있는 언어이해·분석력, 언어논리력, 창의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실행된다. 다만, 이 능력들을 훈련에 의해 일깨웠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능력을 일깨우는 훈련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아래의 논거로 전체 논술문을 구성해 보자.

논거1. 우리에게는 전통사상인 경애의 정신이 있었다.
논거2. 지금도 그게 있다면 경로석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뒷 좌석까지 경로석이니까)
논거3. 그럼에도 경로석을 지정했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결론/창의적 근거 : 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뜻이다.
총결론/논제 : 따라서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Ⅰ. 서론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경로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Ⅱ. 본론 1단락 - 우리에게는 전통사상인 경애의 정신이 있음을 설명한다.
Ⅲ. 본론 2단락 - 지금도 경애의 정신이 있다면 경로석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뒷 좌석까지 다 경로석이 될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Ⅳ. 본론 3단락 - 그럼에도 경로석을 지정했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Ⅴ. 중간결론 - 애초에 있었던 논거1+2+3을 달리 표현하여 전제로 삼고 '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중간결론을 내린다.
Ⅵ. 총결론 - 이로써 볼 때, 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문제를 해결하며 Ⅴ의 마지막 문장에 붙인다.

이 개요로 질문법을 써 다음과 같은 논술문을 만들었다.

Ⅰ. 서론
우리는 버스나 전철을 탈 때 경로석을 본다.(그게 뭔데요?) 어른을 섬기는 자리다.(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젊은이들이 함부로 앉아서는 안 될 공경 받는 자리다.(일반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외국인들은 이러한 경로석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다.(문제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자리가 과연 어른을 공경 하는 자리인지, 어른을 천대하는 자리인지 분간이 서지 않는다.(왜 그렇습니까?) 급할 때는 아무나 않기 일쑤이기 때문이다.(무엇을 문제 삼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로석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본론1
세계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제 각기 전해 내려오는 전통사상이 있다.(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상부상조의 정신과 더불어 경애의 정신이 전하고 있다.(그게 뭔데요?) 경애의 정신은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이다.(그게 어쨌다는 말입니까?) 어느 민족이라도 연소자가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소학의 장유유서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예를 들면요?). 5"너 몇 살 먹었어!" 하며 싸우는 민족이 한국인이다(다른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법에서는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가 당선된다.

Ⅲ. (본론2)
경로석 딱지를 보면서 연장자를 섬기는 미풍양속이 이 시대에 존속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씁쓰레한 미소를 지어 본다.(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 아름다운 정신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경로석 딱지는 붙여놓을 필요도 없다.(근거는요?) 그 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모든 좌석이 경로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본론3)
경로석이 있다는 사실은 경애정신의 유전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리를 어른에게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면요?) 젊은이들은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하염없이 스마트폰을 누르고 있으니 어찌 어른인들 보이겠는가?(다른 예는요?) 서 있는 어른을 보아도 조는 척 하는 연기는 퍽 어설프다.(반어적 예로 는요?) 시집을 펼치고 허리 굽은 어른을 못 본 체하는 여자가 참 교양 있어 보인다.

Ⅴ+Ⅵ. (중간결론+총결론)
우리에게는 면연히 전해오는 전통사상인 경애의 정신은 어른을 공경하는 고등한 정신문명이다.(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만약, 지금도 이 정신이 있다면 버스 안의 경로석 딱지는 따로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근거는요>) 어느 좌석이든 다 어른들이 우선이기 때문이다.(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 안에 경로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그래서요?) 따라서 경로석은 '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결론은요?) 결국, 경로석은 우리에게 슬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질문법은 문장 간, 단락 간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독해·글쓰기 원리로 읽고 쓰는 것이 좋다.

Ⅰ. 서론
1우리는 버스나 전철을 탈 때 경로석을 본다. 2어른을 섬기는 자리다. 3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젊은이들이 함부로 앉아서는 안 될 공경 받는 자리다. 4외국인들은 이러한 경로석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5그런데 이 자리가 과연 어른을 공경 하는 자리인지, 어른을 천대하는 자리인지 분간이 서지 않는다. 6급할 때는 아무나 앉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7그래서 우리는 경로석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1은 도입문. 2는 1의 구체화. 3은 2의 결론. 4는 3의 부연. 5는 문제시하는 주장으로 초점이동. 6은 5의 근거. 7은 5,6의 결론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가장 힘이 셈. 앞으로 이 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글이 되어야만 함.

Ⅱ. 본론1

1세계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제 각기 전해 내려오는 전통사상이 있다. 2우리에게도 상부상조의 정신과 더불어 경애의 정신이 전하고 있다. 3경애의 정신은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이다. 4어느 민족이라도 연소자가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소학의 장유유서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5"너 몇 살 먹었어!" 하며 싸우는 민족이 한국인 뿐이다. 6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법에서는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가 당선된다.

1은 도입문. 2는 1의 초점이동. 3은 2의 구체화. 4는 2의 부연. 5는 4의 예시. 6은 4의 예시2 2가 중심문장.

Ⅲ. (본론2)

1그런데 현재 버스나 전철 안에는 경로석 딱지가 붙어 있다. 2이것은 보면 연장자를 섬기는 미풍양속이 이 시대에 존속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씁쓰레하다. 3만약, 이 아름다운 정신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경로석 딱지는 붙여놓을 필요도 없다. 4그 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모든 좌석이 경로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은 앞 단락에 대한 전환으로 힘세다. 단락 무게이동. 2는 1의 결과로 힘세다. 3은 2의 이유로서 힘세다. 무게이동. 4는 3의 근거로 들러리. 3이 중심문장.

Ⅳ. (본론3)

1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석 딱지가 붙어 있다는 사실은 젊은이들이 자리를 어른에게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2젊은이들은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하염없이 스마트폰을 누르고 있으니 어찌 어른인들 보이겠는가? 3서 있는 어른을 보아도 조는 척 하는 연기는 퍽 어설프다. 4시집을 펼치고 허리 굽은 어른을 못 본 체하는 여자가 참 교양 있어 보인다.

1은 앞 단락에 대한 반론으로서 힘세다. 단락 무게이동. 2는 1에 대한 예시. 3은 예시2. 4는 예시3

Ⅴ+Ⅵ. (중간결론+총결론)

1우리에게는 면면히 전해오는 전통사상인 경애의 정신은 어른을 공경하는 고등한 정신문명이다. 2만약, 지금도 이 정신이 있다면 버스 안의 경로석 딱지는 따로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3어느 좌석이든 다 어른들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 안에 경로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5따라서 경로석은 '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6결국, 경로석은 우리에게 슬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1은 도입문. 힘없다. 2는 1의 결론으로 힘세다. 무게이동. 3은 2의 근거로서 들러리. 4는 2의 반론으로 힘세다. 무게이동. 5는 4의 결론으로 힘세다. 6은 5을 전제로 얻은 최종 결론. 가장 힘세다. 중심문장이다.

가장 논리적이고 치밀한 논술문은?

만약, 이 논제(**경로석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로 한 편의 논술문을 쓴다면 습관처럼 개요작성부터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개요작성은 해야 하나, 우리가 여기서 실행하는 간접적인 개요작성이 필요 없이 언어논리로 매우 직접적이고 치밀하게 글을 구성한다. 앞에서 하나의 단락을 매우 논리적으로 유연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한 편의 논술문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우리는 앞에서 하나의 중간결론-**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에 대해 "왜 그런지 설명하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각 논거들을 언어논리로 마련하여 하나의 치밀한 단락을 만들었었다. 이 단락을 구성하는 문장(논거)들이 매우 논리적이라면, 이 문장(논거)들이 논술문 단락들의 중심내용이 된다 해도 단락 간이 매우 논리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논제(부정적 의미의 경로석)에 대해 창의적 근거인 중간결론(이 자리만은 비워드리자는 뜻)이 나왔고 또 여기서 논거1~3을 단락1~3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 논리 뼈대에 살을 붙인 단락들은 매우 논리적일 뿐 아니라 전체 구조가 매우 치밀하다. 더욱이 Ⅴ+Ⅵ의 1~4는 본론1,2,3 단락의 중심내용이 응집됨으로써 분산된 단락들을 다시 집중시키며, 이러한 중간결론을 전제로 한 총결론은 탄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논술문은 단락 간이 매우 논리적이며 조직이 치밀하다.

3) 단락 만들기

문제는, 앞서의 논거1,2,3과 중간결론을 한 단락의 중심문장으로 대체시켰을 때, 이 중심문장으로 어떻게 치밀한 단락들을 생산하느냐에 있다. 생산된 각 단락의 문장들이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이 단락들 간의 관계가 역시 그러하다면, 이 논술문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논술문이 될 것이다.

논리적이고 치밀한 단락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언어능력을 써야 하는데, 이 방법을 몰라 언어능력과 무관한 글쓰기 지식으로 해결하려니 잘 될 리가 없다. 우리가 음성언어인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다면 문자언어인 단락 쓰기도 훈련을 통해 잘 할 수 있다. 문장 간, 단락 간이 이어지는 원리를 터득하면 글은 청산유수로 흐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독해·글쓰기 원리15와 그 소원리들이다.

이 독해·글쓰기 원리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좀 더 엉성하지만 쉬운 '질문답법'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앞의 논거1~3을 중심문장으로 각각 대체하여, 각 중심문장에 대해 '왜 그런지 설명' 한다면 각 단락들이 생성될 것이다. 만약, 이 설명이 논리적 설명이라면, 문장 간의 관계가 논리적이 되면서 치밀한 단락이 될 것이다. 서론 단락은 따로 만들거나 논거1로 문제를 제기하는 서론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는 '질문답법'으로 글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자.

a. 서론부의 단락 쓰기

비록 글을 자주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론부를 꺼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아무리 논제와 논거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글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요령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1. 유명인의 말이나 속담, 경구, 고사, 유행하는 말 등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라.
2. 다루려고 하는 논제의 용어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면서 시작하라.
3.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하라.
4. 최근 나라 안의 화제나 사회적인 이슈를 언급하며 시작하라.
5. 주어진 주제와 대비되는 말로 시작하라.
6. 논제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라.
7. 글의 윤곽을 제시하면서 시작하라.

이러한 요령들로 서론를 시작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는 듯하지만, 실상은 이 요령들을 논제와 연결하며 쓰기가 난감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글쓰기를 생득적인 내재적 언어능력에 바탕을 두지 않고 경험과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논술문의 서론을 분석해보니 저러하다는 경험적 지식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후약방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러한 서론을 쓰기 전의 사전약방문을 구하는 것이다.

문자언어나 음성언어는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재적 언어능력에 의해 수행된다. 이것은 경험주의에서 나온 구조문법과,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변형생성문법 사이의 현격한 언어 본질의 차이이다.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문법은 이미 언어학계에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현재 지구촌을 덮고 있는 생득적인 변형생성문법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언어능력이 출생하면서 이미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편화된 견해이다.

내재된 언어능력은 문장 간, 단락 간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질문들이 실재로 내재하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이 내재적 질문들을 통해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다. 가령, '경로석의 부정적 의미'를 논제로 할 때 서론부에서는 직접적이든, 암시적이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무엇에 대해 쓰겠노라는 필자의 의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서론 쓰기 : 경로석의 부정적 의미에 대한 문제제기

(논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경로석은 어른을 공경하는 자리이다.
경로석은 버스나 전철 내의 어른을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는....

(논제와 관련하여 인용할 재미있는 고어, 경구, 속담은 무엇입니까?)
장유유서라는 말은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서 차례가 있다는 뜻이다. 경로석은 바로 이 말을...

(논제와 유사하거나 같은 사건, 상황은 무엇입니까?)
<심청전>의 심청을 달리 보면 천하의 불효녀로 볼 수 있다. 심청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픔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상을 뒤집어 보면 오히려 진실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경로석도 이와 마찬가지다. 경로석은 ....

(논제의 핵심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우리는 버스나 전철을 탈 때 경로석을 본다. 어른을 섬기는 자리다. 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젊은이들이 함부로 앉아서는 안 될 공경 받는 자리다.

(일반적, 현재적 상황은 어떠합니까?)
경로석은 경애의 정신에서 나온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우리의 경로석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문제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자리가 과연 어른을 공경 하는 자리인지, 어른을 천대하는 자리인지 분간이 서지 않는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경로석임에도 급할 때는 아무나 앉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문제 삼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로석의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경로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아니다.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경로석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b. 본론부의 단락 쓰기

본론 쓰기: 경로석의 부정적 의미에 대한 해결과정

본론의 임무는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 해결과정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창의적 결론에 대해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보시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각 단락의 중심내용을 구해낼 수 있다(51쪽 참조). 이 중심내용에 대해 다시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보시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뒷받침 문장들이 된다.(57,58,59 참조). 다음 장에서 훈련하자.

c. 결론부의 단락 쓰기

결론 쓰기: 경로석의 부정적 의미에 대한 해결

결론의 임무는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다. 이 해결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논리적인 해결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해결과정이 논리적이고, 이 과정을 압축·응집시켜 총결론의 전제로 만드는 것은 글쓰기 전문가도 하기 어려운 기술이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었다.(51~59를 분명히 습득하라). 다음 장에서 훈련하자.

d. 사실과 주장 단락 생성하기

우리는 앞에서 독해·글쓰기 원리를 맛보면서 모든 문장을 넷으로 분류하였다. 주장문, 근거문, 설명문, 기사문이 그것이었다. 이들은 이 순서대로 힘이 세다고 했다. 그 관계는 아래와 같다.

주장문
　　주장/견해
근거문
==========
설명문
　　사실/상태
기사문

주장은 사실이나 상태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래서 가장 힘이 센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주장에 대한 근거도 일종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황이나 상태를 설명하므로 사실을 말하는 기사문보다 설명문이 더 힘이 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단락을 운용하는 법을 습득하자.

문장1세계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제 각기 전해 내려오는 전통사상이 있다.
문장2우리에게도 상부상조의 정신과 더불어 경애의 정신이 전하고 있다.
문장3경애의 정신은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이다.
문장4어느 민족이라도 연소자가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소학의 장유유서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문장5“너 몇 살 먹었어!” 하며 싸우는 민족이 한국인이다.
문장6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법에서는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가 당선된다.

1은 도입문. 2는 1의 초점이동. 3은 2의 구체화. 4는 2의 부연. 5는 4의 예시. 6은 4의 예시2
2가 중심문장이다.

이 단락은 위의 독해·글쓰기 원리에 따라 2가 중심문장이 된다. 그래서 다음 단락에서는 반드시 2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위 **문장1**을 중심내용으로 세우고 그 운용 예를 보자.

문장1이 중심문장인 경우.

문장1이 중심문장이 되려면 이 문장보다 더 힘센 문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이 주장문이라면 뒷받침 문장은 근거문 이하라야 하고, 이 문장이 설명문장이라면 뒷받침 문장은 기사문이라야만 한다. 또 독해·글쓰기 원리의 권력관계를 따를 수밖에 없다. 독해·글쓰기 원리로 단락을 운용해 보자.

주지-상세화의 경우

문장1이 내포하고 있는 속성을 하나씩 들어내는 경우

1. 세계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제 각기 전해 내려오는 전통사상이 있다.
2. A나라는 a사상이 있다.
3. B나라는 b사상이 있다.
4. C나라는 c사상이 있다.

1에 대해 2,3,4는 상세화되었으므로 1이 가장 힘세다.

전제-결론의 경우

문장1의 내용에 대한 전제되는 내용을 앞세운다.

1A나라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서 그 연원이 있었다고 한다. 2이러한 관습은 그 나라의 전통사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3모든 나라들의 이러한 관습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나라의 전통사상으로 굳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이로 볼 때, **1. 세계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제 각기 전해 내려오는 전통사상이 있다.**

1은 화제를 제시한 도입문이고, 2는 1의 초점이동으로 관습을 전통사상과 연결하고 있다. 2가 힘세다. 3은 2의 일반화로 3이 힘세다. 4는 3을 전제로 내린 결론이므로 가장 힘센 중심문장이다.

원인-결과의 경우

문장1이 결과라면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져오자.

1각 민족마다 삶의 유형은 전통사상으로 굳어진다. 2하나의 민족은 나라를 구성하면서 그들의 통치 규범이 필요했고 이 규범이 전통사상으로 굳어진 것이다. 3이로 인해 **세계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제 각기 전해 내려오는 전통사상이 있게 된 것이다.**

1은 도입문이고 2는 1의 구체화이다 1이 힘세다. 3은 1,2의 결과로 가장 힘센 중심문장이다.

문제제기-해결방안의 경우
문장1이 해결방안이라면 문제제기는 무엇일까? **문장1**이 답이니까 질문에 해당하는 글을 앞세우면 된다.

"세계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제 각기 전해 내려오는 전통사상이 있다."가 답이라면 여기에 대한 물음이나 의구심, 혹은 이 문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질문의 경우 - 모든 민족이 제각기 전통사상을 다 가지고 있는가?
의구심의 경우 - 모든 민족이 제각기 전통사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1모든 민족이 제각기 전통사상을 다 지닐 수 있을까? 2전통사상을 지니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3민족마다 역경과 침탈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전통사상은 소실되거나 변질·왜곡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4그러나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지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5왜냐하면, 소실의 경우는 후에 다시 발굴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통사상이란 철저히 사라질 수 없고 어디엔가 그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6또, 변질·왜곡된 경우는 그 밑바닥에 앞선 시대의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다시 복원하거나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7그러므로 **세계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제 각기 전해 내려오는 전통사상이 있기 마련이다.**

1은 문제를 제기한 문장. 2는 남의 답이긴 하지만 답이기 때문에 1보다 힘세다. 3은 2에 대한 구체화이르모 2가 힘세다. 4는 2,3에 대한 반론이므로 무게가 뒤로 이동했다. 5는 4의 근거로 힘없다. 6은 5와 힘이 같은 열거로 근거2가 된다. 7은 결론으로 1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중심문장이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문장을 중심문장으로 교체한다 해도 여기에 대한 뒷받침 문장을 살붙일 수 있다. 다만, 독해·글쓰기 원리를 내재화했을 때 자연스럽게 써내려갈 수 있지만 내재화가 미흡하다면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4) 표현력

표현력에 대한 아래 글에서 그 정확한 개념을 생각해 보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술의 표현력을 정의해 보라.

논술에서 표현력이 담당하는 임무는 논술의 결속성 저해요인을 없앰으로써 글의 내용을 독자에게 잘 전달하는 데 있다. 이 표현력은 입시에서 배점이 가장 적거나 아예 배점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논술 교육자가 무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천만의 일이다. 만약, 논술 시험지를 채점한 경험이 많다면 결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결속성 저해요인을 퇴치하지 못하면 채점자가 수험생의 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글을 오해할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다 읽지도 않고 실격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은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적으로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표현력은 창의력, 논리력, 이해와 분석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티칭가이드
1. 위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1단:논술에서~있다. 2단:그러나~것이다. 3단:따라서~요소이다)
2. 1단, 2단, 3단의 핵심을 도출하여 연결한다.

1단의 핵심은 표현력의 임무(결속성 저해요인을 퇴치하는 일)
2단, 3단의 핵심은 이해·분석력, 창의력, 논증·논리력 못지않게 중요한 논술의 요소)

논술의 표현력이란?[10]

1) 결속성 저해요인

결속성이란 텍스트가 단순한 문장들의 연쇄가 아니라 뜻을 지닌 총체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결속성을 저해한다면 독자(채점자)는 생산된 논술문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글이 단단히 결속되기 위해서는 그 저해요인들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a. 띄어쓰기

① 개념이 하나인가 둘인가.

예) *작은 아버지-키나 덩치가 작은 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의 동생. 삼촌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o)
*한국대학교 사범대학(o)
*한국대학교사범대학(x)-한국대학교에는 다른 단과대학도 많으므로 최소한 두 개념이라야 한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모두 붙여 쓰도 허용되는 이유는 병명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② 조사/어미는 붙인다.

예)-는, -도, -야, -만, -조차, -부터, -처럼, -이나마, -니, -면, -므로, -더라도, -ㄹ망정, -

10) 결속성 저해요인을 퇴치하여 논자의 생각이 채점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며 논술의 다른 요소들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ㄹ수록,

③ 의존명사, 단위명사는 띄운다.

예)	조사/어미	의존명사
	왜 나**만** 가지고 야단이야?	그 일은 할 **만**합니다.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뿐**이야.	그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면 돼.	그가 하는 **대로** 둬라.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를 가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나**만큼**만 하면 돼.	나도 할 **만큼** 했다.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를 못 본 **지** 1년이 되었다.
	나는 밥을 먹는**데** 그는 빵을 먹어.	나는 밥을 먹는 **데** 한 시간이나 걸렸다.

형태는 동일하지만 쓰임이 다르다. 의존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만 한다. 특히 '-지'는 그 뒤에 '시간성'이 올 때만 띄운다.

④ 그 밖의 의존명사(양태의존명사, 단위의존명사)

예) 하는 것. 하는 바. 하는 줄. 하는 이. 할 따름. 할 수. 한 되. 한 말. 한 홉. 한 그루. 한 쌈지. 한 축. 한 개. 한 대. 서 돈. 한 마리. 한 벌. 한 살. 한 자루. 집 한 채. 한 켤레. 한 쾌. 한 죽.

⑤ 두 말을 잇거나 열거할 때 띄운다.

예) 냉장고, 오븐 등. 사장 겸 전무. 청군 대 백군. 열 내지 스물. 사원 및 이사진들.

⑥ 관형어와 명사는 띄운다.(단음절어가 연이으면 붙여 씀도 허용함)

예) 새 집. 큰 집. 어느 곳. 얼마 만 // 그때 그곳=그 때 그 곳. 이말 저말. 한잎 두잎

⑦ 보조용언은 띄운다(붙여 씀도 허용함)

예) 꺼져간다. 막아낸다. 도와드린다. 하는양하다. 하는척하다. 하는체하다. 하는듯하다. 하는둥. 될법하다. 올성싶다.

b. 맞춤법

① 틀리기 쉬운 단어

싹뚝(x) 싹둑(o). 짜집기(x) 짜깁기(o). 신녀성(x) 신여성(o). 실락원(x) 실낙원(o). 국연(x) 국련(o). 가정난(x) 가정란(o). 어린이란(x) 어린이난(o). 명난젓(x) 명란젓(o). 창란젓(x) 창난젓(o). 딱다구리(x) 딱따구리(o). 쌉살하다(x) 쌉쌀하다(o). 냉냉하다(x) 냉랭하다(o). 낭낭하다(x) 낭랑하다(o). 연연생(x) 연년생(o). 넙따랗다(x) 널따랗다(o). 책이요.(x) 책이오.(o). 괴로와(x)괴로워(o). 가까와(x) 가까워(o). 낚시(x) 낚시(o). 오뚜기(x) 오뚝이(o). 깍뚜기(x) 깍두기(o). 반짓고리(x) 반짇고리(o). 이틋날(x) 이튿날(o). 숫가락(x) 숟가락(o). 섯불리(x) 섣불리(o). 선지국(x) 선짓국(o). 등교길(x) 등굣길(o). 배갯닛(x) 빼갯잇(o). 잣수(x) 자수(o). 잇점(x) 이점(o). 칫수(x) 치수(o). 댓가(x) 대가(o). 싯가(x) 시가(o). 홋수(x) 호수(o). 햇쌀(x) 햅쌀(o). 숫개(x)

수캐(o). 암닭(x) 암탉(o). 그렇찮은(x) 그렇잖은(o). 넉넉치않다(x) 넉넉지않다. 생각컨데(x) 생각건대(o). 아뭏튼(x) 아무튼(o). 쉽상이다(x) 십상이다(o). 가만이(x) 가만히(o). 쓸쓸이(x) 쓸쓸히(o). 할껄(x) 할걸(o). 할소냐(x) 할쏘냐(o)

②다른 뜻

걷잡을 수 없다/겉잡아서 하루 걸린다. 고무줄을 늘인다/수출량을 늘린다. 목숨을 바친다/우산을 받친다/쇠뿔에 받힌다/체에 밭친다. 반드시 지켜라/반듯이 놓아라. 차와 차가 부딪쳤다/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편지를 부치다/우표를 붙이다. 밥을 안치다/자리에 앉히다. 생선을 조리다/마음을 졸인다.

c. 문장부호

① 반점(,) -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냄.

ㄱ.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 예)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ㄴ.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예)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ㄷ. 바로 다음 말을 꾸미지 않을 때 예)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냈다.

ㄹ. 도치된 문장일 때 예) 이리 오세요, 어머님.

ㅁ. 가벼운 감탄일 때 예) 아, 깜빡 잊었구나.

ㅂ.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ㅅ. 되풀이를 피할 때 예) 바다에서, 산에서 휴가를 보냈다.

ㅇ.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때

예)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② 가운뎃점 - 열거된 여러 단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ㄱ.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

예)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를 샀다.

ㄴ.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낼 때

예) 3·1 운동. 8·15 광복

ㄷ.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일 때

예)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③ 쌍점(:)

ㄱ. 내포되는 종류를 들 때 예) 문방사우:붓, 먹, 벼루, 종이

ㄴ.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 예) 일시:2014년 9월 1일

ㄷ.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 예) 정약용:목민심서, 경세유표

ㄹ. 시와 분, 장과 절 따위를 구분할 때 예) 오전 10:20/ 요한 3:16(요한복음 3장 16절)

④ 빗금(/)

ㄱ.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일 때

예) 착한 사람/악한 사람

ㄴ. 분수를 나타낼 때
예) 3/4 분기

⑤ 작은따옴표(‘ ’)
ㄱ. 마음 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드러낼 때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⑥ 줄표(-)
ㄱ.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낼 때
예) 그 신동은 네 살에-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벌써 시를 지었다.
ㄴ. 앞의 말을 정정 또는 변명하는 말이 어어질 때
예) 어머님께 말했다가-아니, 말씀드렸다가-꾸중만 들었다.

d. 표준어 규정

틀리기 쉬운 단어

새벽녘(x)새벽녘(o). 떨어먹다(x) 털어먹다(o). 한 간(x) 한 칸(o). 윗칸(o) 윗간(o). 수퀑(x) 수꿩(o). 숫소(x) 수소(o). 숫개(x) 수캐. 수양(x) 숫양(o). 수염소(o) 숫염소(o). 숫기와(x) 수키와(o). 아지랭이(x) 아지랑이(o). 유기쟁이(x) 유기장이(o). 멋쟁이(x) 멋쟁이(o). 미류나무(x) 미루나무(o) 주착(x) 주책(o). 웃도리(x) 윗도리(o). 윗짝(x)/웃짝(x) 위짝(o). 웃어른(x) 웃어른(o). 윗옷(x) 웃옷(o). 또아리(x) 똬리(o). 서툴다(x) 서투르다(o). 꼭둑각시(x) 꼭두각시(o). 네(x)/넉(x)/너(o)-돈/말/푼. 너(x)/네(x)/넉(o)-냥/되/섬/자. 애달프다(x) 애달프다(o). 백말(x) 흰말(o) 백마(o). 멍게(o) 우렁쉥이(o). 애순(o) 어린순(o). 다시마 자반(x) 부각(o). 새벽별(x) 샛별(o). 쪽밤(x) 쌍동밤(o). 주책이다(x) 주책없다(o). 가엾다(o) 가엽다(o). 넝쿨(x) 넝쿨(o) 덩굴(o). -뜨리다(o) -트리다(o). 모쪼록(o) 아무쪼록(o). 바른(o) 오른(o). 부침개(o) 지짐(o) 부침(o). 서럽다(o) 섧다(o). 어림잡다(o) 어림치다(o). 여쭈다(o) 여쭙다(o). 한턱쏘다(x) 한턱내다(o) 한턱하다(o).

e. 지시어, 문접속어, 필수성분 생략

① 지시어 : 앞선 문장의 한 성분을 잘못 지시하거나 애매한 경우

예1) 인간은 경제를 아는 동물이기 때문에 <u>이</u> 속에서의 발전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
- 지시어 ‘이’가 ‘인간’, ‘경제’, ‘동물’ 가운데 무엇을 지시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시어를 쓰지 않고 앞의 요소를 반복해 써야 한다.

예2) 우리는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경험하며 <u>그것</u>으로 인해 재화를 창출한다.
- 지시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시장경제’인지 ‘경쟁’인지 ‘경험’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시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② 문접속어 : 접속어의 오용으로 문맥이 어색할 경우

예)나는 거기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왜 그들이 나를 가로 막는지 모르겠다.

- ‘그러나’를 ‘그런데’로 고쳐야 한다.

③ 필수성분 생략 : 문장의 필수성분을 생략함으로써 어색한 경우

예) 우리는 습관을 삶의 패턴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자아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 ‘바꾸려는’의 목적어가 무엇인지 애매하므로 필수성분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④ 주어 생략의 경우

예) 대개 그는 신을 부정하고 그녀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한다.**

- ‘연구한다’의 주어, 목적어가 모두 생략되어 연구 대상이 ‘신’인지 ‘영혼의 존재’인지, 아니면 이 둘 다인지 모호하며 ‘연구한다’의 주어가‘그는’인지, ‘그녀는’인지 모호하다.

⑤ 필수 부사어 생략의 경우

예) 너는 **풀려 나갈** 수 없어.

- ‘풀려 나갈’에 대한 부사어 ‘여기서’, ‘그물에서’, ‘함정에서’ 등과 같은 부사어가 있어야 뜻이 명확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풀려 나가는지 ‘문제가’ 풀려나가는지 모호하다.

⑥ 목적어 생략의 경우

예) 아무리 골똘히 **궁리해도** 방법이 없다.

- 여기서는 ‘궁리해도’의 목적어가 없어 ‘무엇을’ 궁리하는지 모호하다.

f. 호응관계

① 주어와 술어의 호응관계 : 문장의 주어와 술어가 호응되지 못할 경우

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우경화가 어리석기 **때문이다.**

- ‘어리석기 때문이다’는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목적어와 술어의 호응관계 : 문장의 목적어와 술어가 호응되지 못할 경우

예) 나는 악기와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위로했다.

- ‘부르며’는 목적어 ‘악기’와 호응되지 않는다.

③ 부사어와 술어의 호응관계 : 상관 부사어와 술어가 호응되지 못할 경우

예) **아마** 그가 와서 나는 맞는 것이 **분명하다.**

- ‘아마’는 비확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명하다’와 호응되지 못하므로 ‘분명하다’를 ‘맞을 것이다’

예) 그는 **절대로** 가야만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 부사어 ‘절대로’ 뒤에는 부정어가 와야 한다.

예) 그는 **전혀** 달가운 기색이 만연했다.

- 부사어 ‘전혀’ 뒤에는 부정어가 와야 한다.

g. 중의문과 중복 표현

① 중의문

예)아버지는 어머니와 딸을 찾아 나섰다.

- 아버지와 어머니 둘이서 딸을 찾아 나선 뜻과 아버지 혼자 어머니와 딸 두 사람을 찾아 나선 뜻이 다 들어 있다.

예) 아내는 영화를 나보다 더 좋아한다.

- 아내가 영화보기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지, 내가 영화보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아내가 영화보기를 더 좋아한다는 말인지 모호하다.

예) 온순한 그의 아버지가 웃었다.

- '그'와 '아버지' 둘 중 누가 온순한지 모호하다.

예) 영희가 그 남자를 때린 것이 아니다.

-'영희가'에 초점을 두면 '다른 누가' 때린 것이 되고, '그 남자'에 초점을 두면 '다른 누구를' 때린 것이 되며, '때린 것은'에 초점을 두면 '밀었던지, 꼬집던지 다른 방법으로 때렸다'는 말이 된다.

② 중복 표현

예)역전 앞에서 만나자.

- '역전'에는 앞의 뜻을 지닌 '전'이 이미 있으므로 '역 앞에서 만나자'고 해야 한다.

예)몸을 보신하는 음식

-'보신'에 이미 몸을 뜻하는 '신'이 있으므로 '몸을 보하는'으로 해야 한다.

예) 옥상 위에 널어라.

- 위를 뜻하는 한자어 '상'이 중복되었으므로 '옥상에 널어라'가 옳다.

예) 평소 때보다 못하다.

- '평소'와 '때'가 중복되므로 '평소보다'가 옳다.

예) 과반수가 넘는 찬성으로 그 법안은 통화되었다.

- 한자어 '과'는 '넘다'는 뜻으로 중복되었으므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혹은'절반이 넘는 찬성으로'로 고쳐야 한다.

④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

예) **처갓집**에 다녀오리다.

- '처가에 다녀오리다'가 원칙이나, 집과 중복된 한자어 '가'를 허용한다.

예) 이 **야밤**에 무슨 짓이냐?

- '이 밤에 ~'가 원칙이나, 밤을 뜻하는 한자어 '야'를 허용한다.

h. 높임 표현/피동 표현/ 시제 표현

① 잘못된 높임 표현

예) 아버지께서는 눈이 참 좋다.

-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서술어도 존칭을 나타내야 하므로 '좋으시다'가 옳다.

예) 선생님은 어린 따님이 계신다.

- '어린 따님'은 존칭의 대상이 아니라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계신다'를 '있으시다'로 고쳐야 한다.

예)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방금 들어오셨어요.

-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를 낮주어야 하므로 '아버지가 방금 들어왔어요'로 고쳐야 한다.

② 어색한 피동 표현

예) 계약서에 씌여진 글을 읽어 봐라.

'쓰다'의 피동형은 '써지다'이므로 '써진'으로 고쳐야 한다.

예) 나에 의해 다려진 옷이 깔끔하다.

- 무정물이 주어로 나서면 어색하다. '내가 다린 옷이~'로 고쳐야 한다.

③ 잘못된 시제 표현

예) 내일, 다시 오지 못한 곳으로 떠날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한다.

- '내일'이 있으므로 '못한'은 '못할'로 고쳐야 한다.

i. 번역투의 문장 표현

① 일본어식 번역투

예) 그런 말은 거절에 **다름 아니다.**

- '~ 거절이다' 혹은 '거절이나 다름없다'로 고쳐야 한다.

예) 그는 장기적인 교육을 **요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 '교육이 필요하다는'으로 고쳐야 한다.

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고쳐야 한다.

예) 그는 영웅의 이름에 값한다.

- '그는 영웅이라 불릴 만하다'로 고쳐야 한다.

② 영어식 번역투

예) 그녀**로부터** 온 소식은 거짓이 아니었다.

- '그녀에게서 온 ~'으로 고쳐야 한다.

예) 이 공정은 상당한 주의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 '주의력이 필요한~'으로 고쳐야 한다.

예) 태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태교는 매우 중요하다.

예) 우리는 임원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를 열었다'로 고쳐야 한다.

예) 놀이기구는 올바른 성격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

- '성격을 형성하는 데에~'로 고쳐야 한다.

j (보)조사의 쓰임이 바르지 못한 경우

① 조사의 잘못 쓰임

예) 모든 일을 여성**의** 능력**의** 부족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 중복된 속격조사는 하날 줄이거나 문장을 바꿔야 한다. '능력 부족'으로 고쳐야 한다.

예) **몸 보하는** 약이라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 '몸**을**~'로 고쳐야 한다.
예)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자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 '일치하다'가 자동사이므로 '의견이'로 고쳐야 한다.

② 보조사의 잘못 쓰임
예)모두가 그러한데 너**부터** 그럴 것이냐?
- 보조사 '부터'는 시간, 공간의 시작을 말하고 '조차'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 더해짐을 뜻한다.
예) 이것**마저** 먹으면 먹을 것이 남는다.
- 보조사 '마저'는 하나 남은 마지막을 뜻하므로 '남지 않는다'로 해야 한다.
예) 다 알고 있는데, 나**도** 몰랐다.
- 보조사 '도'는 추가의 뜻이므로 다른 것과 대조되거나 선택, 지시적인 '는'을 써야 한다.

③ 평행 구조의 잘못 쓰임
힘이 동등한 열거의 뜻을 지닌 어사들은 그 앞과 뒤가 동등한 자격의 어구가 와야 한다.
예) 여성 인력은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일일 뿐 아니라** 여성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평형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일이 될 뿐 아니라'로 고쳐야 한다.
예) 그녀는 예쁘**고** 잘 잔다.
- 접속어 '와, 과, 며, 고'는 앞 뒤가 서로 동등한 자격을 원한다. '예쁘-'는 형용사이고 '자-'는 동사이다. 따라서, '얼굴이 예쁘고 잠을 잘 잔다'고 해야 맞다.

이 밖에도 중요한 결속성 저해요인들이 있는데 '단락 의식의 결여, 주장에 대한 불충분한 정당화, 적절하지 못한 결론, 주제에 부적절한 내용, 논리적 모순, 문제론적 문제 등은 다음 장인 훈련편에서 해결될 문제이다.

총괄 요지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 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이해·분석력
내재적 언어능력인 독해·글쓰기 원리가 언어과학적으로 실재함을 보았고, 이것은 글이 이어지는 원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글이 이어지는 원리는 곧 읽고 쓰는 원리와 같았다. 따라서 이 원리로 제시문을 정밀하게 독해하고 논술문을 자연스럽게 써내려 갈 수 있음을 보았다. 또, 문장들과 단락들이 이 원리로 요약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앞에서 이해한 이해·분석력을 훈련하게 될 것이다.

2. 창의력
우리는 논제(총결론)에 대한 창의적 근거를 다면적 발상에 의해 마련하였다. 이 다면적 발상들 가운데 가장 합당한 것이 창의적 근거가 되어 정답이 있는 논술의 바탕이 되었다. 여

기서는 앞에서 이해한 창의력을 훈련하게 될 것이다.

3. 논증·논리력
창의적 사고에서 나온 창의적 근거는 제시문을 통한 질문법으로 논거들을 생산하였다. 이 논거들은 내재적 언어논리에 의해 매우 논리적으로 배열됨을 보았다. 또, 각 논거를 한 단락의 중심문장으로 대체했을 때, 이 중심문장을 질문법으로 설명하여 뒷받침 문장들이 생산되었고 이것이 전체 논술문이 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논증·논리력을 훈련하게 될 것이다.

4. 표현력
여기서는 논술문을 써내려가면서 결속성 저해요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 저해요인들을 드러내었다. 여기서는 표현력을 훈련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해·분석력, 창의력, 논리력, 표현력 등은 논술문을 작성할 때에 동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능력들을 동시적으로 훈련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해·분석력은 제시문 독해와 요약에 관여하므로 따로 훈련하게 될 것이고 통합 훈련에서는 글쓰기를 포함한 창의력, 논리력을 훈련하게 될 것이다.

원리 훈련편

첫째 마당 : 제시문 독해

첫째 마당의 목표는 독해·글쓰기 원리의 훈련을 통해 제시문 독해와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 독해·글쓰기 원리에 따라 글이 이어지는 원리를 습득하고 제시문을 분석·종합하면서, 각 단락의 중심문장과 전체 주제문을 찾는 훈련을 하게 된다.

※ 다음은 필자에게 배운 학생이 분석한 2014 수능 지문 분석이다. 이 정도면

읽기와 쓰기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가][1]베토벤의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2]그 까닭은 음악 a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b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3]연주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a'으뜸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b'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4]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나][1]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2]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3]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Wien)의 a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b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c천재성 담론에 반영되었다.

[다][1]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2]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3]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단서를 원치 않았다. [4]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라][1]또한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앎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2]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3]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주장하였다. [4]요컨대 당시의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마][1]더욱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 데 한몫했다. [2]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3]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 [4]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았다.

<2014 수능 국어영역>

****문장 간의 관계****

[가]

[1]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서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실을 말하니 들러리입니다.

[2]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을 말하면서 [2]는 그 이유를 제시하며 주장하므로 힘이 셉니다.

[3]은 [2]의 한 예시를 들면서 구체화합니다.

[4]는 [3]의 결과이지만 [2]의 구체화인 [3]의 결과이므로 힘없다. 로 (단순한 소재를 가공해서 성취한 복잡성=창작 방식의 전형)과 보충(교향곡의 길이)입니다.

[2]가 힘셉니다. 그래서 중심내용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걸작으로 평가되는 까닭'이 됩니다.

[나]
[1]은 '작품의 내적인 원리 이외에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주류가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2]는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 독일 민족의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암묵적 염원을 볼 필요가 있다는 [2]는 해결과정입니다.

[3]은 달라진 빈의 청중의 음악관,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으로 [2]의 해결입니다. [3]이 힘셉니다. 앞으로 [3]a, b c에 대해 애기해야만 합니다. 중심내용은 '베토벤 교향곡이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한 세 가지 요인'이 됩니다

[다]
[1]은 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는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면서 [나][3]a '빈의 청중의 음악관'을 진술합니다
.
[2]에서 순수 기악은 오직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이라면서 [1]의 '순수 기악'을 구체화합니다.

[3]~[4]는 [1]의 이유가 됩니다. 원래는 [3]~[4]가 대상에 대한 이유로 힘세어야 하지만 [1]이 [라], [마]와 열거의 짝이 되어 더 힘셉니다.

[라]
[1]에서 '또한'은 열거를 말하므로 [다] [1]과 짝이 됩니다.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앎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고 하면서 [나][3]b의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을 구체화합니다. 열거의 짝으로 뒤를 볼 것 없이 힘셉니다.

[2]에서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으로 [1]의 구체화입니다.

[3]은 [2]의 예시로 들러리입니다.

[4]는 [3]의 결론이지만 [1]이 열거의 짝이므로 힘이 더 셉니다.

[마]
[1]은 '더욱이'로 열거되면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데 한몫했다'고 하여 [나][3]의 천재성 담론'을 구체화합니다. [다][1], [라][1]과 짝이 되어 힘이 셉니다.

[2]에서 당대의 천재상은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라 하여). [1]의 천재성 담론'을 구체화합니다.
[3]은 [2]의 예시이며 [4]는 [3]의 결론이지만 열거의 짝인 [1]보다 힘이 약합니다.

****단락간의 관계****
[가]는 베토벤의 교향곡이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유를 '창작기법의 탁월함'에 두었습니다.
[나]에서는 그 이유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빈(Wien)의 a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b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c천재성 담론에 두었습니다. [가]를 전제로 [나]의 '그렇다면'으로 결론을 내렸으니 [나]가 [가]보다 힘이 셉니다.
[다], [라], [마]는 [나]의 요소들 각각을 열거하여 구체화했으므로 [나]가 가장 힘이 셉니다.

따라서 주제는 단락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나]의 [3]을 바탕으로 내야 하므로 **'베토벤 교향곡이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한 요인'**이 됩니다.

어떤가? 여기까지가 필자에게 배운 학생이 분석한 지문이다.
지금까지는 중심문장, 주제문을 찾는 원리가 없었지만, 여기서처럼 문장과 단락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잠재된 힘의 역학관계로 읽으면 모든 정보가 구슬 꿰듯 엮여 중심문장, 주제문을 정확히 찾을 수 있다. 만약, 이 원리들을 다 깨치고 훈련하여 내재화하면 연결 관계가 저절로 인식되어 **속독이 되면서도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원리에 따라 글이 자연스럽게 써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문의 골수를 빼내어 좋은 요약 글을 생산할 수 있다.**

제시문1

(가) 1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그 싸움은 이해(利害)에서 생긴다. 2이해가 절실할수록 당파는 심해지고, 이해가 오랠수록 당파는 굳어진다. 3이것은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4어떻게 하면 이것을 밝힐 수 있을까?

*** 단락분석**
1은 주장 문장이고, 2는 1을 부연한 주장 문장이니까 힘없다. 3은 2에 대해 보충하는 주장 문장이라 더욱 힘없다. 4는 질문하는 '문제 제기' 문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소원리가 있다. 단락 내에서 '해결 과정/방안' 문장이 없는 한, '문제 제기' 문장을 이길 수 있는 문장은 없다. '문제 제기' 문장이나 단락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 방안' 문장이나 단락이 있어야만 한다. 물론, 문제제기만을 목적으로 한 글은 결론이 문제제기로 끝나야 하지만, 이것조차도 결국은 미완의 글일 뿐이다.
4가 중심문장이다.

(나) 1이제 열 사람이 모두 굶주리다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게 되었다고 하자. 2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다. 3말이 불손하다고 꾸짖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싸움이 말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다. 4다른 날에 또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행동이 거칠다고 힐난하다가 마침내 어떤 사람이 울화통을 터뜨리고 여럿이 이에 시끌벅적하게 가세한다. 5시작은 대수롭지 않으나 마지막에는 크게 된다.

*** 단락분석**
1은 상황 설정을 한 도입문이고 2는 사건 제시의 설명문이다. 3은 2의 주지가 되어 '싸움의 원인'을 나타내고, 4는 3과 열거가 되어 원인2가 되었다. 3과 힘세기가 같다. 5는 3, 4를 보충하는 설명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2와 3, 4 가운데 어느 것을 밑줄 그어야 할지 망설여지게 될 것이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화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화제는 '이야기 거리'인데, **화제가 곧 주제인 경우와 화제를 통해 주제를 말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단락에선 문장2(화제-밥그릇 싸움)를 통해 문장3(중심내용-싸움의 원인)을 말하려고 했다. 그래서 2보다 3이 힘센데 4는 3과 열거되어 힘이 같다.

한 단락에 밑줄 그이는 문장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교되거나 열거되거나 대조가 될 때는 힘이 같기 때문에 둘 이상의 문장이 밑줄 그인다. 이들을 하나로 융합한 것이 중심내용이다. 그래서 힘센 3, 4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면,
'밥그릇 싸움의 원인'이 중심 내용이 된다.

(다) 1이것을 또 길에서 살펴보면 이러하다. 2오던 자가 어깨를 건드리면 가던 자가 싸움을 건다. 3말이 불손하고, 태도가 사나우며, 행동이 거칠다 하여 그 하는 말은 끝이 없으나 떳떳하게 성내는 것이 아닌 것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싸울 때와 똑같다.

*** 단락분석**
1은 상황 설정을 한 도입문이고, 2는 사건 제시의 구체적 설명이다. 3은 2의 주지가 되어 '싸움의 원인'을 말하고 있다. 2'길거리 싸움'를 통해 3'싸움의 원인'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붕당을 길거리 싸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3이 중심문장이다.

(라) 1이로써 보면 싸움이 밥 때문이지 말이나 태도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이해의 연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는 그 잘못됨을 고칠 수가 없는 법이다. 3가령 오늘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싸웠으되 내일에는 각기 밥상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 하여 싸우게 되었던 원인을 없앤다면 한때 헐뜯고 꾸짖던 앙금이 저절로 가라앉아 다시 싸우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단락분석**
1의 '이로써 보면'은 결론의 접속어인데, 다음 단락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라)가 중간 결론인지 최종 결론인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라)가 중간 결론이라면 (마)가 최종 결론이 되어야 하고, (라)가 최종 결론이라면 (마)는 부연 마무리 단락이거나 (라)와 대등한 결론2가 될 수밖에 없다. 경우의 수는 이것 밖에는 없다. 2는 1의 부연이고 3은 2의 예시이다.
1이 중심문장이다.

(마) 1나라의 붕당도 이와 다를 게 무엇인가. 2처음에는 한 사람의 선하고 악한 것, 또는 한 가지의 일의 경중(輕重)에 대해서 마음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입으로 비방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3이런 것은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 4그러나 조정에서는 서로 피 튀기면 싸우고, 조정 밖에서는 으르렁거리는 것이 마치 군령(軍令)도 없이 사람마다 싸움터에서 후퇴할 줄 모르는 것과 같이 하니 도대체 왜 그러한가?

***단락분석**

1의 지시어 '이'는 앞서 말한 '밥그릇, 길거리 싸움'의 (나), (다) 단락을 말한다. 2는 1의 상술이니까 힘없고, 3은 2를 부연하니 더욱 힘없다. 4는 3의 결론 문장. 즉, '3이니까 4하지 마라'는 것이다. 결론이라면 힘이 센 문장일 텐데 4가 밑줄 그이는가? 그렇지 않다. 문장의 층위상, 힘이 세어 봤자 2와 같은 수준이다. 따라서
1이 중심문장이다.

문제제기가 **'어떻게 하면 붕당의 본질을 밝힐 수 있을까?'**였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대답으로 나와야만 한다. 문장1에서 **'나라의 붕당도 이-밥그릇, 길거리 싸움-와 꼭 같다'**고 답하고 있다. 가장 힘이 센 주제문이다. 나머지 문장들은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다.

****단락 간의 관계****

(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 (다)는 해결 과정으로서 단락이 열거되어 (가)에서 말한 '붕당의 원인'을 밥그릇, 길거리 싸움에 비유했다. (라)에서 (나), (다)를 전제로 중간 결론을 내리고 (마)에서 (라)를 전제로 전체 결론을 내렸다. (마)가 주제 단락이다.

[단락 간의 관계]로 단락의 핵심내용을 정리한다.

***** 단락의 핵심내용 *****

(가), 어떻게 하면 붕당을 밝힐 수 있을까?
(나), 밥그릇 싸움을 보면 싸움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났다며 시끌벅적 가세하여 큰 싸움이 되고,
(다), 또 길거리 싸움도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다.
(라), 이처럼 밥그릇·길거리 싸움을 보면, 싸움이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마), 나라의 붕당도 바로 이 밥그릇·길거리 싸움과 같다.

제시문2

(가)1'역사'를 의미하는 영어의 '히스토리(history)'와 독일의 '게쉬히테(Geschichte)'의 어의를 살펴보면 역사의 기본 개념을 잘 알 수 있다. 2히스토리는 '탐구된 역사 사실', 즉 서술된 역사를 뜻하고, 게쉬히테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 즉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의미한다. 3a이와 같이 역사라는 개념에는 과거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3b과거 사실에 관해 탐구하여 서술된 역사가 있다.

***단락 분석**

1은 '역사의 기본 개념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한 주장 문장이다. 2는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고, 3ab는 결론으로 중심문장이다.

(나) 1독일어의 게쉬히테가 본래 의미하는 역사는 과거에 엄연히 존재했던 사실로서 서술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는 것이며, 2영어의 히스토리가 본래 의미하는 역사는 서술하는 사람의 입장과 인식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3a과거에 발생한 사실은 바로 역사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며, 3b탐구하여 서술하는 것은 역사학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4역사학의 과제는 4a구체적인 과거 사실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또 4b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서술하느냐 하는 것이다.

***단락 분석**

1은 (가)3a를 부연 설명하고 있으니 힘없고, 2는 (가)3b를 부연 설명하고 있으니 힘없기는 마찬가지다. (나)3a는 1의 결론이고, 3b는 2의 결론이니까 3a, b는 힘센 문장이다. 4a는 3a의 결론이고 4b는 3b의 결론이다. 따라서 문장4는 최종 결론으로 가장 힘센 중심문장이다.

(다) 1그런데 역사가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실들을 직접 관찰할 수 없다. 2역사가는 또한 모든 일을 경험할 수도 없다. 3그러므로 역사가가 연구할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사료(史料)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4그리고 우리가 얻어 볼 수 있는 사료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서술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다. 5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되도록 사실에 접근하여 체계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5a사료 비판을 비롯한 역사적 연구법과 더불어, 5b역사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단락 분석**

1은 주장 문장이고, 2의 '또한'은 1과의 열거 관계니까 힘이 같다. 3의 '그러므로'는 결론의 접속어이다. 1, 2를 전제로 결론3을 냈으니까 현재로서는 가장 힘이 세다. 4의 '그리고'는 3과 열거 관계니까 결론2가 되어 3과 힘이 같다. 비록 3, 4가 1, 2에 대해서는 힘이 센 결론 문장이지만 5에 대해서는 전제 문장이 된다. 5a의 '~ 더불어, ~지만' 등은 부사어로 들러리다. 5b가 핵심이니까 중심내용은 **'역사철학의 필요성'**이 돼야만 한다. 이렇게 앞 문장들을 전제로 새 정보- 역사철학의 필요성 -를 말했다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만 한다.

(라) 1역사 철학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역사가가 과거 사실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점을 철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2a역사학이 개개의 역사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2b역사 철학은 역사적 현상을 총괄적이고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단락 분석**

1은 '역사 철학은 ~있다'면서 앞 단락의 새 정보를 진술했다. 2a는 종속절로 들러리이다. 2b는 '역사 철학은 ~있다'가 되니까 주절로 핵심 내용이고, 1문장과 열거되었다. 이 둘은 힘이 같으니까 둘 다 밑줄을 그어서, 이 둘을 다 만족시키는 하나의 중심내용을 만들어 내면 '역사 철학의 개념' 이 된다.

(마) 1역사학과 역사 철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2즉, 역사 철학은 역사학의 구체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그 이론을 체계화할 수 있고, 역사학은 역사 철학의 체계적인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격조 놓은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3역사학과 역사 철학은 이와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위대한 역사가들은 구체적인 역사 연구자인 동시에 이론적인 역사 철학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단락 분석**
1은 주장 문장이고, 2의 '곧, 즉, 다시 말해서, 달리 말하자면, 쉬운 말로, 바꾸어 말해서,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등'은 부연 상술의 연결어니까 들러리이다. 그래서 주장1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3은 2의 보충이다. 그래서 1이 중심문장이며 중심내용은 '역사학과 역사 철학의 관계'가 된다.

****단락 간의 관계****
(가)에서 논지를 주장하고 (나)는 (가)의 상술을 전제로 결론을 내려다. (다)는 (나)를 전제로 결론을 내렸고 (라)는 (다)의 구체화 단락이다. (마)는 (라), (다)를 전제로 전체 결론을 맺고 있다.

[단락 간의 관계]로 단락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단락의 핵심 내용*****
(가) 역사에는 두 가지 역사의 개념, 즉 사실의 역사와 서술의 역사가 있다.
(나) 사실의 역사는 역사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서술하느냐는 것과, 서술의 역사는 역사학의 인식론으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는 것이 역사학의 과제이다.
(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되도록 사실에 접근하여 체계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료 비판을 비롯한 역사적 연구법과 함께, 역사 철학이 필요하다.
(라) 역사철학은 역사가의 연구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역사적 현상의 총괄적이고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다.
(마) 이로 볼 때 역사학과 역사 철학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제시문3

(가) 1사람들은 좋은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쉽게 감동을 느끼지만 과학 이론을 대하면 복잡한 논리와 딱딱한 언어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느낀다. 2그래서 흔히 과학자는 논리적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 진리를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예술가는 직관적 영감에 의

존해서 주관적인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3a 이러한 통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3b돌이켜보면 많은 과학상의 발견들은 직관적 영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단락 분석**

1은 사실을 말하는 기사문이라서 힘이 없고, 2의 '그래서~'는 1의 결과이니까 1보다 힘이 더 세다. 3a에서 2의 내용을 수용해서 3b와 같이 새로운 정보를 주장했으므로 가장 힘이 세다. 이것은 앞으로 3b에 대해 얘기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3b가 '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정도로 끝났다면 2를 부연한 것이 되어 2가 가장 힘센 문장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 글은 2에 대해 얘기해야만 한다. 그래서 3a의 '이러한 통념'과 같이 앞의 정보를 요약·수용하는 말은 주의해야 한다.

(나) 1아인슈타인은 누구에게나 절대적 진리로 간주되었던 시간과 공간의 불변성을 뒤엎고,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깨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직관적 영감에서 나온 것으로, 과학의 발견에서 직관적 영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 준다. 3그 밖에도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하였고, 갈릴레이는 피사의 대사원에서 기도하던 중 천장에서 흔들리는 램프를 보고 진자(振子)의 원리를 발견하였다. 4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 안에서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 유레카!"를 외치며 집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5이렇게 볼 때 과학의 발견이 '1퍼센트의 영감과 99퍼센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과학의 발견에서 직관적 영감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단락 분석**

1을 보고 '난데없이 웬 아인슈타인?'이라고 묻지 말고, 앞 단락의 핵심 문장인 (가)3b와의연결선 상에서 읽어야 한다. 모든 비문학 글은 앞 단락의 중심 문장이 바탕이 되어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나)1은 (가)3b와 관련된 예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2는 1에 대한 결론이다. 3의 '그 밖에도'는 열거의 연결어인데, 1과의 열거라면 예시 2가 되어야 하고, 2와의 열거라면 결론 2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3은 뉴턴과 갈릴레이의 예가 되니까 1과 열거되었다. 4는 아르키메데스의 예가 되어 예시 3이다. 그래서 1, 3, 4는 예시가 열거되어 힘이 같다. 2는 1의 결론이지만 열거의 짝에 밀려 힘이 없다. 5의 '이렇게 볼 때'는 결론의 연결어이다. 예시 1, 3, 4를 전제로 5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5가 중심문장이다.

(다) 1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사람들은 대체로 과학자들이 논리적 분석과 추리를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고 소박하게 믿고 있지만, 상당 부분 그 발견의 밑거름은 직관적 영감이고, 그것은 흔히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나온다. 3대부분의 위대한 과학자들은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발견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논리가 아니라 의식의 심연으로부터 솟아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적 감각에 이끌린다고 고백한다. 4문제와 오랜 씨름을 한 끝에 마음의 긴장과 갈등이 절정에 다다른 순간, 새로운 비전이 환상처럼 나타난다는 것이다. 5과학의 발견은 이러한 영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언어로 기술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단락 분석**

1은 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답(해결 방안)이 나와야만 한다. 답은 그 단락 내에서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어느 단락 내에서 나올 수도 있다. 다음 단락에서 대답하면 단락 무게의 이동은 당연한 일이다. 2가 바로 질문 1에 대한 대답을 하니까 1보다 힘이 세다. 3은 2에서 말한 '~ 직관적 영감이고~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나온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자들의 경험을 들어 상술하고 있으니까 힘이 없고, 4도 과학자들의 경험을 열거해서 말한 상술 2이니까 3과 힘이 같다. 5는 3, 4를 보충했으니 더욱 들러리이다.

(라) 1한편, 화가나 조각가, 그리고 건축가들도 때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창조하기위해서 사물을 분석하고 해부한다. 2그리스 시대의 황금 분할은 최대의 미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학적 비례의 법칙을 치밀하게 분석한 것이고, 아름다운 음악도 엄밀하게 계산된 소리의 배열과 공명 현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3예술가들의 분석적 시각은 "자연의 모든 형상은 구, 원통, 원추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세잔의 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4그런가 하면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 나가는 물결을 연상했던 시인은 소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시적 상상력 속에 용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5이와 같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 직관적인 영감에 의존하는가 하면, 예술가들은 과학적 지식과 관점을 도입하여 예술품을 창작해 내기도 한다.

***단락 분석**

1의 연결어 '한편'은 열거, 비교, 대조, 대립, 전환, 반론, 보충 등에 두루 쓰인다. 복잡할 것 같지만 바로 이어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1을 보니 '예술가들의 과학 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가), (나), (다)의 '과학자들의 예술적 영감 이용'과 대립되는 얘기이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 2는 '그리스'의 예를 들었고, 3은 '세잔'의 예를 들었으니까 예시 2가 되어 2와 힘이 같다. 4는 '김광균'의 예이니까 예시 3이다. 아마 김광균의 시 <외인촌>에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를 소리의 음파가 분수에서 퍼지는 물줄기로 연상한 것 같다. 그래서 2, 3, 4는 힘이 같으면서 ①을 보필하고 있다. ⑤에서 '이와 같이'가 나와서 1과 2, 3, 4를 전제로 결론을 맺고 있으니, 5가 중심문장이다.

(마) 1이러한 과학과 예술의 창조적 행위는 모두 인간의 본능인 탐구 욕구에서 출발한다.2 탐구 욕구는 과학자와 예술가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여 새로운 상상을 자극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3물론 과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연의 신비를 벗기는 것이지만, 그 동기는 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외경(畏敬)과 경이의 감정이다. 4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신비에 경이를 느낄 수 없는 사람, 감동하지 않는 사람, 명상에 잠길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던 것이다. 5이렇게 보면 ⓐ과학과 예술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상이한 정신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6마치 무지개 색깔이 서로 겹쳐 들어가면서 연속되는 것과 같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과학과 예술은 중첩되어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단락 분석**

1은 도입문이고, 2는 1의 연쇄이므로 초점이 이동했다. 3은 2를 보충한 설명문이라서 더욱

힘이 없다. 4의 '그래서~'는 여기서 결론이나 결과가 아니라, 3의 '과학의 동기는 자연에 대한 외경과 경이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끌어온 것이다. 3에 대한 부연 보충이 된다. 5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론의 문장이다. 그래서 1~4는 5의 전제 문장이고, 5는 결론 문장이 되어 가장 힘이 세다. 6은 5에 대해 비유하면서 근거를 대고 있으니까 5의 들러리이다. 그러니까 5가 중심문장이다.

****단락 간의 관계****

(가)에서 논지를 주장하고, (나)는 예시를 통해 (가)를 부연하고 있다. (다)는 **'상당 부분 그 발견의 밑거름은 직관적 영감이고, 그것은 흔히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나온다'고 하며** (나)를 부연했다. 결국, (가), (나), (다)는 '과학자의 예술적 영감 이용'을 말하고, (라)는 '예술가의 과학적 이론 이용'을 말한다. (라)는 앞 단락들과 대조되어 힘이 같다. (마)는 (가), (나), (다)와 (라) 이 두 부류를 전제로 내린 결론이다. 그래서 (마)가 주제 단락이다.

*****단락의 핵심 내용*****

(가) 많은 과학상의 발견들은 직관적 영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나) 아인슈타인, 뉴턴, 아르키메데스의 예에서도 보듯이 '과학적 발견이 1% 영감, 99%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직관적 영감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영감이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나온다.
(라) 이와 같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 직관적인 영감에 의존하는가 하면, 예술가들은 과학적 지식과 관점을 도입하여 예술품을 창작해 내기도 한다.
(마) 이렇게 보면 과학과 예술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정신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제시문4

(가) 1사회 복지는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이념을 전제로 한다. 2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방법론은 바로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달하였다. 3사회 복지 방법론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로 구성되는데, 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4하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개별화하여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미시적 방법론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집합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사회 차원에서 그 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거시적 방법론이다. 5a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찾아내어 그 원인을 진단해 냄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며, 5b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 이나 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단락 분석

1은 사회 복지의 '개념'을 제시했다. 2는 1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들러리 문장이다. 3에서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 이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1, 3에 밑

줄이 그어져서 이 단락의 중심 내용은 '사회 복지의 개념과 두 가지 방법론'이 된다. 4a, 4b는 3을 구체화했으니까 들러리 문장이다. 5a는 4a를, 5b는 4b를 상술했으니까 더욱 들러리 문장이다.

(나) 1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은 사회 체제와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다. 2미시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사회 체제 자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따라서 사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그다지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3이들은 단지 사회 체제 안에서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 곧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임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단락 분석

1에서 '차이'를 주장했으니 다음에서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2는 1을 구체화하면서 주장했다. 3의 '이들은'이 지시하는 것은2의 '미시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은'과 같다. 동일한 주어가 되면서 또 1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서 2 , 3은 열거되면서 1을 구체화한 셈이다. 그러나 1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화된 2, 3이중심 문장이 된 것은 대조의 짝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다)1 이다. 그래서 구체화된 2, 3의 힘이 세게 된 것이다. 이 둘을 다 만족시키는 말을 만들면 '미시적 방법론자들의 복지관'이 된다.

(다) 1반면에 거시적 방법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체제 자체를 매우 중요시한다. 2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사회 체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따라서, 이들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세력들 간의 역동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이며, 정부의 정책 과정 및 그것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관련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회 복지 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단락 분석

(다)1에서 '반면에'는 대조의 연결어이다. 상대되는 대조 단락 (나)와 힘이 같다. 2는 1의 근거를 대고 있다. 3은 2의 결론이지만 1과 내용이 같은 상술이 된다. 이 '따라서'가 1, 2의 결론이라고 해도 대조의 짝이 되는 주장 문장인 1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1에 밑줄쫙! 또 이 문장의 짝은 (나)의 열거된 문장 2, 3이니까, (나)1은 (나)2, 3에게 밀려나게 된 것이다. 물론, (나)와 (다)가 하나의 단락이라면 (나)1이 (나)2, 3과 (다)1을 대표하는, 가장 힘이 센 문장이 된다.

(라) 1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 복지 방법론은 미시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2현재의 사회 복지 방법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 대부분은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정신의학, 집단역학 등 인접 학문으로부터 빌려 온 많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돕는 데 필요한 실천 지향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로 이룩된 것들이다. 3그 결과 사회 복지 방법론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문제들을 다루거나,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데에는 일단 성공을 하였다. 4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과 사회 체제의 관계, 사회적 약자의 욕구가 정책을 반영하는 과정, 그리고 사회 체제에 내재해 있

는 편향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단락 분석

(라)[1]은 역사적 사실을 말한 기사문이고, [2]는 [1]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문이라서 힘이 없다. [3]은 [1], [2]를 전제로 한 결과로서 현재까지 가장 힘이 센 문장이다. [1], [2], [3]은 현실에 대한 기사문으로서 한 덩어리의 가족 문장이다. [4]는 새 정보로 문제적 상황을 지적한 최초의 주장 문장이니까 가장 힘이 세다. 앞에서 이야기한 '미시적 방법론의 편향성 문제'를 짚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4]에 밑줄 쫙!

(마) 1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발전된 사회 복지 방법론은 단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유지 및 보전'이라는 사회 복지 본래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2]왜냐하면, 기형적으로 발전된 이러한 사회 복지 방법론만 가지고서는 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어렵고,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락 분석

(마)[1]에서는 (라)의 중심 문장, 즉 문제적 상황을 비판하고 [2]에서 그 근거를 대고 있다. 그래서 [1]에 밑줄 쫙!

(바) 1우리는 사회 복지 방법론의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미시적인 사회 복지 방법론만으로는 사회 복지의 이념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 사회 정책을 입안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3]결국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을 양축으로 하는 사회 복지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사회 복지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앞당겨 달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단락 분석

1은 (라)4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마)의 비판을 통해 변증법적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문장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세다. 변증법은 보통 '정반합'의 논리라고 하는데, 여기선 미시적 방법이라는 한 쪽으로 치우쳐 발전된 현실을 비판하고, 거시적 방법과의 조화를 주장했으니까 양쪽을 모두 수용하여 변증법적 결론을 낸 것이다. [2]는 [1]에 대한 근거 문장이라서 힘이 없다. [3]에서 '결국'으로 마지막 결론을 냈다. [1]을 일반화시키면서 결론을 낸 것이다. 따라서, [3]이 가장 힘세다.(바)가 주제 단락이므로, 주제는 '효과적인 사회복지 방법론'이 된다.

****단락 간의 관계****

(가) 화제를 제시하면서 '두 가지 사회복지 방법론'이 열거될 것을 예고했다.
(나) 그 중 하나인 '미시적 방법론'을 구체화해 주고,
(다) 대조된 짝으로 '거시적 방법론'을 구체화하면서,

(라) 미시적 방법론 중심의 편향된 문제를 상식선에서 말했다.
(마) 이를 비판하면서 단락의 힘이 뒤로 넘어왔다.
(바) '바람직한 사회복지 방법론'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바)가 주제 단락이다.

*****단락의 핵심 내용*****
(가)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에는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 등 두 가지가 있다.
(나) 미시적 방법론자들은 사회 체제나 사회 정책의 입안, 집행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다) 반면에 거시적 방법론자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체제를 매우 중요시한다.
(라)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 복지 방법론은 미시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발전함으로써 편향성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마) 한쪽으로 치우쳐 발전된 사회 복지 방법론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유지 및 보존'이라는 사회 복지 본래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바) 따라서 이 두 방법론을 모두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만 사회복지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요약******
(가)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보존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론은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이다. (나)미시적 방법론자들은 사회 체제 자체와는 별개여서 사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고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곧 자신의 임상 분야를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다)반면에 거시적 방법론자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체제 자체를 매우 중요시함으로써 사회 세력들의 활동과 정부의 정책 과정, 또 이를 둘러싼 정책 환경과 관련하여 사회 복지 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라)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 복지 방법론은 미시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발전함으로써 편향적이 되었고 (마)'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유지 및 보존'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바)따라서 사회복지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앞당겨 실현하려면 이 두 방법론을 모두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제시문5

(가) ①기술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모든 생활환경이 합리화되고 있다. ②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여러 민족들과 국가들의 거리를 매우 단축시켰다. ③이러한 발달된 교통과 통신은 국가들 사이의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술 문명의 주도 아래서 글자 그대로 인류의 문화를 창조하게 했다. ④그래서 오늘날 발전된 산업사회에서는 인간의 의·식·주 의 생활 방식뿐만이 아니라 의식 구조와 행동 양식이 거의 세계적으로 획일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단락 분석

(가)[1]은 현재의 사실을 말한 기사문이라서 힘이 없다. [2]의 앞부분에 있는 '특히'는 주의해야한다. 서론부에서 한정하면 화제나 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초점이 이동했으니까 힘이 세다. [3]의 '이러한 발달된 교통과 통신은'은 앞 문장을 수용했으니까, 뒤따르는정보가 앞 문장의 부연이면 앞 문장이 힘이 세고, 새 정보라면 뒷 문장이 힘이 세다. 여기서는 새 정보가 나왔으므로, 또 정보 무게가 뒤로 이동했다. [4]의 '그래서'는 결과·결론의 연결어이다. 내용을 확인해보면 [3]의 결과로 야기되는 문제적 상황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4]가 가장 힘센 문장이다. 밑줄 쫙! 그렇다면 (가)는 '의식 구조와 행동 양식의 획일화'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글은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 되어야만 한다.

(나) [1]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산업사회는 인간의 운명에 미칠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 준다. [2]하나는 인간 해방의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조종의 가능성이다.

단락 분석

(나)[1]에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산업사회는'이라고 하면서 앞 단락을 수용했다. 여기에 이어지는 정보가 (가)[4]를 부연 설명하거나 보충하면 앞 단락의 중심 문장인 (가)[4]가 화제가 되어 이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정보가 가 [4]가 아닌 새 정보를 주장하면, 그 문장이 힘센 문장이 된다. 여기서는 (가)[4]의 결과 (나)[1]이 되었으니까 (나)[1]이 힘세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운명에 미칠 두 가지 가능성, 즉 인간 해방과 인간 조종의 가능성'이란 새 정보를 결과로 주장했으니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만 하고, 진술 방법은 대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특별한 의도가 없는 한 순서대로 나와야 한다. (가), (나)는 서론부로서 한 단락으로 합쳐도 되는 단락이다.

(다) [1]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생산력이 높아지면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굶주림과 헐벗음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2]그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노동 시간이 짧아지면 더 많은 여가가 우리의 생활에 주어지게 되고 이러한 여가의 이용을 통해서 인간은 정서적으로 메마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3]그리고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의 지배 체제가 협동 체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 주게 되었다는 점이다. [4]즉, 어떤 개인이나 계층이 다른 계층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서로 협동함으로써 질서를 이룩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락 분석

(다)[1]에서 '인간 해방의 가능성'이 (나)에서 약속한 대로 바로 나온다. [2]의 '그뿐만 아니라'는열거의 연결어이니까 [1]과 힘이 같다. [3]의 '그리고' 역시 열거의 연결어이니까 [1], [2], [3]이 모두 힘이 같다. 즉, [1], [2], [3]에서 '인간 해방의 가능성'이 열거된 것이다. [4]는 [3]의 상술인 설명문이다. 그러니까 이 단락의 중심 내용은 '인간 해방의 가능성'이 된다. 다음은 '인간조종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나올 차례이다. (다)가 보조 단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라) [1]산업사회에서는 인간 해방과는 반대되는 인간 조종의 가능성이 인간의 운명을 위협

할 수도 있다. 2발달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향상된 생산력이 인간을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이용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조종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발달된 과학과 기술이 인간 조종에 이용되면 여기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거의 완벽한 형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

단락 분석

(라)1에서 '인간 조종의 가능성'이 (나)1, 2, 3의 대조 짝이 되어 나왔다. 그래서, 1이 힘세다. 2는 1에 대한 근거 문장이라서 들러리이고, 3은 2의 상술이니까 더욱 들러리이다. 1 에 밑줄 쫙!

(마) 1a산업사회는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1b그 반면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도 한다. 2a그 희망도 매우 절실하지만, 2b그 위협도 매우 현실적이다. 3a그러므로 모든 국가 사회가 산업화를 위해서 앞을 다투지 않을 수 없지만, 3b인간의 운명을 위해서 그 위협에 대처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4오늘의 기술 문명의 시대에 있어서는 산업화를 포기하면 노예화를 자초하는 것이 된다. 5그러나 그 반면에 산업사회에서의 인간 조종이 더욱 발전하면 인간은 자율적인 인격을 상실하고 로봇처럼 되어 갈 것이며, 6이로 인해서 산업사회의 무한한 잠재력이 파괴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7인간의 자율적인 인격과 이성에 의해서 규제되지 못하면 과학과 기술의 능력은 우리의 희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8그러므로 우리는 사회 윤리적인 지각을 위해서 산업사회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단락 분석

(마)1a는 '인간 해방의 가능성', 1b는 '인간 조종의 가능성'을 말한다. 2a는 1a를, 2b는 1b를 상술한 설명문이다. 3은 1, 2를 전제로 내린 결론이니까 힘이 세다. 4는 3a의 근거를 말했고, 5는 3b의 원인적 근거를 말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3이 가장 힘세다. 6은 5의 결과로서, 3b의 근거가 된다. 7은 또, 6에 대한 근거 문장이다. 계속 근거가 이어지고 있다. 8은 6에 대한 결론이자 전체 결론이다. 새 정보를 주장하면서 가장 힘센 문장이 되었다. 8에 밑줄 쫙! 따라서, 이 글은 '산업사회의 특징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중심 내용이 된다.

****단락 간의 관계****

(가)에서 화제를 불러와 문제적 상황을 제시했는데,
(나)는 (가)의 화제를 흡수하여 새 화제를 결과로 제시했다. 무게 이동을 했다.
(다)에서 (나)의 화제에 대한 구체화 1이 진술되고,
(라)에서 구체화 2가 진술되어 (다), (라)는 대조 관계가 되어 힘이 같다.
(마)는 (다), (라)를 전제로 최종 결론을 낸 주제 단락이다.

*****단락의 핵심 내용*****

(가) 발달된 통신과 교통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산업사회는 인간의 의식 구조와 생활 양식이 세계적으로 획일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나)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산업사회는 인간의 운명에 미칠 두 가지 가능성, 즉 인간 해 방의 가능성과 인간 조종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은 굶주림과 헐벗음, 정서적 메마름, 지배의 관계 등에서 해방될 수 있다.
(라) 반면에 발달된 과학 기술이 인간을 조종할 가능성이 있다.
(마) 이와 같이 산업사회는 빛과 그림자, 이 두 현상이 있으므로 산업사회의 본질을 이런 측 면에서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체 요약******

(가) 오늘날 산업사회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의 고유성을 잃고 세계적으로 획일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 산업사회 또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간 운명에 미칠 인간해방 가능성과 인간조정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다)인간해방 가능성으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굶주림과 헐벗음, 정서의 메마름, 지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라) 이와는 달리 오히려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조정하는 가능성이 있다. (마) 이처럼 산업사회는 인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빛과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그림자의 양면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산업사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6

(가) 1'인간의 역사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많은 역사학자,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대답을 내놓았다. 2a종말론적인 해답도 있었고, 발전론적인 해답도 있어 왔지만, 2b지금까지의 인류 사회가 지향해 온 역사의 길은 인간들이 살기에 한층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었으며, 2c그것은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단락 분석

(가)1은 사실을 말한 기사문이라서 힘이 없다. 2a는 부사어로 들러리이고 2b, 2c는 주장이다. 그래서 밑줄 쫙! 글쓴이는 앞으로 '인류 사회가 지향해 온 역사의 길'에 대해 글을 쓸 것이고, 그 길은 '한층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며 '일정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나) 1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모든 인간들이 정치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2헤겔은 '역사의 발전이란 곧 자유의 확대 과정'이라고 말했다. 3역사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인간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4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귀족들만이 정치적 자유를 누렸지만, 근대 사회로 오면서 그 정치적 자유가 시민 계급에서 확대되었으며, 현대사회로 오면서는 노동자·농민층에게까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단락 분석

(나)1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면'은 이 단락이 구체화 단락임을 직접 말해주고 있다.

단락 첫머리의 연결어는 앞 단락 중심 문장과의 관계라는 점을 명심하자. 그렇다면, (나)가 '인류가 지향해온 역사의 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어야만 한다. 만약 이보다 더 힘센 문장이 다른 정보를 가지고 나오면, 이 힘센 문장과 앞 단락이 관계를 맺게 된다.
②는 전문가를 끌어와 ①을 보조했고, ③은 ①을 부연 상술한 설명문이다. ①과 내용이 같으므로 힘이 없다. ④는 ③에 대한 예시문이므로 더욱 힘이 없다. 그러니까 ①에 밑줄 쫙!

(다) ①인류 사회의 이상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더 확대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인류 역사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②그리고 인간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은 곧 스스로 권력을 가지는 길이며,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인간이 많아지는 길, 즉 국민 주권주의가 확대되는 길이 곧 역사가 나아가는 길인 것이다.

단락 분석
(다)①은 (나)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부연 상술 문장이다. ②의 '그리고'는 열거의 연결어이니까 ②는 부연 상술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단락은 (나)의 부연 단락이 된다.

(라) ①또한 인간의 역사는 경제적으로 빈부의 차가 적어지는 길로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②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는 소수의 귀족층만이 재부(財富)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피지배층의 생활은 처참했다. ③조선 사회에도 양반 지배층의 생활과 일반 농민의 생활 사이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있었다. ④근대 사회로 내려오면서 자산 계급과 서민 대중 사이의 생활양식은 어느 정도 접근해 갔으나, 소유한 재부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⑤그러나 재부의 편중을 억제하고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는 운동과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역사의 길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⑥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락 분석
(라)①의 '또한'은 열거의 연결어이다. 주장하면서 열거의 짝이 되면 볼 것도 없이 중심 문장이다. 밑줄 쫙! 단락 간의 관계가 열거인 것은 사실인데 어느 단락과 열거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 만약 (다)와 열거되었다면 (라)는 부연 ②단락이 되어 (나)①의 내용을 말해 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열거의 짝이 되는 (라)①은 (다)의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라)①의 열거 짝은 (나)①이 되는 것이다. ②, ③, ④에서는 ①에 대한 반대의 예시문들이 열거되었다. 이 문장들을 다시 뒤집어야 ①로 돌아가니까 반론의 연결어가 나중에 반드시 나올 것이다. ⑤는 이 세 문장을 받아서 '그러나'로 반전함과 동시에 ①을 상술한다. ⑥은 보충의 들러리이다.

(마) ①인간의 역사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 계급적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②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그렇게 엄격했던 신분제가 폐지되어 종이나 하인 등 신분 제도에 의해 차별받던 계층이 없어졌고, 일제 식민 시대까지도 엄존했던 백정 계급이 없어진 지도 오래되었다.

단락 분석

(마)[1]에서 '또'를 앞으로 끌어내면 또 열거가 된다. [1]은 열거되면서 짝이 되니까 바로 밑줄 쫙! [2]는 [1]의 예시문으로 들러리 문장이다.

(바) [1]인간의 역사는 또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유, 즉 사상의 자유가 꾸준히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2]종교적 독단 때문에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것이라는 믿음이 강요되기도 하였고, 정치적 권력의 강제에 의하여 역사란 지배자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가르쳐지기도 했지만, 아무리 무서운 권력이나 뿌리 깊은 인습도 인간의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를 계속 억누를 수는 없었다.

단락 분석

(바)[1]에서 '또'가 나왔으니, 또 열거일 것이다. 당연히 [1]에 밑줄 쫙! [2]는 [1]의 예시문이라서들러리이다.

(사) [1]수천 년에 걸친 인간 역사를 분석해 온 학자들은 역사의 변화에 일정한 방향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2]그 방향은 크게 말해서 인간이 정치적인 속박을 벗어나는 길, 경제적인 불평등을 극복하는 길,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 사상의 자유를 넓혀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단락 분석

(사)[1]은 가장 힘없는 기사문이고, [2]는 앞 단락들을 요약 제시하고 있다. 이런 단락을 마무리 단락이라고 한다. 흔히 이런 경우에 결론 단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서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결론 단락이라면 이 단락은 힘이 센 단락이 되어 주제 단락이 되어 버린다. 이런 단락은 마무리 단락이라고 하는 게 옳다.

****단락 간의 관계****

(가)에서 논제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고,
(나)는 (가)를 뒷받침하는 구체화 단락이라서 힘이 없다.
(다)는 (나)에 대한 부연 단락이 되어 (나)를 상술해 주었다. 더욱 힘이 없다.
(라)는 (나)와 열거되어 힘이 같다.
(마)는 (라)와 열거되어 힘이 같다.
(바)는 (마)와 열거되어 힘이 같다.
(사)는 (나), (라), (마),(바)를 요약·강조한 마무리 단락이다.

주제 단락은 엄연히 가 단락이다. 왜 그럴까? '인류가 지향해 온 역사의 길'을 (나), (라), (마),(바)가 구체화했다. (다)는 (나)의 들러리이니까 더 힘이 없다. 그러니까 (가)가 가장 힘이
세고,(사)는 (나)~(바)를 요약·강조한 '마무리 단락'이라고 해야 한다.

*****단락의 핵심 내용*****

(가) 인류 사회가 지향해 온 역사의 길은 인간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었으며 일정

하 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류의 역사는 모든 인간들이 정치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 향으로 발전해 왔다.
(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길, 국민 주권주의가 확대되는 길이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 인 것이다.
(라) 또한 역사는 경제적 빈부의 차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 갈 것이다.
(마) 또 인간의 역사는 인간 간의 계급적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바) 인간의 역사는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유, 즉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 다.
(사)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는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 사상의 자유를 넓혀 가는 길로 발전해 왔고 그렇게 나아 갈 것이다.

******전체 요약******

(가) 인간은 역사이 길을 걸어오면서 더 진보한 사회를 만드는 길을 지향했고, 또 이 길을 일정하게 이루어 왔다고 생각된다. (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역사는 지배와 피지배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발전해 왔고 (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길, 국민 주권주의가 확대되는 길로 나아갔다. (라) 또, 인간의 역사는 경제적 빈부가 구성원간에 점점 좁혀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이 방향은 지속될 것이며 (마) 계층 간의 계급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바) 그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사)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들의 간격을 좁히는 길로 발전해 왔고, 사상의 자유는 넓히는 길로 발전해 왔다. 또 미래에도 그렇게 발전되어 갈 것이다.

제시문7

(가) [1]정보 사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규정되고 있다. [2]한 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지식·정보 산업을 포함하는 3차 산업의 취업 인구가 50퍼센트를 넘을 때, 그 나라는 정보 사회로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3]한편, 땅이 제일 중요했던 농경사회, 자원·자본이 제일 중요한 산업 사회를 거쳐, 지식·정보가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가 정보 사회라는 관점도 있다. [4]㉠이렇게 본다면, 정보 사회란 지식·정보의 생산, 처리, 저장, 전달이 가장 활발하고 중요해진 사회를 말한다.

단락 분석

(가)[1]은 도입의 주장 문장이다. '정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라 했으니까 적어도 셋 이상의 관점이 있는 것이다. 관점이 둘이면 '두 가지'라고 한다. [2]는 '여러 관점'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으니까 [1]을 구체화한 것이다. 힘이 없다. [3]의 '한편'은 열거, 전환, 반론, 보충, 대조 등 여러 곳에 쓰는 접속어인데 여기서는 '~라는 관점도 있다'고 하면서 [2]에 열거 되고 있다. [2]와 힘이 같다. [4]의 '이렇게 본다면'은 결론의 접속어이다. 즉, [2], [3]을 전제로한 결론을 주장한 문장이니까 가장 힘이 세다. 그런데, [1]처럼 '여러 가지'라고 하면 셋

이상을 말한다고 했는데 [2], [3]둘밖에 없다. 둘이면 분명 '두 가지'로 명시해 줘야 하는데.

(나) [1]그러나 아마도 가장 구체적으로 정보 사회를 개념화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기기(機器), 특히 텔레비전, 전화, 전신, 컴퓨터, 인공위성 등과 같은 정보 테크놀로지의 출현과 보급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2]㉡이런 의미에서 정보 사회는 전자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단락 분석

(나)[1]에서 그 세 번째가 나온다. 필자는 이런 '그러나'를 열거의 접속어로 분류한다. 아무도 이렇게 분류하지 않지만 실제로 열거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2]는 보충 설명이다. 그래서 (가), (나)단락은 열거되어 그 힘이 형식상 같으면서 '정보 사회의 개념'을 화제로 꺼낸 것이다. 그런데 왜 글쓴이는 가 단락에 이 단락을 넣지 않고 따로 단락을 구분했을까? 그 이유는 글쓴이가 나 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걸 중심으로 개념 지으려는 것이다. [1]이 중심 문장이다.

(다) [1]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모든 발명에는 다음의 조건들이 수반되는 것을 알고 있다. [2]첫째, 그것은 어떤 인간적 필요를 충족하는 이기(利器)이기에 발명되고 존재하며, 둘째, 그러나 거의 언제나 그것이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어떤 위협 또는 위해로 의구심을 받게 되고, 셋째, 그것은 싫건 좋건 인간 생활, 사회 체제에 크고 작은 변화를 유발하는 영향을 끼치게 되며, 넷째, '문화 진화'에서 쓸모가 있는 한, 사람은 그것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락 분석

(다)[1]에서 난데없이 '모든 발명품에 수반되는 조건'을 말하면서 [2]에서는 '첫째~넷째'를 구체화해 주었다. [2]가 중심 문장이다. 이들이 '정보 사회의 여러 가지 관점'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그럴까? 다음을 보자.

(라) [1]정보 테크놀로지에도 이런 네 가지, 즉 ⓐ그것이 가지는 이점, ⓑ몰고 오는 위협, ⓒ끼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 이 글에서는 텔레비전, 전화, 컴퓨터, 인공위성 등 ㉢정보 테크놀로지가 인간생활에 주는 의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단락 분석

(라)[1]에서는 '정보 테크놀로지에도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정보의 초점이 넘어왔다. <독해원리 3>에 해당된다. 즉, (다)의 '모든 발명품에 수반되는 조건'에서 범위가 더 좁은 '정보 테크놀로지에 수반되는 조건'으로 정보의 초점이 뒤로 넘어간 것이다. 단락의 무게가 이동했다. 이제 왜 (다)가 나왔는지 알겠는가? 글쓴이는 라 를 말하기 위해 다 를 끌고 왔을 뿐이다. 그런데, [2]에서는 새 논제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글은 새 논제인 '정보 테크놀로지가 인간생활에 주는 의의'가 나와야만 한다. 그것도 '분석하고자' 했으니까 정보가 열거되어 전개되리란 걸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가 중심 문장이다.

그런데 (가), (나)에서 말한 '정보화 사회의 개념을 규정짓겠다'는 논제가 왜 갑자기 '정보

테크 놀로지가 인간 생활에 주는 의의'라는 논제로 바뀌었을까? 이는 (가)의 관점보다 (나)의 관점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라)2가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첫째 단락을 늘 염두에 두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분석한다고 했으니 다음 정보는 열거되어 나타날 것이다.

(마) 1우선 정보 기기는 인간을 잡노동에서 해방시켜 준다. 2즉, '편하게' 해 준다. 3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하여 쇼핑과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4그러한 '해방'은 인간에게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좀 더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 좀 더 심오한 지적 모험, 좀 더 수준 높은 예술적 탐구에 젖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준다.

단락 분석

(마)1은 '우선'만 봐도 열거인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주장 문장이니 바로 바로 밑줄을 그어야 한다. 그러니깐 중심 문장인 (라)2를 구체화하는 단락이다.

2는 1에 대한 상술이다. '곧, 즉, 다시 말해서, 달리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바꾸어 말해서, 른 말로' 등은 부연 상술하는 연결어이다. 그래서, 2는 힘이 없다. 3은 2를 구체화했으니 더욱 힘없는 들러리이다. 4는 3의 결론이지만 힘은 2와 동급이니까 힘이 없다.

(바) 1편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정보 기기는 우리의 경험 세계를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사회의 제약에서도 벗어나게 해 준다. 2a미국에 가 있는 아들에게 거는 장거리 전화는 태평양이라는 공간을 초월하게 해 주고, 2b그것은 배 또는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야 할 시간을 초월하게 해 준다. 3컴퓨터는 수 년 걸릴 계산을 그야말로 전광석화(電光石火)의 속도로 해치운다. 4또, 세계 유명 도서관의 모든 정보를 자기 방의 퍼스널 컴퓨터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다락 분석

(바)1은 '뿐만 아니라'로 열거되면서 주장 문장이니 볼 것도 없이 바로 밑줄 쫙! 1ⓐ, ⓑ, ⓒ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고 했으니 이를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만 한다. 그래서 2a는 1ⓑ를, 2b는 1ⓐ를 상술해 주었다. 그런데 왜 1ⓒ는 상술해 주지 않을까? 글쓴이가 실수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 처럼 다음 단락에서 따로 열거하려는 것일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사) 1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제약에서 벗어나게 한다. 2텔레비전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헤쳐 놓는다. 3가난한 사람들도 텔레비전을 통하여 재벌들의 생활을 볼 수 있다. 4또, 남자에겐 여자의 신비가 깨지고, 여자에겐 남자의 신비가 허물어진다. 5이 모든 정보는 텔레비전 이전에는 여러 사회 집단이 각기의 벽 속에 깊이 감추어 두고 있던 것들이다. 6또 하나의 의미에서 개방 사회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단락 분석

(사)1의 '그뿐만 아니라'도 열거의 접속어이다. 게다가 앞 단락에 대한 주장의 짝이니까 바로 밑줄 그어야 한다. 2는 1에서 '여러 가지 제약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한 것을 어떻게

벗어나는 건지 말해 줘야만 한다. 그래서 [2]는 [1]에 대한 구체화이다. [3]은 [2]에서 '공공연하게 헤쳐 놓는다'고 한 것을 어떻게 헤쳐 놓는 건지 말해 줘야 한다. 그래서 [3]은 [2]를 또 구체화했다. [4]는 [2]의 구체화 2가 된다. [5]는 [4]의 부연 보충이다. 어떤가? 상술된 내용들이(바) [1c]에서 말한 '사회적 제약'이 맞지 않은가? 앞 단락의 [1c]를 이 단락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6]은 [5]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 [1]이 모든 해방과 개방은 유사(有史)이래 최초로 엄청나게 풍부한 문화 경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 [2]풍부한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터놓고 있는 셈이다. [3]정보 테크놀로지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지적, 예술적, 도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수단과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단락 분석

(아)[1]에서 말한 '이 모든 해방과 개방'을 보면, 앞 단락에서 나온 정보를 지시하는데 그게 뭔지 알겠는가? '해방'은 (마)를, '개방'은(바)를 지시하고 있다. [2]는 [1]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3]은 [5], [2]를 전제로 한 결론이니 밑줄 쫙! 이 (아)[3]은 (나)[1]과 비로소 연결되는 것이다. (나) [1]에서 정보 사회를 개념화해 주는 것이 '정보 테크놀로지의 출현과 보급'이라 했으니 (마)~(사)를 볼 때 (아)[3]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바),(사)와 그 결론 (아)는 결국 (나)의 '정보 테크놀로지의 출현과 보급'을 말해 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가)와 (나)에서 제시한 '정보 사회의 개념'을 아직 결론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따라서 정보 사회란 이러저러한 것을 말한다'는 글쓴이의 결론이 없다는 것이다. 글의 이와 같은 원리를 알면 글의 종결 여부뿐 아니라 그 과정의 모든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

****단락 간의 관계****

(가) 에서 화제를 제시하면서,
(나) 는 (가)에 열거된 화제를 제시해 글쓴이의 초점을 암시했다.
(다)는 (라)를 말하기 위해 끌어온 도입 단락이고,
(라)는 (다)보다 범위가 좁지만 글쓴이가 말하려는 초점이니까 (다)보다 힘이 센 단락이다.
(마),(바),(사)는 열거되어 (라)를 구체화하였고,
(아)에서 열거된 앞 단락들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아)가 주제 단락이다.

*****내용 요지 파악*****

(가) 정보 사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지식·정보의 생산, 처리, 저장, 전달이 가장 활발하고 중요해진 사회를 말한다.
(나) 그러나 가장 구체적인 정보 사회의 개념은 정보 테크놀로지의 출현과 보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발명품에는 이것이 가져오는 이점, 위협, 영향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지혜를 기르게 된다.

(라) 정보 테크놀로지도 이와 같으므로 정보 사회를 규정짓기 위해서는 이들이 인간 생활에 주는 의의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마) 우선 정보 기기는 인간을 잡노동에서 해방시켜 편하게 해 준다.
(바) 그뿐 아니라 정보 기기는 우리의 경험 세계를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사회의 제약에 서 벗어나게 해 준다.
(사) TV도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데 특히 사회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아) 따라서 정보 테크놀로지는 인간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지적, 예술적, 도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수단과 여건을 제공해 준다.

******전체 요약******

(가) 정보 사회의 개념은 지식·정보의 생산, 처리, 저장, 전달이 가장 활발하고 중요해진 사회를 말한다. (나)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 사회의 개념은 정보 테크놀로지의 출현과 보급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발명품은 그 자체가 가져오는 이점, 위협, 영향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지혜를 기르게 된다. (라) 정보 테크놀로지도 이와 같으므로 이것이 인간 생활에 주는 의의를 분석하면 오늘날 정보 사회를 규정지을 수 있다. (마) 정보 기기의 첫째 의의는 인간 대신에 노동을 함으로써 인간을 잡노동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다.(바) 정보 기기의 둘째 의의는 우리의 경험 세계를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사회의 제약에서 묶이지 않게 해 준다는 것이다.(사) 셋째 의의는 TV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특히 사회의 제약에서 자유롭게 해 준다는 것이다. (아) 넷째로 정보 테크놀로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지적, 예술적, 도독적 가치를 제공하는 수단과 여건이 된다는 것이다.

제시문8

(가) ①일반적으로 창조란 무질서 속에서 동일성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②과학은 이러한 창조의 과정에서 자연 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서 객관화시킨다. ③이렇게 객관화된 대상을 소립자 단위로 분석한 후, 다시 종합하는 과정에서 동일성과 보편적 질서를 찾아낸다. ④ 그러나 예술적 창조 활동은 주어진 대상을 객관화하기보다는 거꾸로 그 현상에 몰입하는 것이다. ⑤감정 이입 등의 표현, 대상과 동화되는 과정을 통해, 그 현상의 총체적 본질을 표현해 내는 통합적 작업이라 하겠다.

단락 분석

(가)①은 도입의 기사문이고, ②는 주장문이다. ③은 ②에 대한 구체화로 들러리이다. ④의 '그러나'는 내용으로 보아 ②와의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어이다. ⑤는 ④의 상술이다. 따라서 가족 문장 ①, ②, ③과 ④, ⑤가 둘로 무리를 지어 대조되고 있다. 이 두 부류의 중심 문장인, ②와 ④를 밑줄 그어 뭉쳐내면 중심 내용은 '창조 과정에서의 과학과 예술의 차이'가 된다.

(나) ①이렇게 얻어진 과학적 창조와 예술적 창조의 결과들 또한 매우 다르다. 2a과학적 창조의 경우, 그 결과가 축적되는 반면에, 2b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이런 축적성이 없다. ③

즉 어떤 산에 대해 선행된 연구가 있다면 다음에 다른 과학자는 그 연구를 바탕으로 그 산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그러나 산에 대해 여러 시인이나 화가가 많은 작품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다음의 다른 화가나 시인이 그 산에 대한 앞의 작품에 덧붙여 창작 행위를 할 수 없다. 5과학적 창조의 축적성 때문에 진보나 발전의 측면에서 과학 기술과 예술 간의 차이는 대단히 클 것이다.

단락 분석

(나)1은 (가)에 관련하여 '창조의 결과에 대한 차이'를 말하려 한다. 2a와 2b가 1을 구체화하고 있다. 3은 2a에 대한 상술이고, 4는 2b에 대한 상술이다. 5는 2a를 보충했으니까 과학적 창조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1이 중심 문장이다.

(다) 1요즘도 과학 기술의 경우는 매일매일 새로운 과학 이론과 기술이 소개되고 있다. 2 그리고 대개의 경우, 새로운 이론과 기술은 그 이전의 것에 비해 발전된 모습을 지니고 있고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 3그러나 예술 작품의 경우는 다르다. 4과거의 예술 작품에 비해 현대 예술 작품이 더 새롭거나 뛰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오히려 예술은 이러한 비축적성 때문에 과학 기술이 지니지 못한 가치, 즉 한 세대를 뛰어넘는 가치와 위대성을 지니게 된다는 역설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단락 분석

(다)1은 '과학의 축적성'에 대한 부연 상술 문장이고, 2는 1에 열거되어 '과학의 축적성 2'가 되어 (나)2a를 부연 설명했다. 3에서 예술과의 '차이'를 언급한 뒤, 4, 5에서 '예술의 비
축적성' (나)2b를 부연 상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나)의 부연 단락이 된다. 1, 2와 4, 5가 대조되어 (나)를 부연한 단락이다. 대조된 1,2와 4,5를 뭉쳐내면 중심내용은 '과학의 축적성과 예술의 비축적성의 차이'가 된다.

(라) 1과학적 세계관이 지배하게 되고, 과학 기술의 힘이 계속 축적되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 과학 기술의 영향은 예술 활동 영역에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2물론 기술은 옛날부터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3세계 7대 불가사의의 대부분은 위대한 기술의 산물인 동시에 훌륭한 예술품들이다. 4연극을 공연하던 그리스의 극장은 훌륭한 무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졌으며, 연극의 클라이맥스에서 배우는 기계에 의해 옮겨졌다. 5독일의 전기 용품 제조업자는 건축가 베렌스를 고용하였고, 1919년 바이마르에 큰 영향을 미친 건축 및 디자인 학교의 바우하우스를 창설한 그로피우스는 바로 베렌스의 제자였다. 6그러나 최근의 전자 공학과 컴퓨터의 급속한 발달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영향을 예술에 미치고 있다. 7최근 예술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음악과 예술에 공존하는 비디오 예술이라는 영역은, 이 두 분야의 발달이 가져온 전자 음향과 전자 영상의 진보에 힘입은 것이다.

단락 분석

(라)1은 (나), (다)의 결과가 되어 힘이 센 주장 문장이고, 2는 1을 부연 상술하고 있다. 3, 4, 5는 2의 예시가 되어 더욱 힘이 없다. 6의'그러나~'는 글쓴이의 초점이 '전자 공학과 컴퓨터의 급속한 발달'에 한정되어 1보다 힘이 세다. 7 6의 예시이니까, 6이 중심문장이다.

그러니까 (라)는 (나), (다)의 결과가 되어 힘센 단락이 된 것이다.

(마) ①여기서 우리는 투자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소위 흥행 산업 분야에서, 과학 기술이 예술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만 한다. ②이러한 흥행 산업의 경우, 첨단 과학 기술을 대부분 폭력이나 성과 같은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데에 이용하고자 한다. ③즉, 이들 흥행 산업가들의 관심은 첨단과학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폭력과 성을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④사람들은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한 흥행 산업이 지닌 매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⑤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TV에 점점 더 중독되고 있는 것이다.

단락 분석

(마)①은 주장문인데 (라)①과 같은 내용을 반복 주장했다. 만약 ①이 중심문이라면 이 단락은(라)의 부연 마무리 단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②를 보니 초점이 뒤로 넘어가서 힘이 더 세다. ③은 ②에 대한 상술이고, ④는 ③의 근거 문장이다. ⑤는 ④의 예시이다. 그래서 ②가 중심문장이다.

****단락 간의 관계****

(가)에서 과학과 예술의 '창조 과정'을 대조하고,
(나)에서 이 둘의 '창조 결과'를 대조하면서 앞 단락과는 열거의 관계가 되었다.
(다)에서 (나)를 부연하고,
(라)는 앞 단락들에 대한 결과가 되어 힘센 단락이 되었다.
(마)는 포괄적인 (라)에서 초점 이동이 되어 가장 힘센 단락이 된 것이다. (마)가 주제 단락이다.

*****단락의 핵심 내용*****

(가) 과학은 연구 대상을 객관화하고 이 과정에서 동일성과 보편적 질서를 찾아내는 반면, 예 술은 거꾸로 대상에 몰입하여 그 현상의 총체적 본질을 표현해 낸다.
(나) 또 과학은 창조의 결과가 축적되는 반면에, 예술은 이런 축적성이 없다.
(다) 요즘도 과학 기술의 경우는 새 이론과 기술이 소개되고 그 이전의 것보다 발전된 모습을 지니지만, 예술은 비축적성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라) 전자 공학과 컴퓨터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과학 기술은 예술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마) 과학의 축적된 기술은 흥행 산업에서 폭력이나 성과 같은 부정적인 곳에 이용되는 문제 점이 있다.

******전체 요약******

(가) 과학은 객관적으로 연구 대상의 동일성과 보편적 질서를 탐구하는 반면, 예술은 이와 반대로 주관적으로 대상에 몰입하여 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현상의 총체적 본질을 표현해 낸다. (나) 또 과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조의 결과는 축적되지만, 예술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이런 축적성이 없다. (다) 말하자면 요즘도 과학 기술은 날로 발달하여 새 이론과 기술이 소개되고 앞선 시대의 것보다 더 발전되지만, 예술은 비축적성 때문에 그렇지 못하

다. (라) 이와 같이 과학의 축적성으로 인한 전자 공학과 컴퓨터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과학 기술은 예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마) 따라서 과학의 축적된 기술은 흥행 산업에서 폭력이나 성과 같은 부정적인 곳에 이용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제시문9

(가) ①세상이 갑자기 바뀌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②그것은 사람들의 의식에 관성이 붙어 변화 이후의 새로운 상황이 요구하는 논리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민족 통일 문제도 냉전 종식이라는 상황 변화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느껴진다. ④그래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통일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락 분석

(가)①에서 도입하여 ②는 ①의 원인을 얘기한다. ③은 ①, ②를 전제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④는 ③의 결론 문장이 되어 앞으로 '통일 철학의 정립'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④가 중심문장이다.

(나) ①그 동안의 통일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②힘을 통한 대결을 강조하는 강경론과 경제 논리와 협력을 강조하는 온건론이다. ③강경론은 북한의 대남 전략이 변하지 않았고, 그 체제도 변화를 통해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진단한다. ④ 따라서, 기본적으로 북한에 우세한 국력, 특히 군사력과 동맹 관계를 동원하여 외부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단락 분석

(나)①은 '그동안의 통일 논의'를 말한 도입 문장이라 힘이 없고, ②는 ①을 구체화했으니 당연히 힘이 없다. ③은 강경론이 두고 있는 전제를 말하면서, ④에서 강경론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④가 가장 힘세다.

(다) ①그러나 온건론은 남북한 상호 체제의 인정과 공존 기반 위에서 경제적, 물적,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북한의 경제 개혁을 도와 점진적인 통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힘을 통한 대결과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인한 급작스러운 통일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것을 감당해 낼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단락 분석

(다)①은 (나)④와 대조의 짝이 되니까 힘세다. 온건론의 주장이다. ②는 주장 1에 대한 근거를말하고 있다. 그래서 ①이 중심문장이다. <독해원리 14> (나), (다)는 힘이 같은 단락이다.

(라) ①ⓐ강경론자들은, 온건론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경제 협력을 제공하기 싫어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②경수로 문제에 관한 북한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우리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③특히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은 적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 일본과는 손잡아도 남한하고는 끝까지 손잡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④또한, 경협이 북한 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낮고,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북한 체제의 생존 기간만 연장시켜 분단을 영구화할 뿐이라는 것이다.

단락 분석

(라)[1]은 '강경론자들의 온건론자들에 대한 비판'을 얘기했고, [2]는 [1]에 대한 근거가 된다. 현재까지는 [1]이 세다. [3]은 [2]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4]의 '또한'은 어느 것과 열거되고 있는가? 만약 [4]가 [3]에 열거되었다면, [2]에 대한 구체적 예시 2가 되어 '우리와 상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3]처럼 나와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선 [1]에 대한 내용과 관련됨으로써[2]에 열거된 문장이다. 즉, [4]는 [1]의 근거 2가 된다. 그래서 [1]에 밑줄이 그어져 '강경론자들의 온건론자들에 대한 비판'이 중심 내용이다.

(마) [1]그러나 ⓑ<u>온건론자</u>들은, 강경론자들이 남한의 상대적 국력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포용력 없는 공세적 대결 전략을 추구한다고 반박한다. [2]그러한 공세적 대결 논리는 모험주의적이고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대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경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3]북한은 동독과 달리 국제적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적 압력보다는 내부 요인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 더 크며, 주체사상 못지않게 경제 개혁을 통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도 강하다고 강조한다.

단락 분석

(마)[1]은 (라)[1]과 대조의 짝을 이루니까 뒤를 볼 것도 없이 바로 밑줄 쫙! [2]는 [1]에 대한 근거가 되어 힘이 없고, [3]은 [2]에 대한 부연 보충이라 힘이 없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 '온건론자들의 강경론자들에 대한 비판'이 되어 (라) 단락과 힘이 같다.

(바) [1]강경론의 강점은 아직도 냉전적인 대결 논리에 입각해 대남 전략을 펴는 북한 체제의 속성을 꿰뚫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2]반대로 강경론의 약점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이 냉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더 나아가 공격적 대결 논리가 강조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이 문제를 다시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상승 과정을 깰 수 없다는 점이다.

단락 분석

(바)[1]은 강경론의 장점을 말한 주장 문장이다. (가) 단락을 빼고 처음 나오는 주장문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나), (다), (라), (마)는 강경론과 온건론의 주장을 대조하여 있는 사실을 상식선에서 말했다. 그런데 왜(바)에서 글쓴이가 주장하기 시작할까? 아마 강경론, 온건론 둘 중 어느 하나에 손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둘의 조화를 이루든지 해서 무언가 결정을 내리려는 것이다. [2]는 강경론의 약점을 말했고, [3]은 [2]에 열거되었으니까 약점 2가 된다. [1], [2], [3]을 합쳐 내면 중심 내용은 '강경론의 강점과 약점'인데 약점이 우세하다.

(사) [1]또한, 강경론은 통일과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정을 분리시켜 생각하고 그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킨다는 점이다. [2]양자는 논리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

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3통일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질지 몰라도 통합은 전 사회적 차원의 오랜 준비가 필요하고 그 과정은 상호 의존 논리에 입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락 분석

(사)1의 '또'는 열거의 연결어이며,(바)와 열거의 짝이 되었다. 바로 밑줄 쫙! 문장이 기사문으로 보이지만 강경론자들의 약점을 글쓴이가 주장하는 문장이다. 당연히 약점 3이 되어야만 한다. 2는 1에 대해 부연 보충한 문장이고, 3은 2의 근거 문장이다. 그래서 1이 중심 문장이다.

(아) 1최근 정부가 '세계화'를 국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이러한 통일 논리와 관련해 볼 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2세계화란 국가 단위를 초월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통합의 논리에 적극 적응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3따라서, 세계화가 국정 운영의 철학이 되었다는 것은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 상호 의존의 해법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닐 것이다. 4실제로 최근 통일 부총리는 '극단적인 긴장 상태'에 돌입하지 않는 한, 남북 경협을 적극 추진하는 기본 방침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아)1은 도입의 주장문이다. 2는 1에 대한 평설인 주지문이니까 뒤로 정보 무게가 이동했다. 3은 2에 대한 결론이자 최종 결론이다. 주제문이 되는 것이다. 4는 3의 예증이다. 그래서 3이 중심문장이다.

****단락 간의 관계****

(가)에서 '통일 철학의 정립의 중요성'을 논제로 끌어내서,
(나)에서 기존에 있었던 두 가지 논의를 구체화했다. (가)의 구체화 단락이다.
(다)는 (가)의 구체화인 동시에 (나)와 대조되어 힘이 같다.
(라)는 (나)에 대해 발전된 진술을 하고,
(마)는 (다)에 대해 발전된 진술을 하는 동시에 (라)와 대조되어 힘이 같다.
(바)는 (나), (라)에 대해 발전된 진술을 하고,
(사)는 (다), (마)에 대해 발전된 진술을 하면서(바)와 열거되었다.
(아)는(바),(사)를 전제로 내린 결론 단락이다. (아)가 가장 힘센 주제 단락이다.

*****단락의 중심문장*****

(가)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통일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기본적으로 북한에 우세한 국력, 특히 군사력과 동맹 관계를 동원하여 외부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온건론은 남북한 상호 체제의 인정과 공존 기반 위에서 경제적, 물적,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북한의 경제 개혁을 도와 점진적인 통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강경론자들은, 온건론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경제 협력을 제공하기 싫어하는 것이 문제

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마) 그러나 ⓑ온건론자들은, 강경론자들이 남한의 상대적 국력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포용력 없는 공세적 대결 전략을 추구한다고 반박한다.
(바) 강경론의 강점은 아직도 냉전적인 대결 논리에 입각해 대남 전략을 펴는 북한 체제의 속성을 꿰뚫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반대로 강경론의 약점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이 냉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 강경론은 통일과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정을 분리시켜 생각하고 그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을 지킨다는 점이다.
(아) 세계화가 국정 운영의 철학이 되었다는 것은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 상호 의존의 해법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닐 것이다.

****전체 요약****
(가) 민족 통일 문제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통일 철학을 정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나) 그동안 통일 논의는 두 방향이었는데, 힘의 대결을 강조하는 강경론은 군사력, 동맹 관계 등의 국력을 동원하여 외부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이에 반해 온건론은 남북 상호 체제의 안정과 공존 기반 위에서 경제적, 물적, 인적 교류를 통해 점진적인 통일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 강경론자들은 온건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북한에 경제 협력을 제공하기 싫어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마) 그 반면 온건론자들은 강경론자들이 남한의 국력, 군사력이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작전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반박한다.(바) 이러한 기존 논의를 볼 때 강경론자들의 강점은 북한 체제의 속성을 꿰뚫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약점은 냉전이 사라진 세계 분위기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ㄷ. 또 그들이 북한에 대해 공격적 대결 논리를 해결방안으로 삼는다면 문제를 다시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더해간다는 점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사) 또한 강경론의 약점은 통일과 그 이후의 통합 과정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여 그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아) 이와 같은 통일 논리로 볼 때, 최근 정부가 세계화를 국정 운영의 철학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남북의 통일 문제를 경제적 상호 의존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제시문10

(가) 1 '왜' 라는 말로 시작되는 물음은 다음의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겨냥한다. 2 그 하나는 어떤 것의 2a원인이 무엇인가 함이요, 다른 하나는 어떤 사태를 만든 2b**이유 내지 목적, 의도**가 무엇인가 함이다.

단락 분석
(가)1은 주장문이고 2는 1의 구체화 문장이다. 1에서 화제를 제시하면서 Ⓐ로 말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2a, 2b 둘 중 하나에 관심 있는 것이다. 1이 중심문장이다.

(나) [1] 앞의 원인을 겨냥하는 '왜' 라는 질문의 예는 너무나 허다하다. [2] '물은 왜 어는가?', '눈은 왜 내리는가?', '바람은 왜 불며 천둥은 왜 치는가?' 등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적 지식만으로도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곧 알 수 있는 물음이다. [3] 물론, 옛날에는 이러한 '왜'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이 공포로 뒤범벅이 된 허무맹랑한 소리들로 충만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단락 분석

(나)[1]은 (가)[2a]에 대한 예를 들려고 한다. [2]는 [1]을 구체화하여 예를 제시하고 있다. [3]은 [2]의 맥락에서 보충한 설명이다. 그래서 [1]이 중심문장이다. 그 다음은 당연히 (가)[2b]가 열거되어야할 것이다.

(다) [1] 또한 이유 혹은 목적, 의도에 관계되는 '왜' 라는 질문의 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2] '나는 왜 사는가?'와 같은 물음이 그것이다. [3] 이러한 물음들은 원인을 묻는 질문과는 달리 분명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단락 분석

(다)[1]의 '또한'은 열거하겠다는 말이니까 (가)[2b]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2]의 '(ⓐ)'는 당연히 [1]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되면서 [1]의 들러리가 되어야 하고,[3]의 '이러한 물음들은'도 [2]를 부연 보충하고 있다. 그래서 열거의 짝이 되는 [1]이 중심문장이다.

(라) [1] 그러면 '왜 사는가?'의 '왜'는 어떤 것을 겨냥하는 질문일까? [2] 만일, 원인을 겨냥한다면 그것은 생물학 내지 생리학이 혹은 물리·화학이 대답해 줄 것이다. [3]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원인은 생물학 내지 생리학적 작용의 결과였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4]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며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의 생리적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 주기 때문이다. [5] 그리고 설사 생리적 기능에 아무 탈이 없다 하더라도 그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지 않았을 때 어찌될 것인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6] 먹어야 산다는 말은 이것을 꼬집어 주는 말이다. [7] '왜 사는가?'라고 묻는 사람은, 아마도 요즘은 지금 말한 그런 사실을 몰라서, 그래서 알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8] 그렇다면 그것은 이유, 의도, 목적 등에 관련된 '왜' 라는 질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단락 분석

(라)[1]은 (가)에서 언급한 바, 둘 중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어디엔가 해결방안, 즉 답이 나올 것이다. 그 답이 [8]이다. [2]는 [1]의 질문에 대한 가정으로 '원인의 왜'를 제시하면서 답하니까 힘세다. [3], [4], [5]는 열거되어 [2]를 구체화했다. [6]은 [5]를 보충한 들러리이다. [7]은 앞의 [2]~ [6]을 반전한 주장문이니까 현재로선 가장 힘이 세다. [8]은 [7]의 결론문이라 [7]보다 세다. 중심 문장이 되는 것이다. 즉, (라)[1]의 질문에 대해 (라)[8]이 대답을 했으니 가장 힘이 셀 수밖에 없다. [8]에 밑줄 쫙! (가)에서 말한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 (가) [2b]에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마) [1] 이것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첫째는 나의 삶, 나의

존재를 있게 한 이유(의도, 목적)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요, 둘째는 현재 내가 죽지 않고 매일 삶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3 첫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원적 의미에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음을 안다. 4 도대체 나의 존재, 인간의 존재를 있게 한 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5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도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대해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6 왜냐하면, 나를 현재의 모양으로 만든 것은 그들의 의도나 목적의 결과가 아니다. 7 만일 세계와 인간을 창조한 존재(신)가 있다면, 오직 그만이 첫째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단락 분석

(마)1의 '이것은'이 지시하는 것은 이유, 의도, 목적의 '왜'를 가리킨다.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눈다는 것이다. 2가 1을 구체화해서 둘을 말했다. 3에서 2의 첫째 것에 대한 주장을 해서 현재로는 가장 힘이 세다. 4가 주장 3에 대한 근거를 대고 있으니 힘이 없다. 5는 4에 보충된 주장이니까 더욱 힘없고, 6은 5에 대한 근거가 되어 더더욱 힘없는 들러리이다. 7은 6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서 더욱 들러리이다. 그러니까 3에 밑줄 쫙!

(바) 1 둘째 해석은 내가 이왕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현재 삶을 지탱하는 이유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2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이 있다. 3 나의 삶을 가능케 한 최초의 시작은 내가 한 게 아니다. 4 그러나 그 시작이 계속되어 오늘의 나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숨김없는 삶의 현실이다. 5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도나 목적에 의해 계획된 행위의 결과라기보다는 그것의 결여에서 나온, 그냥 자연을 따라가는 현상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6 '왜 사느냐' 하는 물음은 그런 맹목성에 대한 하나의 의식이며 도전적 몸짓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락 분석

(바)1은 (마)3과 열거의 짝이 되면서 주장문이니 바로 밑줄 쫙! 2는 도입 문장이고, 3은 2 에 대한 주지 문장이다. 정보 무게가 뒤로 이동했다. 4는 3에 대한 주지이니까 또 뒤로 이동했다. 5는 3, 4의 결론이니까 현재까지 가장 힘세다. 6은 5의 결론이니까 가장 힘센 문장이다. 그러나 열거의 짝인 1을 이길 수는 없다. 2~6은 주장 1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다.

(사) 1 위의 따짐으로부터 분명해진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이다. 2 첫째로, 도대체 근원적인 의미에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인간이 대답할 수 없다는 점이다. 3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기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한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답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4 우리는 가끔 오만하게도 스스로를 그런 창조자의 위치에 - 상상의 세계에서나마 - 올려놓으려 한다. 5 그리고 무어라 무어라 답을 해 보려 한다. 6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모하고도 헛된 일이다.

단락 분석

(사)1은 (마),(바)를 따짐으로써 나온 결론이니까 단락의 무게가 이동되었다. 2를 보니 '첫째'인 (마)를 얘기하면서 1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열거의 짝이 다음 단락에 나오면 1보다 2가 힘이 더 센 것이다. 물론, '둘째'가 이 단락 내에 있다면 1이 가장 힘센 문장이 될 것

이다. 3은 2에 대한 근거이다. 4, 5는 열거되어 3에 대한 반전이고, 6은 4, 5에 대한 반전이다. 그래서 2가 열거되는 주장이니 중심 문장이다.

(아) 1 둘째로, '왜 사느냐?' 하는 물음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맹목적 삶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며, 궁극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에 대한 하나의 도전적 몸짓이요, 울분의 표현이다. 2 이러한 분노와 절망의 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이왕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 나의 의도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삶의 양식과 내용은 자신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 결정해야겠다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사는 일이다.

단락 분석

(아)1은 '둘째'인(바)를 얘기하면서(사)에 열거되는 주장의 짝이니 볼 것도 없이 밑줄 쫙! 2 는 1에 대한 부연 보충이다.

(자) 1 이때 '왜 사느냐?' 에 대한 대답은 결국 자기 의사 결정의 표현이다. 2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성질을 묘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3 가령, '장미꽃의 모양은 어떠한가?' 와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은, 장미꽃의 모양을 관찰한 것을 적어놓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4 그러나 '왜 사느냐?' 하는 질문을 둘째 번 해석과 같이 이해하면 그것은 자기 계획과 의도의 선언이요, 근원적으로 자기 결정의 표현일 뿐이다.

단락 분석

(자)1은(사), (아)에 대한 결론이며, 즉 (라)8에 대한 대답이다. 2는 1에 대한 부연 보충 설명이고, 3, 4는 대조되어 2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서 1에 밑줄 쫙!

****단락 간의 관계****

(가)에서 도입하였으며,
(나), (다)는 열거되어 (가)를 상세화했다.
(라)에서 화제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마),(바)에서 다시 상세화한 것이다.
(사)는 (마)를 상술하고,
(아)는(바)를 상술하면서(사), (아)는 열거되었다.
(자)는(사), (아)를 전제로 내린 전체 결론이다. (자)가 주제 단락이다.

*****단락의 중심문장*****

(가) '왜' 라는 말로 시작되는 물음은 다음의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겨냥한다.
(나) 앞의 원인을 겨냥하는 '왜' 라는 질문의 예는 너무나 허다한데, 이는 과학적 지식만으로도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물음이다.
(다) 또한 이유 혹은 목적, 의도에 관계되는 '왜' 라는 질문의 예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물음은 원인을 묻는 질문과는 달리 분명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 관심의 대상이 된다.
(라) 그렇다면 '왜 사는가'라는 물음은 이유, 의도, 목적 등에 관련된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마) 첫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원적 의미에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음을 안다.
(바)둘째 해석은 내가 이왕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현재 삶을 지탱하는 이유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사) 첫째로, 도대체 근원적인 의미에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인간이 대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 둘째로, '왜 사느냐?' 하는 물음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맹목적 삶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며, 궁극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에 대한 하나의 도전적 몸짓이요, 울분의 표현이다.
(자) 이때 '왜 사느냐?' 에 대한 대답은 결국 자기 의사 결정의 표현이다.

******전체 요약******

(가) '왜'라는 물음은 어떤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함과, 어떤 사태를 만든 이유 내지 목적, 의도가 무엇인가 함 등 두 가지가 있다. (나) 전자는 과학적 지식만으로도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물음이지만, (다) 후자의 물음은 원인을 묻는 질문과는 달리 분명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 관심의 대상이 된다. (라) 그러면 '왜 사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전자와 같이 생물학적인 존재 사실을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유, 의도, 목적 등에 관련된 후자의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 이 후자의 물음을 다시 둘로 나누어 볼 때, 그 하나는 나의 삶, 나의 존재를 있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요, (바) 다른 하나는 현재 내가 죽지 않고 매일 삶을 지속하는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맹목성에 대한 하나의 의식이며 도전적 몸짓으로 이해할 수 있다.(사) 이러한 따짐으로부터 분명해진 것은, 우선 근원적인 의미에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인간을 창조한 신이 대답할 수 있을 뿐 인간이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아) '왜 사느냐?'하는 물음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스스로의 맹목적 삶에 대한 반성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에 대한 울분과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자) 이로 볼 때, '왜 사느냐?'에 대한 대답은 결국 자기 의사 결정의 표현이다.

제시문11

(가) ① 미국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은 앞으로의 사회를, 물품이나 재화의 생산에서 정보와 서비스의 생산으로 산업 구조가 변해 감에 따라 사회적 중심 가치가 자본으로부터 지식으로 이행해 간다는 점에서 '탈공업화 사회'라고 명명한바 있다. ② 또한, 이 새로운 사회가 컴퓨터와 전기 통신의 융합에 의한 고도의 정보화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전 대통령 지스카르 데스탱은 다가오는 사회를 전기 통신을 의미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과 정보처리를 뜻하는 인포마티크(Informatique)의 합성어인 '텔레마티크(Telematique)'란 용어를 사용하여 '텔레마티크 사회(Telematique Society)'로 지칭한 바 있다. ③ 이는 또한 정보가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사회가 된다는 의미에서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 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다.

단락 분석

(가)①과 ②는 열거되면서 단락이 끝났다. 이렇게 단락이 끝나면 무엇을 말하겠다는 걸까?

자, 서론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 잘 보자. [1]에서 다니엘 벨은 오늘날 사회를 '탈공업화 사회'라고 했고, [2]에서 지스카르 데스탱은 오늘날 사회를 '텔레마티크 사회'라고 했다. [3]의 '이는'이 지시하는 것은 '텔레마티크 사회'이니까 '또한'은 열거가 아니라 보충이다. '그리고, 또(한), 게다가' 등은 열거 혹은 보충으로 쓰인다. 즉, '텔레마티크 사회'를 다른 이름으로 '정보화 사회'라고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서론은 정황, 실태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글은 앞으로 오늘날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게 될 것이다. [1], [2]가 중심 문장이다.

(나) [1] 정보화 사회를 한 마디로 개념 짓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2] 그러나 이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해 보면, 정보화 사회란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혁신적 진보에 따라 그 결합 형태인 [2a]텔레마티크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정보 이용의 균점, 지역 간 정보 격차의 해소와 함께 동시 생활권이 이룩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단락 분석
(나)[1]은 도입 주장문이고, [2]는 [1]에 대한 주지 주장문으로서 정보화 사회를 [2a]로 규정짓고있다. [2]가 중심문장이다.

(다) [1] 아울러, 정보화 사회란 기본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종래의 물질 가치와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중시되는 사회로서, 정보의 유통 전달 매체로서 [1a]통신의 역할이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사회이다.

단락 분석
(다)의 '아울러'는 열거의 접속어이니까 (나)에 열거되어 '정보화 사회의 규정 2'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1a]로 규정짓고 있다. 결국 글쓴이는 (나), (다)에서 '정보화 사회'를 일단 규정짓고 있다. 1a가 중심문이다.

(라) [1]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산업이나 유통 구조에 있어서 종래의 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2] 다시 말하면, 정보 기술은 재화와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수요자에 대해 지극히 세밀하고 개별적인 대응을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단락 분석
(라)[1]에서 '정보화 사회의 진전이 가져오는 영향'을 주장하고, [2]는 [1]에 대한 상술을 하고 있다. '곧, 즉, 다시 말해서, 달리 말하자면,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등은 부연 상술의 접속어이다. [1]이 중심문장이다.

(마) [1] 그리고 **정보화의 진전**은 생산·기지의 고도화와 지능화 및 생산 공정의 합리화와 자동화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인력 절감을 실현하고 있으며, 유통이나 신상

품의 개발을 위한 기술 정보 및 시장 정보의 수집 분석을 뒷받침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

단락 분석
(마)[1]의 '그리고'는 (라)와 열거되어 '정보화 사회의 진전이 가져오는 영향 2'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열거의 짝이니까 중심문장이다. 열거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 상위 개념에 대해 그 구체적 속성들이 나열된다는 것이다. 즉, 정보화 사회의 개념을 규정짓기 위해 '정보화 사회의 진전이 가져오는 영향'이 나열된다는 것이다.

(바) [1] 아울러, 거시적 관점에서 볼 경우, **정보화**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산업에서 가정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통하여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수반되는 거대한 정보 수요를 개척하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정보 통신 산업의 입지와 성장을 가져오는 등 국민 생활이나 국토 이용에 극히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락 분석
(바)[1]의 '아울러'는 열거의 접속어이니까 '정보화 사회의 진전이 가져오는 영향 3'이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사) [1] 이와 함께 **정보화의 진전**은 산업 사회에서 형성된 사회 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2] 통신의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정보 유통 구조와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 구조의 다양화와 유통 분배 면에서의 소량화, 세분화의 진척과 함께 정부 조직이나 기업의 형태에도 변모를 요구하고 있다.

단락 분석
(사)[1]의 '이와 함께'도 열거로 쓰였으니까 '정보화 사회의 진전이 가져오는 영향 4'가 되어야만 한다. [2]는 [1]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다. [1]이 중심 문장이다.

(아) [1] 따라서, 정보화 사회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사회이며, 이에 따라 정보 유통 기반 구조로서 통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단락 분석
(아)[1]의 '따라서'는 결론의 접속어이므로, 가장 힘이 세다.

****단락 간의 관계****
(가)에서 대상에 대한 개념을 인용하고,
(나)에서 개념에 대한 주장을 했다.
(다)는 (나)와 열거된 주장을 했고,
(라), (마),(바),(사)는 앞선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댔다.
(아)에서 총체적 결론을 맺었다. (아)가 주제 단락이다.

단락의 중심문장
(가) 1, 2 문장-다니엘 벨과 지스카르 데스텡이 개념지은 앞으로의 사회(중심내용)
(나) 그러나 이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해 보면, 정보화 사회란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혁신적 진보에 따라 그 결합 형태인 2a텔레마티크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정보 이용의 균점, 지역 간 정보 격차의 해소와 함께 동시 생활권이 이룩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다) 아울러, 정보화 사회란 기본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종래의 물질 가치와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중시되는 사회로서, 정보의 유통 전달 매체로서 1a통신의 역할이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사회이다.
(라)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산업이나 유통 구조에 있어서 종래의 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마)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생산성 향상과 인력 절감을 실현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
(바) 아울러, 거시적 관점에서 볼 경우, **정보화**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산업에서 가정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통하여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수반되는 거대한 정보 수요를 개척하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정보 통신 산업의 입지와 성장을 가져오는 등 국민 생활이나 국토 이용에 극히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 이와 함께 **정보화의 진전**은 산업 사회에서 형성된 사회 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아) 따라서, 정보화 사회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사회이며, 이에 따라 정보 유통 기반 구조로서 통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요약****
(가) 앞으로의 사회에 대해서 다니엘 벨 '탈공업화 사회'라고 지칭한 것은 사회적 가치의 중심이 자본에서 지식으로 이행해 간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 지스카르 데스텡이 '텔레마티크 사회'라고 한 것은 컴퓨터와 전기 통신의 융합이 정보화 사회의 바탕이 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나) 그러나 이에 관한 여러 견해를 종합하면 정보화 사회는 보편화된 컴퓨터와 전기 통신의 이용으로 인해 정보이용이 평균화되고 지역 간 정보격차가 해소되는 동시에 동시 생활권이 이룩되는 사회를 말한다. (다) 또 정보화 사회는 통신의 역할이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며, (라)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져오는 사회이다.
(마) 그리고 **정보화의 진전**은 컴퓨터와 전기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인력 절감을 실현뿐 이니라, 유통이나 신상품의 개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재화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바) 또한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인간의 알 권리에 대한 거대한 정보 수요를 개척하며, 국민 생활이나 국토 이용에 극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사)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산업 사회의 사회 구조를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아) 따라서, 정보화 사회의 핵심은 모든 부문에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정보 유통 구조를 통한 통신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마당 : 요약 쓰기

여기서는 앞서 도출한 <단락의 핵심내용>을 자신의 글로 만들어 요약 글을 만든다.

요약 쓰기1

<원문>
(가) 1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그 싸움은 이해(利害)에서 생긴다. 2이해가 절실할수록 당파는 심해지고, 이해가 오랠수록 당파는 굳어진다. 3이것은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4어떻게 하면 이것을 밝힐 수 있을까?

(나) 1이제 열 사람이 모두 굶주리다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게 되었다고 하자. 2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다. 3말이 불손하다고 꾸짖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싸움이 말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다. 4다른 날에 또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행동이 거칠다고 힐난하다가 마침내 어떤 사람이 울화통을 터뜨리고 여럿이 이에 시끌벅적하게 가세한다. 5시작은 대수롭지 않으나 마지막에는 크게 된다.

(다) 1이것을 또 길에서 살펴보면 이러하다. 2오던 자가 어깨를 건드리면 가던 자가 싸움을 건다. 3말이 불손하고, 태도가 사나우며, 행동이 거칠다 하여 그 하는 말은 끝이 없으나 떳떳하게 성내는 것이 아닌 것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싸울 때와 똑같다.

(라) 1이로써 보면 싸움이 밥 때문이지 말이나 태도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이해의 연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는 그 잘못됨을 고칠 수가 없는 법이다. 3가령 오늘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싸웠으되 내일에는 각기 밥상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 하여 싸우게 되었던 원인을 없앤다면 한때 헐뜯고 꾸짖던 앙금이 저절로 가라앉아 다시 싸우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마) 1나라의 붕당도 이와 다를 게 무엇인가. 2처음에는 한 사람의 선하고 악한 것, 또는 한 가지의 일의 경중(輕重)에 대해서 마음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입으로 비방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3이런 것은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 4그러나 조정에서는 서로 피 튀기면 싸우고, 조정 밖에서는 으르렁거리는 것이 마치 군령(軍令)도 없이 사람마다 싸움터에서 후퇴할 줄 모르는 것과 같이 하니 도대체 왜 그러한가?

<단락의 핵심내용>
(가), 어떻게 하면 붕당을 밝힐 수 있을까?
(나), 밥그릇 싸움을 보면 싸움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났다며 시끌벅적 가세하여 큰 싸움이 된다.
(다), 또 길거리 싸움도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다.
(라), 이처럼 밥그릇·길거리 싸움을 보면, 싸움이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마), 나라의 붕당도 바로 이 밥그릇·길거리 싸움과 같다.

<요약 원리>
(가)는 문제을 제기하였고 (나)~(라)는 해결과정이며 (마)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마)가 가장 힘센 단락이므로 중심 단락으로 세우면서 단락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글로 바꾼다. 더 축소된 요약을 요구하면 (나), (다)가 비유된 단락들이므로 이들을 하나로 압축한다.

<요약문>
1어떻게 하면 붕당의 본질을 밝힐 수 있을까? 2굶주린 열 사람이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으면 싸움의 연원이 밥그릇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며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3또 길거리 싸움도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 것은 밥그릇 싸움과 똑 같다. 4이로써 보면 밥그릇·길거리 싸움은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이 아니

라 이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5나라의 붕당도 바로 이 밥그릇·길거리 싸움과 다를 바 없다.

❖요약 자수 줄이고 늘이는 법

■요약 자수 줄이는 법

기존 단락의 중심내용보다 더 적은 자수를 요구하면 힘없는 단락 순서로 삭제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단락을 하나로 압축한다.

축소1 : 단락 가운데 열거, 대조, 비교된 단락은 하나로 압축한다.
축소2 : 단락 가운데 가족문은 하나로 압축한다.

<요약문>
1어떻게 하면 붕당의 본질을 밝힐 수 있을까? 2굶주린 열 사람이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으면 싸움의 연원이 밥그릇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며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3또 길거리 싸움도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 것은 밥그릇 싸움과 똑 같다. 4이로써 보면 밥그릇·길거리 싸움은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5나라의 붕당도 바로 이 밥그릇·길거리 싸움과 다를 바 없다.

축소1 : 2, 3은 비유하면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하나로 줄일 수 있다.

1어떻게 하면 붕당의 본질을 밝힐 수 있을까? **2,3붕당에 비유된** 밥그릇·길거리 싸움은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이라 하지만, 4밥그릇·길거리 싸움은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5나라의 붕당도 바로 이 밥그릇·길거리 싸움과 다를 바 없다.

축소2 : 2,3,4는 해결과정의 가족문으로서 밥그릇·길거리 싸움의 연원을 말하므로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1.문제제기-2,3,4해결과정-5해결'의 구도로서 원문의 구도와 일치시킨다.

1어떻게 하면 붕당의 본질을 밝힐 수 있을까? **2,3,4** 밥그릇·길거리 싸움은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에 일어난다. 5나라의 붕당도 바로 이 밥그릇·길거리 싸움과 다를 바 없다.

■요약 자수 늘이는 법

그러나 자수를 더 요구할 때는 단락의 힘세기 순서를 바탕으로 해서, 중심문장에 대한 서열의 순서대로 보조문장을 자신의 글로 바꾸어 포함시킨다. 곧, 다음의 단계와 같다.

확장1 : 주제 단락의 중심문장에 대한 서열1 보조문장을 자신의 글로 바꾸어 요약문에 포함시킨다.
확장2 : 주지 단락의 중심문장에 대한 서열1 보조문장을 자신의 글로 바꾸어 요약문에 포

함시킨다.
확장3 : 보조 단락의 중심문장에 대한 서열1 보조문장을 자신의 글로 바꾸어 요약문에 포함시킨다.
확장4 : 더 늘여야 할 때는 위의 순서대로 서열2 보조문장을 자신의 글로 붙여 나간다.

확장1 : 주제 단락의 중심문장에 대한 서열 1위 문장을 자신의 글로 포함시킨다.

1어떻게 하면 붕당의 본질을 밝힐 수 있을까? 2굶주린 열 사람이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으면 싸움의 연원이 밥그릇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며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3또 길거리 싸움도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 것은 밥그릇 싸움과 똑 같다. 4이로써 보면 밥그릇·길거리 싸움은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5나라의 붕당도 바로 이 밥그릇·길거리 싸움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이 제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상대를 트집잡아 비방하는 것일 뿐이다.**

확장2 : 주지 단락의 중심문장에 대한 서열1 보조문장을 자신의 글로 포함시킨다.

1어떻게 하면 붕당의 본질을 밝힐 수 있을까? 2굶주린 열 사람이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으면 싸움의 연원이 밥그릇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며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3또 길거리 싸움도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 것은 밥그릇 싸움과 똑 같다. 4이로써 보면 밥그릇·길거리 싸움은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 싸움은 **이해의 연원을 해결할 때 비로소 멈추게 되는 것이다.** 5나라의 붕당도 바로 이해가 걸린 밥그릇·길거리 싸움과 다를 바 없다. **처음에 상대의 선악과 일의 경중에 대해 불순한 마음을 갖고 트집을 잡아 비방하는 것일 뿐이다.**

확장3 : 보조 단락의 중심문장에 대한 서열1 보조문장을 자신의 글로 포함시킨다.

1어떻게 하면 붕당의 본질을 밝힐 수 있을까? 2굶주린 열 사람이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으면 싸움의 연원이 밥그릇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며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3또 길거리 싸움도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 것은 밥그릇 싸움과 똑 같다. **싸움은 작게 시작해서 종국에는 큰 싸움이 된다.** 4이로써 보면 밥그릇·길거리 싸움은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해의 연원을 알지 못하면 결코 그 잘못됨을 고칠 수가 없다.** 5나라의 붕당도 바로 이 밥그릇·길거리 싸움과 다를 바 없다. **처음에 상대의 선악과 일의 경중에 대해 불순한 마음을 갖고 트집을 잡아 비방하는 것일 뿐이다.**

확장4 : 더 늘여야 할 때는 위의 순서대로 서열2 보조문장을 자신의 글로 붙여 나간다.

1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그 싸움은 이해(利害)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붕당의 본질을 밝힐

수 있을까? 2굶주린 열 사람이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으면 싸움의 연원이 밥그릇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며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3또 길거리 싸움도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 것은 밥그릇 싸움과 똑 같다. **싸움은 작게 시작해서 종국에는 큰 싸움이 된다.** 4이로써 보면 밥그릇·길거리 싸움은 말이나 행동,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해의 연원을 알지 못하면 결코 그 잘못됨을 고칠 수가 없다.** 5나라의 붕당도 바로 이 밥그릇·길거리 싸움과 다를 바 없다. **처음에 상대의 선악과 일의 경중에 대해 불순한 마음을 갖고 트집을 잡아 비방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요약의 자수는 각 단락의 중심문장을 기준으로 문장이 지니는 힘의 서열에 따라 가감하여 최적의 요약문을 원하는 대로 줄이고 늘일 수 있는 것이다.

요약 쓰기2

<원문>
(가)1'역사'를 의미하는 영어의 '히스토리(history)'와 독일의 '게쉬히테(Geschichte)'의 어의를 살펴보면 역사의 기본 개념을 잘 알 수 있다. 2히스토리는 '탐구된 역사 사실', 즉 서술된 역사를 뜻하고, 게쉬히테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 즉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의미한다. 3이와 같이 역사라는 개념에는 과거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과거 사실에 관해 탐구하여 서술된 역사가 있다.

(나) 1독일어의 게쉬히테가 본래 의미하는 역사는 과거에 엄연히 존재했던 사실로서 서술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는 것이며, 2영어의 히스토리가 본래 의미하는 역사는 서술하는 사람의 입장과 인식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3a과거에 발생한 사실은 바로 역사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며, 3b탐구하여 서술하는 것은 역사학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역사학의 과제는 구체적인 과거 사실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또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서술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 1그런데 역사가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실들을 직접 관찰할 수 없다. 2역사가는 또한 모든 일을 경험할 수도 없다. 3그러므로 역사가가 연구할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사료(史料)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4그리고 우리가 얻어 볼 수 있는 사료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서술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다. 5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되도록 사실에 접근하여 체계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5a사료 비판을 비롯한 역사적 연구법과 더불어, 5b역사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라) 1역사 철학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역사가가 과거 사실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점을 철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2a역사학이 개개의 역사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2b역사 철학은 역사

적 현상을 총괄적이고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 1역사학과 역사 철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2즉, 역사 철학은 역사학의 구체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그 이론을 체계화할 수 있고, 역사학은 역사 철학의 체계적인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격조 놓은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3역사학과 역사 철학은 이와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위대한 역사가들은 구체적인 역사 연구자인 동시에 이론적인 역사 철학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단락의 핵심내용>

(가) 역사에는 두 가지 역사의 개념, 즉 사실의 역사와 서술의 역사가 있다.
(나) 사실의 역사는 역사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서술하느냐는 것과, 서술의 역사는 역사학의 인식론으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는 것이 역사학의 과제이다.
(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되도록 사실에 접근하여 체계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료 비판을 비롯한 역사적 연구법과 함께, 역사 철학이 필요하다.
(라) 역사철학은 역사가의 연구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역사적 현상의 총괄적이고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다.
(마) 이로 볼 때 역사학과 역사 철학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요약 원리>

(가)에서 논지를 주장하고 (나)는 (가)의 상술이면서 전제가 되므로 전제-결론 관계로 연결한다. 또 (다)는 (나)를 전제로 한 전제-결론 관계로 연결한다. (라)는 (다)의 구체화 관계로 연결한다. (마)는 (라), (다)를 전제로 한 전제-결론의 관계로 연결한다. 또, 여기서는 단락간의 내용적 비약이 없으므로 모든 단락들의 관계를 지켜 자신의 말로 바꾸어 잇는다.

<요약문>

1역사의 기본 개념에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역사와 사실을 해석하는 역사가 있다. **2그러므로** 사실의 역사는 과거 역사적 사실을 얼마나 정확히, 체계적으로 서술하느냐는 문제이고 서술의 역사는 과거 역사적 사실을 얼마나 정확히, 합리적으로 해석하느냐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바로 역사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3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체계화하고 이 해석들을 고도로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사료 비판을 비롯한 역사학과 함께, 역사철학이 필요하다. 4역사철학은 역사가가 연구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도구라 할 수 있으며, 역사적 현상을 이론적,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다. **5이로 볼 때,** 역사학과 역사 철학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요약 쓰기3

<원문>

(가) 1사람들은 좋은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쉽게 감동을 느끼지만 과학 이론을 대하

면 복잡한 논리와 딱딱한 언어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느낀다. 2그래서 흔히 과학자는 논리적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 진리를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예술가는 직관적 영감에 의존해서 주관적인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3a 이러한 통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3b돌이켜보면 많은 과학상의 발견들은 직관적 영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 1아인슈타인은 누구에게나 절대적 진리로 간주되었던 시간과 공간의 불변성을 뒤엎고,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깨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직관적 영감에서 나온 것으로, 과학의 발견에서 직관적 영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 준다. 3그 밖에도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하였고, 갈릴레이는 피사의 대사원에서 기도하던 중 천장에서 흔들리는 램프를 보고 진자(振子)의 원리를 발견하였다. 4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 안에서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 유레카!"를 외치며 집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5이렇게 볼 때 과학의 발견이 '1퍼센트의 영감과 99퍼센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과학의 발견에서 직관적 영감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다) 1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사람들은 대체로 과학자들이 논리적 분석과 추리를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고 소박하게 믿고 있지만, 상당 부분 그 발견의 밑거름은 직관적 영감이고, 그것은 흔히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나온다. 3대부분의 위대한 과학자들은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발견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논리가 아니라 의식의 심연으로부터 솟아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적 감각에 이끌린다고 고백한다. 4문제와 오랜 씨름을 한 끝에 마음의 긴장과 갈등이 절정에 다다른 순간, 새로운 비전이 환상처럼 나타난다는 것이다. 5과학의 발견은 이러한 영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언어로 기술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라) 1한편, 화가나 조각가, 그리고 건축가들도 때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창조하기위해서 사물을 분석하고 해부한다. 2그리스 시대의 황금 분할은 최대의 미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학적 비례의 법칙을 치밀하게 분석한 것이고, 아름다운 음악도 엄밀하게 계산된 소리의 배열과 공명 현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3예술가들의 분석적 시각은 "자연의 모든 형상은 구, 원통, 원추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세잔의 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4그런가 하면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 나가는 물결을 연상했던 시인은 소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시적 상상력 속에 용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5이와 같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 직관적인 영감에 의존하는가 하면, 예술가들은 과학적 지식과 관점을 도입하여 예술품을 창작해 내기도 한다.

(마) 1이러한 과학과 예술의 창조적 행위는 모두 인간의 본능인 탐구 욕구에서 출발한다.2탐구 욕구는 과학자와 예술가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여 새로운 상상을 자극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3물론 과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연의 신비를 벗기는 것이지만, 그 동기는 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외경(畏敬)과 경이의 감정이다. 4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신비에 경이를 느낄 수 없는 사람, 감동하지 않는 사람, 명상에 잠길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던 것이다. 5이렇게 보면 과학과 예술

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상이한 정신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6마치 무지개 색깔이 서로 겹쳐 들어가면서 연속되는 것과 같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과학과 예술은 중첩되어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단락의 핵심 내용>

(가) 많은 과학상의 발견들은 직관적 영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나) 아인슈타인, 뉴턴, 아르키메데스의 예에서도 보듯이 '과학적 발견이 1% 영감, 99%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직관적 영감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다) 과학 발견의 밑거름은 직관적 영감이고, 그것은 흔히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나온다.
(라) 이와 같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 직관적인 영감에 의존하는가 하면, 예술가들은 과학적 지식과 관점을 도입하여 예술품을 창작해 내기도 한다.
(마) 이렇게 보면 과학과 예술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정신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요약 원리>

(가)의 주장에 대해 (나)는 예시 관계로 연결한다. 중심문장 (다)2는 문제를 제기한 (다)1에 대한 대답이므로 (다)1이 없이는 '문제제기-해결방안'이 성립되지 않아 내용상 비약이 된다. 따라서 문제제기에 해당하는 (다)1을 보충한다. (라)1에 대해 (라)2,3,4는 예시이고 (라)5는 (라)1,2,3,4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중심문장 (라)5는 내용적 비약을 피하기 위해 전제가 필요하므로 전제에 해당하는 (라)1,2,3,4 가운데 서열1 보조문장인 (라)1을 보충하여 (라)5와 연결한다.

<요약문>

(가)많은 과학상의 발견들은 직관적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나)예컨대 상대성 원리, 만류인력, 물질의 부피를 측정하는 법 등을 발견한 과정을 보면, '과학적 발견이 1% 영감, 99%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과학상의 발견에 대한 직관적 영감의 역할이 거의 무시한 것이지만 실상은 영감의 역할이 지대하다. (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감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 영감이 나오는 곳은 언어가 끝나는 곳, 즉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곳에서 나온다. (라)1 이에 반해, 예술가들도 때로는 과학 영역인 조화와 균형을 창조하기 위해 과학자처럼 사물을 분석하고 해부한다. (라)5 이와 같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 구축을 위해 직관적인 영감에 의존하고, 예술가들은 예술품 창작을 위해 과학적 지식과 관점을 도입하기도 한다. (마)이로써 보면 과학과 예술은 별개의 정신 활동이 아니라 서로 중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4

(가) 1사회 복지는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이념을 전제로 한다. 2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방법론은 바로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달하였다. 3사회 복지 방법론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로 구성되는데, 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4하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개별화하여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미시적 방법론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집합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사회 차원에서

그 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거시적 방법론이다. 5a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찾아내어 그 원인을 진단해 냄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며, 5b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
이나 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나) 1이러한 두 가지 방법론은 사회 체제와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다. ②미시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사회 체제 자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따라서 사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그다지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③이들은 단지 사회 체제 안에서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 곧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임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다) 1반면에 거시적 방법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체제 자체를 매우 중요시한다. ②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사회 체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③따라서, 이들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세력들 간의 역동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이며, 정부의 정책 과정 및 그것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관련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회 복지 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라) 1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 복지 방법론은 미시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②현재의 사회 복지 방법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 대부분은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정신의학, 집단역학 등 인접 학문으로부터 빌려 온 많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돕는 데 필요한 실천 지향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로 이룩된 것들이다. ③그 결과 사회 복지 방법론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문제들을 다루거나,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데에는 일단 성공을 하였다. ④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과 사회 체제의 관계, 사회적 약자의 욕구가 정책을 반영하는 과정, 그리고 사회 체제에 내재해 있는 편향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마) 1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쳐 발전된 사회 복지 방법론은 단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유지 및 보전'이라는 사회 복지 본래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②왜냐하면, 기형적으로 발전된 이러한 사회 복지 방법론만 가지고서는 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어렵고,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 1우리는 사회 복지 방법론의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미시적인 사회 복지 방법론만으로는 사회 복지의 이념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②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 사회 정책을 입안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결국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을 양축으로 하는 사회 복지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사회 복지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앞당겨 달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단락 간의 관계

(가) 화제를 제시하면서 '두 가지 사회복지 방법론'이 열거될 것을 예고했다.
(나) 그 중 하나인 '미시적 방법론'을 구체화해 주고,
(다) 대조된 짝으로 '거시적 방법론'을 구체화하면서,
(라) 미시적 방법론 중심의 편향된 문제를 상식선에서 말했다.
(마) 이를 비판하면서 단락의 힘이 뒤로 넘어왔다.
(바) '바람직한 사회복지 방법론'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바)가 주제 단락이다.

<단락의 핵심 내용>

(가)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에는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 등 두 가지가 있다.
(나) 개인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방법론자들은 사회 체제나 사회 정책의 입안, 집행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다) 반면에 전체 사회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 방법론자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체제를 매우 중요시한다.
(라)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 복지 방법론은 미시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발전함으로써 편향성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마) 한쪽으로 치우쳐 발전된 사회 복지 방법론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유지 및 보존'이라는 사회 복지 본래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바) 따라서 이 두 방법론을 모두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만 사회복지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원리>

(가)에서 핵심인 '사회복지의 개념'을 말해주고 그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한다. (나), (다)는 두 가지 방법론을 대조의 서술 방식으로 배치하고 (라)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마)는 문제에 대한 발전으로 심화시키고 (바)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내용적 비약이 없으나 복지의 두 가지 방법론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므로 그 속성을 언급하자. 그 다음 나이 글로 만들기 과정으로 들어간다.

<요약문>

(가)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보존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론은 미시적 방법론과 거시적 방법론이다. (나)개인에 초점을 둔 미시적 방법론자들은 사회집단의 복지에는 무관심하고 개인의 어려움을 찾아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임상 분야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다)반면에 전체 사회에 초점을 둔 거시적 방법론자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체제 자체를 매우 중요시함으로써 정부와 사회 단체를 둘러싼 정책 환경적인 문제, 즉 정책적으로 복지 대

상자들을 도우기 위해 사회 복지 방법론을 계발하고자 한다. (라)그런데 사회 복지 방법론은 지금까지 미시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마)'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유지 및 보존'이라는 사회 복지 본래의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웠다. (바)따라서 올바른 사회 복사회복지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앞당겨 실현하려면 이 두 방법론을 모두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